

**[지정-개별연구]**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2023. 2.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

건 국 대 학 교



# [지정-개별연구]

##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연구책임자 : 김경숙(입학처 입학팀)  
공동연구자 : 방유리나(입학처 입학팀)  
                  최민지(입학처 입학팀)  
                  반재곤(입학처 입학팀)  
                  유신재(전 서강대 입학사정관)  
연구보조원 : 김동진(인천 동산고등학교)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

건 국 대 학 교

이 연구는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의견은 건국대학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 연구결과 요약

---

## 요약

---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입시상황에서 입학전형 주체들인 학생(입학전형을 경험한 K대학 대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등의 대입전형 공정성 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을 재규정함과 동시에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PDCA(Plan-Do-Check-Act) 모델을 활용하여 개별 대학에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입학전형 주체들의 설문과 초점 집단면접(FGI) 결과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둘째, 2013년 건국대의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과 FGI 결과를 적용하여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와 운영 모델을 구성하였다. 셋째,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2차례 델파이 기법을 통해 자가진단 리스트와 운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대학입학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인식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학생 149명, 고교생을 둔 학부모 160명, 고교 교사 545명, 입학관계자 23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학생은 89.2%, 학부모는 72.5%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하고, 채점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과 점수를 표준화한다는 면에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고교 교사는 면접고사가 공정하다고 보는 응답이 79.4%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입학관계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지만,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자료로써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다고 보는 응답이 75.6%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요소를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고교 교사와 입학관계자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요소나 전형자료를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결과에 대한 예측성이 높

---

은 수능위주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고교 교사와 입학관계자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평가가 포함된 학생부종합전형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향후 대학입학전형을 어떻게 운영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 가능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은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고교생활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재규정하였다.

PDCA모델에서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묻는 항목들이 ‘Plan’에 해당하며, ‘Plan’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Do’에 해당한다. ‘Check’의 경우가 ‘Plan’와 ‘Do’를 점검하는 리스트에 해당하며, ‘Act’를 통해 점검 및 보완으로 리스트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가진단 리스트에서는 평가 절차를 총 56개 항목으로, 평가 내용을 총 23개 항목으로 그리고 평가자 전문성을 총 28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다시 필수 94개 항목과 선택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학별 상황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혹은 ‘선택’을 각 문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이 각 문항 내용을 점검하면서 운영 여부에 따라 ‘운영’과 ‘미운영’ 중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운영하고 있을 경우 ‘완비 운영/보완 필요’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으며, 미운영의 경우 ‘구축 고려/ 해당 없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별 하단에 ‘대학 자체 점검 사항 기술’란을 두어 대학에서 추가로 점검할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뿐 아니라 대학입시정책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매뉴얼로 제시하였다.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보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공정성과 개별 대학의 상황이 적용되는 특수한 공정성으로도 활용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대학이 자가진단 리스트를 PDCA 운영 모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순환 환류 구조’로 발전시킨다면,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공정성 확보 모델을 찾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3. 연구 방법 .....	4
가. 설문조사 .....	4
나. 초점집단면담(FGI) .....	12
다. 전문가 델파이 .....	17
<b>II. 이론적 배경</b> .....	<b>21</b>
1. 선행연구 분석 .....	21
가. 공정성의 개념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21
나. 대입제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23
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26
2. 대입제도 공정성 진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	28
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28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표(공정성 리스트) 분석 .....	31
다. 대입제도 공정성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 .....	39
라. 국제적 인증기관의 인증제도 및 도입 효과 .....	45
<b>III. 대입의 공정성 인식 및 요구사항 분석</b> .....	<b>51</b>
1.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인식 분석 .....	51
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분석 .....	51
나.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분석 .....	73
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98
2.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요구사항 분석 .....	112
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사항 .....	112
나.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사항 .....	116
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 .....	119

<b>IV.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b>	<b>124</b>
1.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	124
가. 개관 .....	124
나. 평가 절차 .....	126
다. 평가 내용 .....	129
라. 평가자 전문성 .....	130
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검증 .....	131
가. 자가진단 리스트 검증 .....	132
나. PDCA 활용 모델 검증 .....	136
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	144
가.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	145
나. PDCA 활용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	157
<b>V. 결론 및 제언 .....</b>	<b>164</b>
1. 결론 .....	164
2. 제언 .....	167
참고문헌 .....	169
부록 .....	175
1. 설문지 .....	175
2. FGI 자문지 .....	208
3. 전문가 델파이 .....	212



# 표 목 차

<표 I -1> 설문조사 설계 .....	5
<표 I -2> 영역별 설문지 구성 .....	7
<표 I -3> 설문 응답자 현황: 전체 .....	8
<표 I -4> 설문 응답자 특성: 학생 .....	8
<표 I -5> 설문 응답자 특성: 학부모 .....	10
<표 I -6> 설문 응답자 특성: 입학관계자 .....	10
<표 I -7> 설문 응답자 특성: 교사 .....	11
<표 I -8> FGI 설계 .....	12
<표 I -9> FGI 질문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공통] .....	13
<표 I -10> FGI 질문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입학관계자 및 교사] ..	13
<표 I -11> FGI 질문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학부모 및 학생] .....	14
<표 I -12> FGI 질문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 [공통] .....	15
<표 I -13> FGI 대상자 현황: [그룹1] 입학사정관, 대교협 .....	15
<표 I -14> FGI 대상자 현황: [그룹2] 고교 교사 .....	16
<표 I -15> FGI 대상자 현황: [그룹3] 교육청 장학사 .....	16
<표 I -16> FGI 대상자 현황: [그룹4] 학부모 .....	17
<표 I -17> FGI 대상자 현황: [그룹5] 대학생 .....	17
<표 I -18> 델파이 설계 .....	18
<표 I -19> 델파이 1차 대상자 현황 .....	19
<표 I -20> 델파이 2차 대상자 현황 .....	20
<표 II -1>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지표 및 점검내용 (2009년) .....	32
<표 II -2>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을 위한 노력(2012년) .....	33
<표 II -3>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현황(2014년) .....	34
<표 II -4>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항목의 변화(2014~2017년) .....	35

<표 II-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평가지표 (2018~2019년) .....	36
<표 II-6> 2020년 유형 I·II 선정평가 지표 .....	37
<표 II-7> 2022 유형 I 평가 주안점 및 평가지표(안) .....	38
<표 II-8> 입학사정관계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	39
<표 II-9> 대학별 공정성 체크리스트 .....	42
<표 III-1> 대학입학전형 자료 및 요소에 대한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51
<표 III-2> 학교생활기록부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56
<표 III-3>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58
<표 III-4> 면접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59
<표 III-5> 논술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60
<표 III-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61
<표 III-7> 실기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	66
<표 III-8>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 .....	68
<표 III-9> 각 전형별 응답자 간 공정성 인식 차이 .....	68
<표 III-10> ‘평가 내용의 공정성’ 관련 대상별 FGI 내용 .....	74
<표 III-11> 고교의 영향력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74
<표 III-12>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75
<표 III-13> 고교교육 변화 반영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79
<표 III-14> 고교교육 변화 반영 차이 분석: 공통 .....	80
<표 III-15>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차이 분석: 학생, 학부모 .....	82
<표 III-16>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82
<표 III-17> ‘평가 절차의 공정성’ 관련 FGI .....	83
<표 III-18> 정성평가 관리 차이 분석: 공통 .....	84
<표 III-19> 평가 운영 관리 분석: 입학관계자 .....	87
<표 III-20> 정보제공 차이 분석: 공통 .....	88

<표Ⅲ-21> 평가장의 전문성에 대한 FGI: 공통 .....	90
<표Ⅲ-22> 학력 및 지위 분석: 입학관계자 .....	91
<표Ⅲ-23> 교육훈련 내용 차이 분석: 공통 .....	93
<표Ⅲ-24> 교육훈련 내용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93
<표Ⅲ-25> 조직운영 분석: 입학관계자 .....	96
<표Ⅲ-26>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차이 분석: 공통 .....	99
<표Ⅲ-27>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100
<표Ⅲ-28>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차이 분석: 교사 .....	100
<표Ⅲ-29>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공통 .....	101
<표Ⅲ-30>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102
<표Ⅲ-31>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104
<표Ⅲ-32>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공통 .....	104
<표Ⅲ-33>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	105
<표Ⅲ-34> 전형 운영의 전문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	106
<표Ⅲ-35>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차이 분석: 학생, 학부모 .....	109
<표Ⅲ-36>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110
<표Ⅲ-37> 대입전형 단순화 차이 분석 .....	110
<표Ⅲ-38>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	111
<표Ⅲ-39>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1: 공통 .....	119
<표Ⅲ-40>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2: 공통 .....	120
<표Ⅲ-41>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3: 공통 .....	121
<표Ⅳ-1>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13) 개관 .....	124
<표Ⅳ-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 개관 .....	125
<표Ⅳ-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 절차 .....	127
<표Ⅳ-4>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 내용 .....	129

<표Ⅳ-5>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자 전문성 .....	130
<표Ⅳ-6> 자가진단 리스트_타당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온 항목 .....	132
<표Ⅳ-7> 자가진단 리스트_타당도 혹은 중요도가 낮게 나온 항목 .....	133
<표Ⅳ-8>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개관 .....	145
<표Ⅳ-9>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절차: 대입전형운영체계구축 .....	146
<표Ⅳ-10>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	148
<표Ⅳ-11>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	149
<표Ⅳ-1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	151
<표Ⅳ-1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	152
<표Ⅳ-14>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	154
<표Ⅳ-15>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	155
<표Ⅳ-16>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의 단계별 지표 근거 자료 .....	159

## 그 림 목 차

<그림Ⅱ-1> PDCA 모델에 따른 ISO 37001(2016) .....	47
<그림Ⅱ-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 · 50	
<그림Ⅳ-1>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	15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행위이다. 즉,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하기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전형의 주체는 오롯이 대학이 아니다. 대학에의 입학여부가 이후 사회진출에서의 이익이 예측되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전형은 정부의 대입정책의 틀 안에서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입학전형의 주체는 대학이라기 보다는 국가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도입하게 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 김대중 정부의 2002대입개선안에서는 수능 9등급제 제시와 수능, 논술, 교과 등 다양한 전형요소 활용 등을 골자로 전형이 다양화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전형의 도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다. 사회통합을 모토로 시작한 입학사정관전형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로 인해 확대된다. 이후 ‘꿈과 끼’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토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라는 모토로 교육 형평성에 기반한 대입전형을 강조한다.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한 것은 대학의 필요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요구였고,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었다. 대학입학은 대학졸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 대학입학전형은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과 대학입학정책에 정치적 논리로 응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대입정책의 틀에서 해당 대학에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또 우수 지원자를 유치하고자 입학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학입학전형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틀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식화된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

2019)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대학입학전형별 고른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시전형에 제동을 거는 한편, 수도권 16개 대학에 정시전형인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요인 차단을 중요한 개념으로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자기소개서 폐지, 고교정보 블라인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부위주전형의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평가기준 및 전형결과 공개 의무화 및 공공사정관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대학입학전형은 해당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건국대학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매뉴얼’ (김희용 외, 2013) 연구를 발주하여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매뉴얼을 토대로 타당화와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건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2013)을 2013년도에 제작하여 대학에 배포하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가 개인의 윤리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국 3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공정성관련 실태조사 결과, 첫째, 조직의 체계로서 입학사정관제 운영 전담조직의 독립성,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를 위한 규정이 미흡했으며, 둘째,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확보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영역이나 평가기준 등을 모집요강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회피·배제관련 규정과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다단계 평가에서 평가자별 평가건수 및 평가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서류평가에서 편차에 따른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대학도 있었고,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도 있었다. 셋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평가자의 경력 및 업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모의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었다.

변화하는 입시 상황에서 대학은 지속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부위주전형 선발인원의 확대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교교육과정의 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교육의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공정성을 규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공유하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이 대입정책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

성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개선하는 틀로 제작하고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국가 기술표준원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의 국내 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않고 국문화하여 2017년 11월 KS 부합화한 ‘KS A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을 제정·공표하였다. ISO 37001 인증은 정부의 국정 과제의 실현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ISO 37001 인증의 취득은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여 예방하고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청렴문화의 확산과 윤리경영을 통하여 조직의 청렴 이미지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박준영 외, 2019).

2013년의 공정성은 정성평가를 타당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다면, 2022년의 공정성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대학입학전형에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살피고, 이러한 요구를 매뉴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의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관련 인식을 파악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항목을 개발하는 동시에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확보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입시상황에서 입학전형 주체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등의 대입전형 공정성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을 재규정함과 동시에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제작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틀을 활용하여 2013년 공정성확보매뉴얼과는 차별화하고자 한다.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의 인식을 토대로 입시의 주체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이 생각하는 ‘공정하다’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해 공정성의 정도를 물었고, 주체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FGI를 진행하여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입시의 주체별로 FGI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주체별로 요구하는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절차와 내용, 평가자의 전문성 등에서 확보해야

할 공정성의 항목을 추출하여 이후 체크리스트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변화하는 입시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공정성을 재규정하며, 개별 대학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를 구성하고자 한다.

넷째, 공정성 확보 자가진단 리스트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의 PDCA (Plan-Do-Check-Act) 구조를 활용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3년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이 자가진단 리스트에 그쳤다면, PDCA 모델의 활용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계획과 실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평가리스트 그리고 개선사항 등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완되는 것이다. 특히, 개선사항은 다시 계획이나 실행 등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으로서의 매뉴얼을 구안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에 관한 공정성을 재규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트를 제작하여 매뉴얼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입전형 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대입전형 정책에서의 공정성을 규정하고자 대입제도 내에서 공정성의 개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대입제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 고교 교사, 입학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입전형의 공정성 인식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교육청 장학사 등 총 5개 그룹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의 최종 검증을 위해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3장에서는 설문조사, FGI, 델파이 조사의 설계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가. 설문조사

##### 1) 조사 설계



이번 조사는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입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거나 전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들에게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설문 대상이 되는 집단은 학생, 학부모, 고교 교사, 입학관계자로 한정하였다. 이때, 고교 교사에는 교육청에서 입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포함되었으며, 고교 유형을 선택할 때 기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입학관계자에는 입학사정관 및 대학에서 입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설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 교육청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설문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입학관계자 및 고교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URL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K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한정하였고, K대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설문조사 URL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서도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URL을 통해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1,219명이 조사를 위해 접속하였으나, 이중 응답을 끝까지 마친 경우는 1,088명이었다.

<표 I -1> 설문조사 설계

구분	세부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대학교 대학생 149명</li> <li>■ 고교 학부모 160명</li> <li>■ 고교 교사 545명</li> <li>■ 입학관계자 234명</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0월 6일 ~ 10월 31일</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교육청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문을 통해 설문 URL 배부</li> <li>■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설문 URL 게시 및 문자(SMS) 안내</li> </ul>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질문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응답자 집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표 I -2> 영역별 설문지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학관계자)	소분류 (고교 교사)	소분류 (학부모, 대학생)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공통]	1.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				
	2.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고사			
		논술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고사				
	3. 전형유형 및 종류에 따른 인식				
	II.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4. 평가 내용의 공정성	고교의 영향력		-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
고교교육변화 반영					
고교 및 교육청 연계					
5. 평가 절차의 공정성		정성평가 관리			
		평가 운영 관리	-	-	
정보제공					
6. 평가자의 전문성		학력 및 지위		-	-
		교육훈련 내용			
		조직 운영	-	-	
III.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대입 전형자료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	
	8.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전형운영의 투명성			
		전형운영의 전문성	-	-	
	9. 대입전형 구조개편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	
	10. 미래 대입전형 운영 [공통]				
	11. 기타 개선사항 및 제언 [공통]				

첫 번째 영역에서는 현재 대입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형 자료 및 요소를 대입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세부 전형자료 및 요소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 그리고 전형 유형 및 종류에 따른 공정성 인식 정도와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현재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평가 내용, 평가 절차, 평가자의 전문성의 측면의 세부 내용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다. 전형을 직접 운영하는 응답자와 운영되는 전형을 경험해본 집단이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설문지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영역의 설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평가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문항에서 교사나 입학사정관용 설문에서는 고교 및 학교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학생 및 학부모용 설문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또,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문항에서도 평가 운영 관리와 관련된 질문들은 전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전문성에 따른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 평가자의 학력 및 지위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입학관계자용 설문에서만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용 설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2019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용의 경우 대입 전형자료, 전형운영의 투명성, 대입전형 구조개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였고, 교사와 입학관계자용의 설문에서는 전형운영의 전문성까지 포함하여 좀 더 세밀하게 질문을 구성하였다.

좀 더 상세히 세 번째 영역의 설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입전형자료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고교 교사만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응답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형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간소화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입전형 구조개편의 부분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에서만 대입전형 단순화 및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서 모든 집단의 응답자들이 응답 가능한 공통 질문으로 미래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과 입시의 공정성을 위한 기타 개선 사항 및 제언을 서술할 수 있도록 서술형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 3) 응답 특성

이번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설문 응답자 현황: 전체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49	100.0	160	100.0	234	100.0	545	100.0

전체 설문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교 교사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입학관계자, 학부모, 학생의 순으로 응답이 수집되었다.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문항을 건너뛰고 응답한 설문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보아 제외하고 설문분석에 사용하게 될 응답자만 현황에 포함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와 서술형 질문, 인구통계정보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집단별로 수집된 인구통계정보를 통해 응답자 특성을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학생

학생용 설문은 입시를 경험해본 대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모집의 용이성을 위해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학생용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1-4>와 같다.

<표 1-4> 설문 응답자 특성: 학생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56	37.6
	여	93	62.4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입학전형	학생부종합전형	81	54.4
	학생부교과전형	12	8.1
	논술위주전형	11	7.4
	실기/실적위주전형	2	1.3
	수능위주전형	33	22.1
	기타	10	6.7
학년	1학년	22	14.8
	2학년	39	26.2
	3학년	38	25.5
	4학년	50	33.6

응답자들이 입학한 입학전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54.4%였다. 또한, 졸업고교 지역은 서울 26.8%, 경기 27.5%로 대부분 수도권 학생들의 답변이었고, 졸업고교 유형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7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나)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 입시를 끝냈을 경우 본인 자녀의 입시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부모 설문 응답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비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생 학부모의 경우 입시를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자녀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자녀의 경우 좀 더 입시가 가까워진 자녀를 기준으로 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I -5>와 같다.

<표 I -5> 설문 응답자 특성: 학부모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4	15.0
	여	136	85.0

희망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117	41.2
	학생부교과전형	68	23.9
	논술위주전형	28	9.9
	실기/실적위주전형	11	3.9
	수능위주전형	56	19.7
	기타	4	1.4
자녀 학년	1학년	30	18.8
	2학년	34	21.3
	3학년	96	60.0

자녀의 고교가 있는 지역은 다수의 응답 순으로 봤을 때 서울 36.3%, 경기 31.3%, 인천 16.9%였으며, 일반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응답이 85.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41.2%, 학생부교과전형 23.9%, 수능위주전형 19.7% 순으로 본인의 자녀가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전형으로 선택하였다.

#### 다) 입학관계자

입학관계자는 입학사정관과 입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소속 직원을 포함하였다. 이에 입학관계자용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I -6>과 같다.

<표 I -6> 설문 응답자 특성: 입학관계자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111	47.4
	여	123	52.6
신분	전임입학사정관	194	82.9
	위촉입학사정관	5	2.1
	입학 관계자	35	15.0
대학규모	1,000명 미만	13	5.6
	1,000명 이상 ~ 2,000 미만	49	20.9

대학규모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61	26.1
	3,000명 이상	111	47.4

입학관계자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서울 47.4%, 경기 10.7%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 경력의 경우 각 항목별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교사

교사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교사용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I -7>과 같다.

<표 I -7> 설문 응답자 특성: 교사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341	62.6
	여	204	37.4
교사 경력	5년 미만	34	6.2
	5년 이상 ~ 10년 미만	72	13.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4	22.8
	15년 이상 ~ 20년 미만	143	26.2
	20년 이상	172	31.6
진학지도 경력	없음	17	3.1
	1년 이상 ~ 3년 미만	84	15.4
	3년 이상 ~ 5년 미만	123	22.6
	5년 이상 ~ 8년 미만	119	21.8
	8년 이상	202	37.1

서울 31.2%, 경기 21.8%, 충남 10.8%로 해당 지역에 소속된 교사들의 답변이 많았고, 일반고에 재직 중인 교사의 응답이 8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지도 경력의 경우 경험이 없는 교사의 응답보다는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교과만 담당하는 교사들보다 부장이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나. 초점집단면담(FGI)

### 1) FGI 설계

대학입학전형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 주체별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학교 입학사정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교육청 장학사, 고교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주체별로 그룹을 달리하여 1회씩 FGI회의를 진행했다. FGI회의는 2022년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총 5그룹을 진행했으며, FGI 질문지는 12월 5일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FGI회의가 끝난 이후 추가 의견까지 기술하여 12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생 그룹은 대면으로 입학처에 방문하여 FGI회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그룹의 경우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표 I -8> FGI 설계

구분	세부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1] 입학사정관 5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li> <li>■ [그룹2] 고교 교사 5명</li> <li>■ [그룹3] 교육청 장학사 4명</li> <li>■ [그룹4] 고교 학부모 2명</li> <li>■ [그룹5] K대학교 대학생 3명</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2월 5일 ~ 12월 12일</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면담지 작성 및 제출</li> <li>■ [그룹1] ~ [그룹4]: 온라인(Zoom) 회의</li> <li>■ [그룹5]: 대면 회의</li> </ul>

### 2) FGI 질문지 구성

FGI 질문지 구성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구성한 세 개 영역 그대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설문조사에서 그룹별 대립, 혹은 공통되는 응답이 나온 것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우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관련해서는 그룹별 공통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총 3개의 질문을 통해 FGI를 진행했다.



<표 I -9> FGI 질문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공통]

구분	문항
I.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인식	1. 설문조사 결과,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 면접고사 > 학교생활기록부’ 순으로 공정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실기고사 > 논술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면접고사’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가. 학교생활기록부                          나. 자기소개서                          다. 면접고사                          라. 논술고사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바. 실기고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선택 항목:                     </div>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선택 이유:                     </div>

다음으로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는 기존 설문조사에서 그룹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FGI 질문지에서는 4, 5번 2개 문항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였다. 입학관계자 및 교사의 경우, 4번 문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의 공통된 인식에 대한 것을 묻고자 했고, 5번 문항에서는 블라인드평가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의 다른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표 I -10> FGI 질문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입학관계자 및 교사]

구분	문항
II. 학생부위주 전형의 공정성 인식	4.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자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절차에 있어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입학사정관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6.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의 전문성에 있어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집단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및 학생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있어 그룹별 공통된 점이 나타났다. 이에 FGI 질문지에서는 4, 5번 2개 문항의 내용을 입학관계자와 달리 구성하였다. 4번 문항에서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을 묻고자 했고, 5번 문항에서는 다수-다단계 평가와 전형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표 I -11> FGI 질문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학부모 및 학생]

구분	문항
II. 학생부위주 전형의 공정성 인식	4.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다수-다단계 평가'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형결과 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의 전문성에 있어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집단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 및 필요요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그룹에게 공통문항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표 I -12> FGI 질문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 [공통]

구분	문항	
Ⅲ.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	<p>7. 대학입학전형에서의 ‘공정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항목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li> <li>■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는?</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li> <li>■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li> <li>■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는?</li> </ul>		

### 3) 대상자 특성

FGI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입학관계자, 고교 교사, 교육청 장학사, 고교생 학부모와 입시를 치른 대학생으로 구성했다.

#### 가) 입학관계자

입학관계자는 그룹1로 묶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립 대학교 입학사정관 5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1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 FGI를 진행했다.

<표 I -13> FGI 대상자 현황: [그룹1] 입학사정관, 대교협

연번	구분	지역	규모(입학정원)	직위	보고서 표기
1	대학	서울	1,500명 ~ 2,000명 미만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1
2	대학	서울	3,000명 ~ 4,000명 미만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2
3	대학	경북	4,000명 ~ 5,000명 미만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3
4	대학	대구	4,000명 ~ 5,000명 미만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4
5	대학	경기	1,500명 ~ 2,000명 미만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5
6	대교협	-	-	-	입학관계자6

나) 고교 교사

고교 교사는 그룹2로 묶어, 다년간 진로진학 및 입시 경험이 많은 고교 교사 5명으로 구성하고 FGI를 진행했다.

<표 I -14> FGI 대상자 현황: [그룹2] 고교 교사

연번	구분	지역	고교유형	직위	보고서 표기
1	고교	제주	일반고	교사	교사1
2	고교	경남	일반고	교사	교사2
3	고교	경북	일반고	교사	교사3
4	고교	인천	자사고	교사	교사4
5	고교	광주	일반고	교사	교사5

다)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장학사는 그룹3으로 묶어, 지역별 교육청 장학사 4명으로 구성하고 FGI를 진행했다.

<표 I -15> FGI 대상자 현황: [그룹3] 교육청 장학사

연번	구분	지역	직위	보고서 표기
1	교육청	서울	장학사	장학사1
2	교육청	충남	장학사	장학사2
3	교육청	충북	장학사	장학사3
4	교육청	경기	장학사	장학사4

라) 학부모

학부모는 설문조사에서 추후 인터뷰 요청시 응하겠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학부모는 그룹4로 묶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2명으로

확정되어 FGI를 진행했다.

<표 I -16> FGI 대상자 현황: [그룹4] 학부모

연번	자녀의 현재 학년	자녀의 고교유형(지역)	입학 희망 전형	보고서 표기
1	고1	일반고(경기)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부모1
2	고2	일반고(서울)	학생부종합, 논술위주, 수능위주	학부모2

마) 학생

학생 또한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서 추후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학생은 그룹5로 묶어,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명으로 확정되어 FGI를 진행했다.

<표 I -17> FGI 대상자 현황: [그룹5] 대학생

연번	현재 학년	출신고교 유형(지역)	입학한 전형	보고서 표기
1	4학년	일반고(경기)	수능위주(KU일반학생)	학생1
2	2학년	일반고(서울)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	학생2
3	2학년	일반고(대전)	학생부종합(사회통합)	학생3

다. 전문가 델파이

1) 델파이 설계

대학에 근무 중인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1차 개발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매뉴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일반화나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로 10년 이상 경력의 입학사정관 10명에게 이메일을 통

한 자기 기입식 설문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후 2차 델파이로 동일한 전문가 집단 중 일부의 인원에게 1차 델파이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자가진단 리스트 문항의 타당성과 중요도를 묻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및 2차 델파이 기법을 통해 수집된 의견은 통계분석을 통해 타당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최종의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를 도출해내었다.

<표 I -18> 델파이 설계

구분	세부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경력 10년 이상의 입학사정관 10명</li> <li>■ [2차] 1차 델파이에 참여한 경력 10년 이상의 입학사정관 4명</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023년 1월 10일 ~ 1월 13일</li> <li>■ [2차] 2023년 1월 16일 ~ 1월 18일</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자문지 작성 및 이메일(E-Mail) 제출</li> <li>■ [2차] 자문지 작성 및 온라인(Zoom) 회의</li> </ul>

## 2) 델파이 자문지 구성

델파이 자문지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FGI의 분석결과 및 2013년 건국대학교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의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인 자가진단리스트와 PDCA 모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타당성과 중요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 가) 1차 델파이

1차 델파이를 위한 자문지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자가진단 리스트와 PDCA(Plan-Do-Check-Act) 모델을 활용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부분으로 구성했다.

자가진단리스트는 엑셀 파일에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타당여부와 중요도를 1(매우 중요하지 않다)에서 5(매우 중요하다)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고’란을 두어 응답자의 소속대학 내 경험에 기반하여 선택한 이유를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PDCA를 활용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델이 전체적으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는 질문과 PDCA 단계별로 보완점과 개선점을 기술해달라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나) 2차 델파이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하여 나온 자가진단리스트 개선안의 항목들의 타당여부를 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자가진단리스트와 PDCA 활용 모델에 대해 전체적인 수정 및 보완사항을 서술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비대면회의(ZOOM)를 통해 자가진단 리스트 항목과 PDCA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대학의 사정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대상자 특성

델파이에 참여한 인원은 총 14명으로 1차 델파이는 10명, 2차 델파이는 4명으로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델파이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 1차 델파이

1차 델파이에 참여한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I -19>와 같다.

<표 I -19> 델파이 1차 대상자 현황

연번	지역	설립유형	소속대학 규모	경력	직위	보고서 표기
1	서울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13년 1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1
2	서울	사립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14년 2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2
3	경북	사립	4,000명 이상	12월 6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3
4	대구	사립	4,000명 이상	13년 1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4
5	경기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13년 6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5
6	서울	사립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15년	입학사정관	전문가6

연번	지역	설립유형	소속대학 규모	경력	직위	보고서 표기
7	서울	사립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13년 4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7
8	경기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14년 2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8
9	서울	사립	4,000명 이상	13년 9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9
10	전북	국공립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14년 5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10

1차 델파이는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학에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GI에 참여한 5명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추가로 5명을 더 선정하여 총 10명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2차 델파이

2차 델파이에 참여한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I -20>과 같다.

<표 I -20> 델파이 2차 대상자 현황

연번	지역	설립유형	소속대학 규모	경력	직위	보고서 표기
1	경북	사립	4,000명 이상	12월 6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3
2	대구	사립	4,000명 이상	13년 1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4
3	서울	사립	4,000명 이상	13년 9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9
4	전북	국공립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14년 5개월	입학사정관	전문가10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에 참여했던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학에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 중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연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학생부위주 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에 여러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출된 공정성 확보 자가진단 리스트와 PDCA 활용 모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를 1~2차에 걸쳐 실시하여 개선된 리스트 및 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좀 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분석

이 장에서는 대입제도 내에서 공정성의 개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대입제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 가. 공정성의 개념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공정성의 개념과 대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박혜림(2009), 김희용(2011), 김희용 외(2013), 윤소정 외(2015), 김무봉 외(2018), 양성관(2019), 김재웅 외(2019), 김미숙 외(2020), 노성(2021) 등이 있다.

김희용(2011)은 정성을 분배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치우침 없음’ 과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에 따름’ 으로 정의하고 공정성에 대해 ‘치우침 없이, 절차에 따름’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와 입학전형 규정의 형식적 및 실체적 공정성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김희용 외(2013)은 김희용(2011)의 기초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가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 초기의 ‘공정성’ 논의에는 ‘평등’ 과 관련된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논의에는 ‘타당성’ 의 관점을 많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입학 운영을 하는 조직 체계의 공정성을 포함하여 평가자의 전문성, 형식이나 실체적 공정성을 갖기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였다.

이후 윤소정 외(2015)는 입학사정관이 인식하여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태를 알아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제시하여 많은 대학들에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FGI 결과를 종합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함께 보완되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무봉 외(2018)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서 2018년에 연구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진단도구 개발 연구이다. 학생부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 시스템의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느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대학별 공정성 확보 체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성 확보 진단도구 개발을 했으며, 추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문을 통해 진단도구를 완성하였다.

김무봉 외(2018)의 경우 진단도구를 통해 진단결과가 점수로 나오게 되는데, 진단 결과 4.49 이상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편차 0.88을 활용하며 해당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공정성 확보 진단도구의 예비조사 표본이 너무 적었고,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진단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또한, 모든 대학의 사정과 환경이 다른데 어떤 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정성 진단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올 수 있어 진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수화 하여 각 대학의 공정성 확보 정도에 대해 진단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자가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단 결과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고쳐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성관(2019)은 공정성의 개념을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 분배적 공정성으로 보고 분배적 공정성에는 평등의 원칙, 공정하기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또한, 김재웅 외(2019)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공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입전형의 공정성 담론은 전형의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인 의미의 공정성에만 주목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공정성을 간과해왔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성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주관적 평가인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객관적인 점수를 보여주는 수능위주전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 기록의 여러 항목을 보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공정한 전형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미숙 외(2020)에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교육 기회균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존

롤스(John Rawls)의 분배정의론을 근거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공정한 기회균등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입전형의 공정성 논란은 한정되어 있는 상위권 대학 입학 기회를 놓고 벌어지는 기회 분배의 불공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전형별로 지향하는 공정성 및 평가기준과 절차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 공정성 강화의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의 지위에 관해 논의한 연구로 박혜림(2009), 노성(2021)이 있다.

박혜림(2009)은 한국의 입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섯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대학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하고 역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전형의 전주기를 경험해봄으로써 이전의 관리 업무와 다른 전문성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별도로 만들어, 이러한 업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입학사정관들이 교내세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내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의 전문성을 연수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과 지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다섯 번째로 입학사정관들은 대학 전체의 최소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개별 대학의 전형제도를 특성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성(2021)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한 문헌 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탐색한 논의이다. 입학사정관들이 그들의 직무가 갖는 중요성 인식과 업무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비교적 높게 가지는 것에 비해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에 관한 불만족, 조직 내 지위에 대한 불만족, 연봉 등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국가와 대학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의 지위 보장을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정성의 개념과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의 ‘공정성’은 타당성을 포함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고, 평가자의 전문성 및 내용의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 대입제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입학사정관 제도 및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강태중 외(2009), 권수현

(2017), 박찬호 외(2018), 이수정(2018), 김평원(2018), 이광현(2018), 김한솔(2019) 등이 있다.

먼저,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는 연구로는 강태중 외(2009), 권수현(2017)이 있다. 강태중 외(2009)의 경우 미국의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권수현(2017)은 전미입학사정관 협의회 of 윤리강령 중 모범관행 원칙을 설명하면서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에 대한 윤리강령의 제정과 선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범관행 원칙의 핵심 가치에도 공정과 공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입학 업무 관련 직업군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연구에는 박찬호 외(2018), 이수정(2018), 김평원(2018), 김한솔(2019)가 있다. 박찬호 외(2018)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실시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면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학의 학생 선발에 적합한 전형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 수준의 모집 규모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학사정관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입학사정관과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대학 측면과 고등학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학 측면에서는 운영의 투명성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고등학교 측면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대처와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의 변별력이 생겨야 한다고 보았다.

이수정(2018)은 대입제도개혁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생부 중심의 대입정책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입제도개혁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이다. 바람직한 대입전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성평가의 주관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학의 전문적이고 표준적인 평가체제 마련, 학생부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보완책 마련 및 교과 수업에서의 다양한 활동 유도과 그에 적합한 평가체제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평원(2018)은 최근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수능 중심 정시전형으로 학생들을 선

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양측의 대립은 공정함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아 공정성에 관한 교사의 시각 차이를 묻는 설문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측과 타당도를 중시하는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타당도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 역시 학생 평가는 물론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한솔(2019)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의 의미는 ‘누구나 수공할 수 있는 것’, ‘실력만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며,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렇듯 입학사정관제 초반과 동일하게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인식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안선희 외(2009), 강태중 외(2012), 문윤지 외(2018), 이재연 외(2012), 전병유 외(2020), 이광현 외(2022) 등이 있다.

안선희 외(2009)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입학사정관제전형에 대한 대비 실태와 사교육 시장의 대응을 분석해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입학사정관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는 정부, 대학, 고교, 사교육 기관, 학부모 등 다양한 대상들이 노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태중 외(2012)와 문윤지 외(2018)은 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라할 수 있다. 강태중 외(2012)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대학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 양상을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윤지 외(2018)은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에 입학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분석한 연구이다. P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형방식과 전형요소에서 우려할만한 사교육 유발요인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공정성을 고려한 입시전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두 연구 모두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

용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지만 학생부위주전형과 사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음을 틀림 없어 보인다.

이재연 외(2012)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거주지 분리 현상에 주목해, 서울시 거주지역의 특성이 학생들의 진학대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자치구 간 학생의 진학대학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과 학생의 진학대학 유형에는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때에도 거주 지역 내 고위직 및 전문직 종사 비율과 사교육 시설의 수가 진학대학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 외(2020)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능력시험의 사회적 선택 문제를 사회계층별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맥락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그 결과 학생부 비교과 요소들에서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사회계층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정시냐의 논쟁보다는 사회통합·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광현 외(2022)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인지, 수능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이 고른기회전형을 포함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았지만, 고른기회전형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의 입학기회를 넓혀 온 전형이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이처럼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이들 논의는 지역이나 소득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논의에서 사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있고 그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성천 외(2006), 오정은(2012), 장인구(2012), 김천기(2019), 박종섭(2019) 등이 있다.

김성천 외(2006), 오정은(2012)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먼저, 김성천 외(2006)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신뢰에 관한 교사와 대학입학관계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해 교사들이 대학입학관계자들보다 더 신뢰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만 해

도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을 입시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낮았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 하는 경향, 비교과 영역 기술의 부족함 등이 그 이유임을 FGI를 통해 밝혀내고 비교과영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정은(2012)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실제 입학사정관 평가에 활용함에 있어 실제 학생의 학교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아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강인구(2012)와 김천기(2019)는 다양한 평가준거들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강인구(2012)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평가준거들이 실제평가에서 의미 있는 평가준거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준거는 최종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하위 평가요소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유지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단순히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천기(2019)는 한국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공정성이 확보된 전형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중시하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환경, 다양한 교육의 의미가 입학전형의 맥락에서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은 학생의 배경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잠재력:내신 성적>, <환경: 의지, 열정>,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획일적인 학교교육>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조를 벗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격차에서 오는 유불리함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형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종섭(2019)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면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한 연구이다. 대학별 공정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8개 교육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객관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 각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성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관련 인식 관련 선행연구들도 형식의 공정성과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면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설문을 통

해 결과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 방법들로 보았을 때 기존의 공정성 매뉴얼의 내용을 점검하고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대입제도 공정성 진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 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1)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학생부위주전형으로의 변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기존 대입제도의 큰 변화를 일으킨 학생부위주 입시제도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문제를 ‘단편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현실과 유리된 교육, 입시지옥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창의성,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도덕교육의 결핍’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한 신교육체제의 목표로 초중등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계를 갖추어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하며’, 대학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되,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한 전형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과외가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설정하였다. 대학입학제도의 개선 원칙으로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하여 이를 19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 학생선발의 필수 전형자료로 사용하며, 선택 전형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를 제시하였고, 전형자료의 다양한 활용도 허용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대학입시 자율화와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는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감소, 수능준비를 위한 학원의존도 심화 및 사교육비 증가, 대학의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 노력의 미흡, 특목고의 입시학원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존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취지 및 성과를 발전 정착시키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개선,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강화’의 3대 과제를 기조로 하는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입제도는 2008년 이후의 대입에 적용되며 그 핵심내용은 대학 및 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입학전형 전문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 후 약 3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2007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전형자료로는 ‘자기소개서, 업적 및 경력 자료, 추천서 등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된 이듬해인 2008년 8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을 지양함으로써 수험생의 특기·적성·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권장”한다고 발표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신입생 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전형요소의 선택과 평가를 입학사정관들을 통해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생 선발권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다(양성관 외, 2008). 이로 인해 입학사정관제 시행대학은 2007년 10개 대학이 정부지원 시범운영 대학으로 참여하였으나, 2008년 41개 대학(정부지원 40, 독자실시 1), 2009년 90개 대학(정부지원 47, 독자실시 43)으로 급속히 확대·정착되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2007년~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 및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공정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준비 및 인식 부족, 대입전형의 난립 및 과도한 지원 기회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를 해소하고자 박근혜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3년 9월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 기존 입학사정관전형은 ‘교과’와 ‘종합’으로 전형체계를 구분하는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전형요소도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중심,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를 비롯한 비교과, 면접,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수시 4개 전형과 정시 2개 전형 이내로 전형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대폭적인 대입정책의 수정으로 인해 대학별 전형 유형과 전형자료가 간소화되어 일선 교사와 지원 학생의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제도적 안정을 찾게 되었고, 수시 응시 6회 제한으로 지원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좋은 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마련한 「2017년 대통령선거 핵심 아젠다 : 대선핵심 아젠다」 중 ‘대학입시 개혁’을 대부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정책으로 활용되었다(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9;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2017).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첫째,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을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둘째,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자 출신고교의 블라인드 평가 및 공통 고교정보 제공 폐지’와 ‘세부평가기준 사전공개 의무화’ 및 ‘공공입학사정관 평가 참여’, 셋째, 전형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2월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하여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2).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만이 유일한 평가자료로 남아 이의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조금씩 혹은 크게 손질을 하여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 대입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이곤 하였다. 입학사정관제도 또한 도입 취지인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살펴보고 신뢰 회복방안에 대해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 2) 학생선발 논란의 제도적 해소 방안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초기에 학자들은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공정한 전형을 위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입학사정관의 영향력을 적절히 제한하고, 대입전형의 결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다(양선관 외, 2008).

이 제언처럼 대학은 선발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 준거를 사전

에 공개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학생들이 외부 사교육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교육과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시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학사정관 제도의 정착과 신뢰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난이 붙여졌고 절차가 불분명하므로 공정하지 않고, 이로 인한 결과도 타당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시전형이므로 이를 평가근거로 이용하는 정시전형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일반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비난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안선희, 2018; 김현수, 2020; 강기홍, 2020).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단편적 면을 부각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한 자료에 근거한 측면이 많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 준거와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홍보 및 실습 프로그램 등 대학의 학생선발 전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친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적 인정제도를 살펴보고, 입시제도도 그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표(공정성 리스트)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지원하였다. 이 지원사업의 중간시점에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학 교수 및 대표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각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중간점검 보고서와 지원사업 선정 평가 지표를 토대로 입학사정관 전형(현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2009~2013년)

2009년 첫 번째 현장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하면 공정성에 관련한 평가지표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구분하였고, 이를 크게 세 가지 주요 점검내용을 준비하도록 명시하였다. 첫째 점검내용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 적용 실적”으로 ‘각 규정의 적용 사례’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각종 규정 적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점검내용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으로, ‘위원회별 목적, 주요 협의사항 및 명단과 함께 위원회 운영 실적’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점검내용은 “전형단계별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사항”으로 ‘다수-다단계 평가 체제 구축 현황, 지원서류의 신뢰성 제고 노력, 면접/토론 과정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기술토록 하였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사항’을 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 <표 II-1>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지표 및 점검내용 (2009년)

---

#### 2.1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 적용 실적

- 각 규정의 적용 사례

<표 15>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각종 규정 적용 현황

##### 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 위원회별 목적, 주요 협의 사항, 명단 등
- 2010학년도 전형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실적(개최일, 안건, 협의/심의결과 등)

<표 16>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다. 2010학년도 전형단계별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사항

- 다수-다단계 평가 체제 구축 현황
- 지원서류의 신뢰성 제고 노력
- 면접/토론 과정의 신뢰성 제고 노력

<표 17>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사항

---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지표의 세 가지 점검내용은 2011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점검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 일례로 2011년 현

장점점 보고서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현황”에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 현황’, ‘유사도검색시스템(서류검색시스템) 운영 현황’, ‘회피-제척 제도(시스템) 운영 현황’, ‘고교 정보시스템(고교 DB시스템)운영 현황’ 등 4가지 점검내용이 추가되었다.

2012~2013년에는 “입학사정관계 운영 관련 제반 규정 현황” 및 “관련 위원회 현황”이 「입학사정관계 운영의 효율성」 지표로 이동하는 대신 2011년에 삽입된 네가지 평가지표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의 주요 점검내용이 되었다. “공정성·신뢰성 확보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 ‘회피·제척 시스템’, ‘서류검증시스템’에 ‘이의신청절차’가 추가되었다. 또한 대교협 공정성 확보 시스템인 ‘회피·제척 시스템’, ‘유사도검색시스템’, ‘고교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을 위한 노력”은 별도로 ‘유사도 검증 기준’, ‘처리 절차’, ‘전형 종료후 모니터링’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I -2>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을 위한 노력(2012년)

구분	현황	사례
유사도 검증 기준		
처리 절차		
전형 종료후 모니터링		
기타		X

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014~2017년)

2014년 현장점검 보고서 양식의 특징은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현황”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다양한 대학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양식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통양식으로 만들었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점검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12년 현장점검 보고서에서 「입학사정관계 운영의 효율성」의 하위지표로 이동하였던 “전형 운영 관련 제반 규정 현황” 및 “관련

위원회 현황” 이 다시 도입되었으며, 이 지표들은 공통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도검색 운영 현황”은 ‘유사도 검증 기준’, ‘처리 절차’, ‘처리 결과’, ‘사후검증’ 등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표Ⅱ-3>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현황(2014년)

구분	계획			활용 현황			비고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있음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있음		
		공통양식 활용	공통양식 미활용		공통양식 활용	공통양식 미활용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2015년 현장점검 보고서 양식의 특징은 “공정성 확보시스템 운영 현황”이 독립된 지표에서 「전형 운영 여건 제고」 지표의 하위 점검내용이 되었으며,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전형 운영 관련 제반 규정 및 위원회 현황”은 별도의 평가지표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공정성 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점검내용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여 ‘회피제척시스템’, ‘유사도검색시스템’, ‘고교정보시스템’을 대교협 시스템 또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유사도검색 운영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016년 현장점검 보고서 양식에서는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노력”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및 운영의 공정성」 항목의 하위 점검내용이 되었고, “대입전형 간소화 현황”과 “대입전형 안내 노력”이 추가되었다.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노력”은 기존 점검내용 중에서 ‘고교정보시스템’이 삭제되는 등 기술내용도 간소화되었다.

2017년 현장점검 보고서 양식은 더욱 간소화되어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실적」은 “회피·제척 제도 운영 실적”, “유사도 검증 실적” 및 “관련 위원회 실적”만 남게 되었다.

<표 II -4>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항목의 변화 (2014~2017년)

항목	연도			
	2014	2015	2016	2017
대교협 공정성 확보시스템 활용 현황 - 회피·제척, 유사도검색, 고교정보 시스템	○	○		
회피·제척 제도 운영 현황			○	○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 현황	○	○	○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현황	○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	○	
대입전형 운영 관련 제반 규정 현황(공통/학생부종합)	○	○	○	
대입전형 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공통/학생부종합)	○	○	○	○

### 3)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년 연속사업’ (2018~2022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은 2017년 지원사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지표는 기존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와 달리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입시부정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2018년과 2019년의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표에서는 2017년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에서 요구하였던 “회피·제척 제도 운영 현황” 및 “유사도 검증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 노력” 등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전년도와 달리 추가된 평가항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지표였던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 현황”이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다시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지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평가지표는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 및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이다.

<표 II -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평가지표 (2018~2019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li> <li>- 유사도 검증 규정·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li> <li>-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li> <li>-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등</li> </ul> </li> <li>■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4)</li> <li>■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li> <li>■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2)</li> </ul>

두 번째 2년 연속 지원사업이 시작된 2020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지표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지표가 평가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배점 또한 높아졌다.

우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지표는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및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로 네 항목으로 평가 내용을 분류하였다.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에서는 2012~2013년 2년간 점검내용이었던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가 다시 부활하였고,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와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 점검’이 새로 추가되었다.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평가 내용에는 ‘평가 전 과정 다수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기준·절차 등)’이 2011년 이후 다시 삽입되었다. 특이한 점은 2019년 「대입전형 운영 여건」의 평가지표였던 “입학사정관 확보 실적” 및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와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의 평가지표였던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 여부”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평가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표Ⅱ-6> 2020년 유형 I.Ⅱ 선정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 내용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45 /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 운영</li> <li>-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절차(소명 포함)</li> <li>-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li> <li>-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li> <li>-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li> <li>-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 점검</li> </ul> </li> <li>■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전형 과정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li> <li>- 유사도 검증 및 기재 금지사항 처리 규정·절차</li> <li>- 평가 전 과정 다수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기준·절차 등)</li> <li>- 기타 대학의 독자적인 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노력</li> </ul> </li> <li>■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사정관 확보 계획 및 신분안정화 계획</li> <li>- 입학사정관 평가참여 계획(사정관 1인당 서류평가 건수, 지원자 당 평가시간, 평가 시 전임사정관 참여 비율 등)</li> <li>-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활동(교육·훈련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등)</li> </ul> </li> <li>■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3차 위반(차년도 사업 배제)</li> </ul> </li> </ul>

2021년 지원사업 중간평가 지표의 특징은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 영역에 2017년까지 “입학사정관 확보 실적”의 평가 내용이었던 ‘전임사정관 퇴직 현황’이 ‘퇴직입학사정관 관리(취업제한 규정 및 제재 조치 등) (계획 평가)’로 4년 만에 부활하였고,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영역에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계획 평가)’이 삽입되고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중 대학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2020~2021년의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2019년 발표된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9).

3차 2년 연속 지원사업의 평가 주안점은 ‘내실화와 고도화 계획’에 두었다. 지난 2020~2021년의 평가영역 명칭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으로 변경하고 세부영역도 3가지로 축소하였다. 첫 번째 세부영역 “대입전형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기반 구축 여부”는 전년도의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내·외부감시체계 완비, 평가 객관성·신뢰도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및 관리·운영 방안 마련 여부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기본역량’으로 분리하여 감점을 배정한 것은 전과 다른 평가지침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 “평가영역 내실화 계획”은 전년도의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영역을 정리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영역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영역이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의 하위 평가지표로 이동하였지만, 평가 배점은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Ⅱ-7> 2022 유형 I 평가 주안점 및 평가지표(안)

평가영역	세부영역 및 지표	배점	비고
①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35 /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전형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기반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감시체계 완비, 평가 객관성·신뢰도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 여부 등(-12~0)</li> <li>- 연령, 졸업연도, 학력취득 방식 등 지원자격 완화(-2~0)</li> <li>- 퇴직입학사정관 관리 계획(취업제한 심의 등)(-1~0)</li> </ul> </li> </ul>	-15~0	기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운영 내실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 1인당 평가 건수, 지원자 1인당 평가시간 보장, 평가 시 전임사정관 참여 확대 등(10)</li> <li>-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활용 등 평가 신뢰도 제고 노력(5)</li> </ul> </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선발 학생 지원(12)</li> <li>-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선발규모·방식의 적정성(8)</li> </ul> </li> </ul>	20	

#### 4) 지원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공정성·신뢰성 제도 개선

14년간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과 선정평가 영역에 나타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의 지표는 매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지표는 전형 운영 관련 지표와 전형 평가 관련 지표라 할 수 있다. 전형 운영 관련 지표는 ‘전형 운영 및 위원회 운영 규정’과 ‘회피·제척 제도 운영 현황’ 등이며, 전형 평가 관련 지표는 ‘서류검증 시스템 및 유사도검색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다수-다단계 평가체계 구축 및 서류평가·면접 과정의 신뢰성 확보’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지원사업 참여대학들의 꾸

준한 노력으로 전형 운영 및 평가 관련 제도는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부정사건 여파로 인해 평가 주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의 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부위주전형은 각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특성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선발의 자주적인 결정권이 대학에 부여되어 있다.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형운영의 정비와 전형자료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의 공정성’은 전형 특성상 입시전형방법과 전형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평가지표들은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 적합하게 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의 타당성’은 학생선발 목표 도달의 차원에서 강조되는 준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박혜경, 2017). 전형별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다. 대입제도 공정성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

1)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13)

건국대학교에서는 2013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매뉴얼’ 연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마련했다. 크게 ‘조직체계,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선발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관리, 전문성 확보’ 총 다섯 영역으로 구성했다. 5개 영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1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3개의 문항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 마련한 자가진단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II -8>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영역	하위영역	내 용
1. 조직 체계	가. 조직의 독립성	입학사정관제 운영 전담 조직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전담 조직에 관한 규정(조직, 인사, 전형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영역	하위영역	내 용
1. 조직 체계	가. 조직의 독립성	입학사정관의 임면과 예산 운용의 독자성이 확보되어 있다.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나. 업무(사무) 분장의 명확성	입학사정관제 운영 전담 조직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다.
2.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가. 정보제공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영역이나 평가 기준 등을 모집요강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대학의 모집요강을 전국 고교에 배부하고 있다.
		고교방문설명회 또는 입학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 내용이 표준화 되어 있다. 모집안내 또는 모집요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나. 회피제척 시스템	원서접수 후 전형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회피제도가 있다.
		회피신고기간과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지원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자의 전형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척제도가 있다.
		제척제도 운영을 위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평가조직(입학사정관 조직)과 회피·제척제도 운영기관(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다. 다수다단계 평가	다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자별로 독립적 평가를 한다.
		평가팀 편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시간이 적절하다.
2.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다. 다수다단계 평가	평가자별 평가 성향(엄격성/관대성 경향, 중심화 경향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다.
		서류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의미가 있는 편차가 발생 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의미가 있는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면접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영역	하위영역	내 용
2.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라. 평가자료의 신뢰성	표절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절검색 결과에 대한 체계화된 처리절차와 처리기준이 있다.
		표절검색 결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현장실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마. 평가 절차의 신뢰성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면접이 진행된다.
	바. 이의신청처리절차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이의신청처리 규정에는 이의신청 대상, 기간 및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3.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가. 전형요소 (전형자료)	모든 지역, 계층, 고교 유형과 상관없이 전형 방법 및 요소가 공정하게 적용된다.
		평가기준 작성 시 고등학교 교사, 교내·외 전문가 집단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류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면접 시 사용하는 질문(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 고교 DB 구축	고교 관련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4. 선발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 관리	가. 선발기준의 공식화	모든 평가기준은 전형 시행 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서화된다.
		입학처(입학관리본부)의 외부기관으로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나. 공정관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전형의 전 과정에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전형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내부 감사 기관이 전형 후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영역	하위영역	내 용
5. 전문성 확보	가. 윤리의식 강화	입학사정관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행동강령·수칙을 제정하였다.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나. 교육·훈련	전형 전에 평가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수가 설정되어 있다.
		평가자의 경력 및 업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 전형 및 해당 전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평가기준 및 인재상 등을 공유하고 있다.
		모의평가 등의 교육을 통해 평가자의 특성(엄격성 지수, 관대화 오류, 중심화경향)을 파악하며, 이를 개선하고 있다.
교육·훈련결과를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한다.		

## 2) 대학별 공정성 체크리스트(2019)

이후 박종섭(2019)은 ‘대입 정성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제작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대학 8개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한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는 크게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선발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관리, 전문성 확보’ 총 네 영역이 활용되었다. 4개 영역 아래 12개 하위 영역, 총 47개 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기존 건국대학교 자가진단 리스트에서 ‘조직체계’ 영역의 문항과 ‘2.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 다. 다수다단계평가’ 영역에서 서류평가 재심과 관련된 문항이 삭제되었다. 실제 활용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II -9> 대학별 공정성 체크리스트

영역	하위영역	내 용
1.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가. 정보제공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영역이나 평가 기준 등을 모집요강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대학의 모집요강을 전국 고교에 배부하고 있다.

영역	하위영역	내 용
1.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가. 정보제공	고교방문설명회 또는 입학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 내용이 표준화 되어 있다.
		모집안내 또는 모집요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나. 회피제척 시스템	원서접수 후 전형참여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회피제도가 있다.
		회피신고기간과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지원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자의 전형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척제도가 있다.
		제척제도 운영을 위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다. 다수다단계 평가	평가조직(입학사정관 조직)과 회피-제척제도 운영기관(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다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자별로 독립적 평가를 한다.
		평가팀 구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시간이 적절하다.
		평가자별 평가 성향(엄격성/관대성 경향, 중심화 경향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다.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의미가 있는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면접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1.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라. 평가자료의 신뢰성	표절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절검색 결과에 대한 체계화된 처리절차와 처리기준이 있다.
		표절검색 결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현장실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마. 평가 절차의 신뢰성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면접이 진행된다.
	바. 이의신청처리절차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이의신청처리 규정에는 이의신청 대상, 기간 및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영역	하위영역	내 용
2.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가. 전형요소	모든 지역, 계층, 고교 유형과 상관없이 전형 방법 및 요소가 공정하게 적용된다.
		평가기준 작성 시 고등학교 교사, 교내외 전문가 집단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류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면접 시 사용하는 질문(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 고교 DB 구축	고교 관련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3. 선발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 관리	가. 선발기준의 공식화	모든 평가기준은 전형 시행 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서화된다. 입학부서의 외부기관으로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나. 공정관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전형의 전 과정에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전형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내부 감사 기관이 전형 후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4. 전문성 확보	가. 윤리의식 강화	입학사정관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행동강령·수칙을 제정하였다.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나. 교육·훈련	전형 전에 평가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수가 설정되어 있다.
		평가자의 경력 및 업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 전형 및 해당 전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평가기준 및 인재상 등을 공유하고 있다.
		모의평가 등의 교육을 통해 평가자의 특성(엄격성 지수, 관대화 오류, 중심화경향)을 파악하며, 이를 개선하고 있다.
교육·훈련결과를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한다.		



라. 국제적 인증기관의 인증제도 및 도입 효과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의 PDCA 모델 소개

인증제도는 제품, 시스템, 기술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자가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를 의미한다(최지연 외, 2018).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산업 전반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표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7년 3월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9001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영시스템인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전형호, 2020).

부패방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요구와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져 2016년에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부패방지 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ISO 37001 -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을 제정하게 되었다(박준영 외, 2019).

그러므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은 조직의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신뢰성, 준법문화 정착 및 부패방지 문화축진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부패 예방, 탐지, 해결에 대한 조직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진단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글로벌 그룹들이 청렴한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전병호, 2020).

우리나라는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의 국내 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않고 국문화하여 2017년 11월 KS 부합화한 ‘KS A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을 제정 · 공표하였다. 이 규정의 마련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관련 법규 이행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조직들의 부패방지 적용을 위해 국내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범규범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창훈, 2019).

국민권익위원회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은 ‘모든 영리기업/기관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뇌물 위험에 대

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의 규범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며, 공공 또는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기업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되었다.’ 고 소개하고 있다(조창훈, 2017).

ISO의 국내 인증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과 인증을 취득한 기관 및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11월 현재 14개의 인증기관으로부터 388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인정지원센터, 2022).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 이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도 「청탁금지법」 시행연도인 2016년에 52위(54점)에서 2021년 32위(62점)로 크게 상승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이러한 성과는 ISO 37001에 대한 필요성 및 인지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의 체계적인 반영을 위해 경영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모형인 PDCA(Plan-Do-Check-Act) 구조를 사용하여 이행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구사항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기업 및 기관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실행과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조창훈, 2017).

‘계획 단계[PLAN]’에는 조직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부패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실행 단계[DO]’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 부패방지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부패방지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부패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분담, 부패 위험성 평가, 내부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조직 내·외부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평가 단계[CHECK]’에는 일상 업무에 대한 부패방지 준수 수준의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수준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최고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보고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개선 단계[ACT]’에는 평가 결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림 PDCA 모델에 따른 ISO 37001(2016)



<그림 II -1> PDCA 모델에 따른 ISO 37001(2016)

##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

2장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표(공정성 리스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및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장점검 및 컨설팅」과 「지원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진행 여부와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년도 선정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런 점검 및 평가시스템은 ISO 37001(2016)의 계획-실행-평가-개선(Plan-Do-Check-Act, PDCA) 4단계 환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 환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양식과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을 작성하였다.

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이하 대입전형 PDCA)는 ISO 37001(2016)의 PDCA 구조를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맞추어 PDCA의 하위구조를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전문성” 및 “점검 및 반영”의 3~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각각 구성하여 환류하도록 하였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은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PLAN]’는 ISO 37001(2016)의 요구사항인 조직상황, 기획 및 리더십을 재구성하였다. “평가 절차”는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와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정하였다. 세부 계획항목으로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에서는 조직도, 업무분장 관련 규정과 대입전형 공정성 관련 학칙,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으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는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과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연구 및 전형 설계’와 ‘대학입학전형 자료 확정’으로 정하였다. 각 세부 계획항목으로, ‘대학입학전형 연구 및 전형 설계’는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으로, ‘대학입학전형 자료 확정’은 전형요소 및 전형 방법 구성으로 정하였다.

“평가자 전문성”은 ‘입학사정관 채용 및 임용 계획’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계획’으로 정하고 각 세부 계획항목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및 임용 계획’은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으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계획’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으로 구성하였다.

‘실행 단계[DO]’는 ISO 37001(2016)의 요구사항인 계획을 실행하는 지원과 운용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평가 절차”는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정하였다. 세부 실행항목으로,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로,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은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회피·배제 제도 운영,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및 이의신청 절차 운영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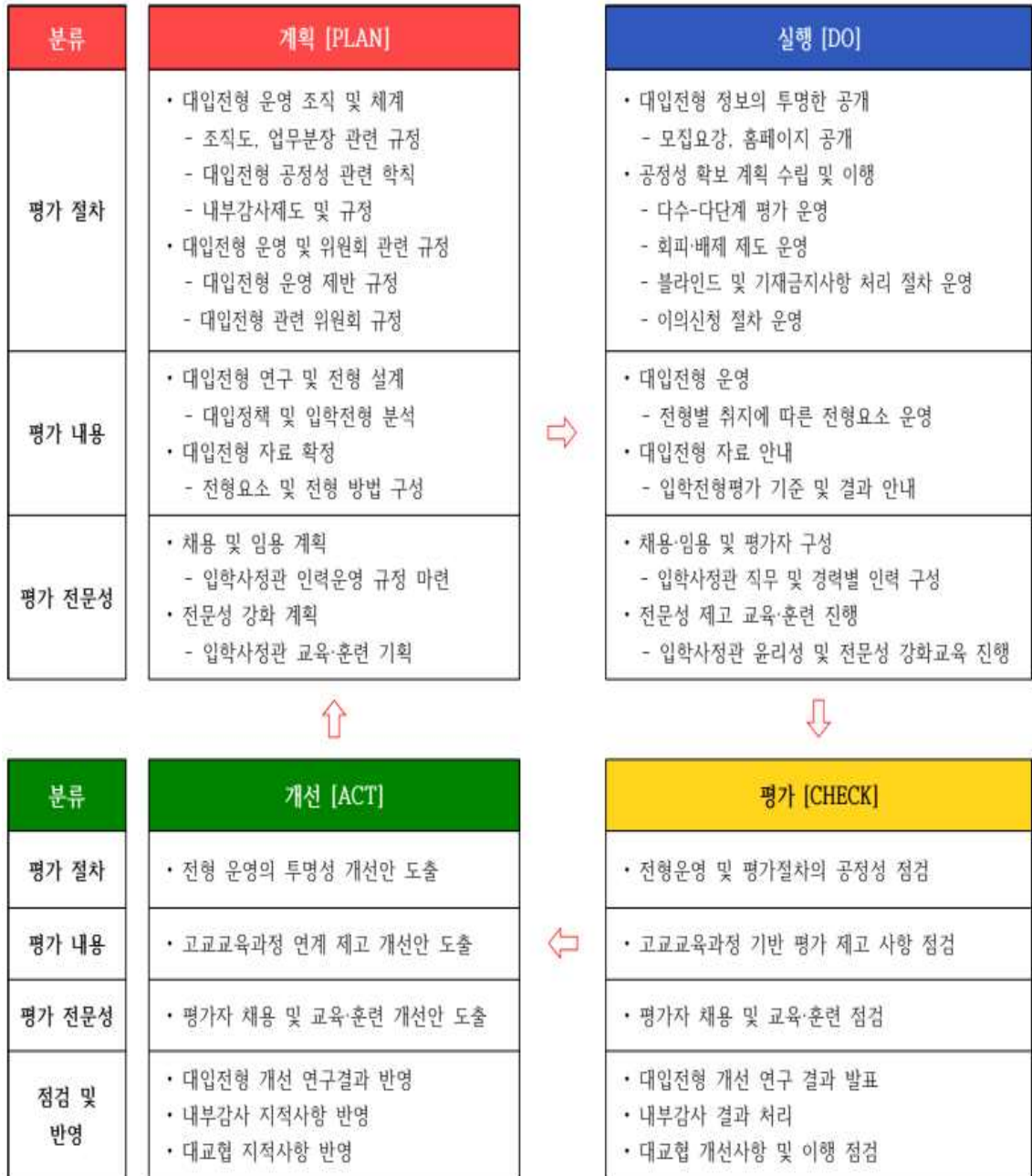
“평가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운영’과 ‘대학입학전형 자료 안내’로 정하였다. 세부 실행항목으로, ‘대학입학전형 운영’은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으로, ‘대학입학전형 자료 안내’는 입학전형 평가기준 및 결과 안내로 구성하였다.

“평가자 전문성”은 ‘입학사정관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으로 정하였다. 세부 실행항목으로, ‘입학사정관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은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으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은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단계[CHECK]’는 실행 단계에서 얻어진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로서, “평가 절차”는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절차의 공정성 점검’으로, “평가 내용”은 ‘고고교육과정 기반 평가 제고 사항 점검’으로, “평가자 전문성”은 ‘평가자 채용 및 교육·훈련 점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점검 및 반영” 항목을 추가하여 ‘대학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 발표’와 ‘내부감사 결과 처리’ 및 ‘대교협 개선사항 및 이행 점검’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개선 단계[ACT]’는 평가단계에서 발견된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개선안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평가 절차”는 ‘대학입학전형 운영의 투명성 개선안 도출’로, “평가 내용”은 ‘고고교육과정 연계 제고 개선안 도출’로, “평가자 전문성”은 ‘평가자 채용 및 교육·훈련 개선안 도출’로, “점검 및 반영”은 ‘대학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 반영’과 ‘내부감사 지적사항 반영’ 및 ‘대교협 개선사항 반영’으로 개선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림 II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

### Ⅲ. 대입의 공정성 인식 및 요구사항 분석

#### 1. 대입의 공정성 인식 분석

##### 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분석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인식’, ‘전형유형 및 종류에 따른 인식’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대입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것은 모든 응답 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설문은 총 60문항, FGI는 총 3개 문항이다.

##### 1)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과 관련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요소들을 대입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의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 중, 각 요소에 대해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집단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전형 자료 및 요소에 대한 응답자 간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표Ⅲ-1> 대학입학전형 자료 및 요소에 대한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실기고사	N	149	160	234	545	12.968***	a>b***
	평균	3.94	3.49	3.72	3.47		a>d***
	표준편차	0.84	0.95	0.80	0.93		c>d*
면접고사	N	149	160	234	545	10.374***	a>b**
	평균	3.99	3.61	3.90	4.03		b<c*
	표준편차	0.87	0.89	0.83	0.85		b<d***
대학수학능력시험	N	149	160	234	545	10.357***	a>b***
	평균	4.40	3.93	3.88	3.96		a>c***
	표준편차	0.75	1.06	0.82	1.02		a>d***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교생활기록부	N	149	160	234	545	8.522***	a<c**
	평균	3.50	3.51	3.91	3.76		a<d*
	표준편차	1.10	1.00	0.83	0.95		b<c** b<d*
논술고사	N	149	160	234	545	6.069***	a>b**
	평균	3.81	3.34	3.46	3.49		a>c*
	표준편차	0.91	1.08	0.93	1.03		a>d**
자기소개서	N	149	160	234	545	4.908**	a>b**
	평균	3.40	3.00	3.19	3.10		a>d*
	표준편차	1.10	1.05	0.95	1.01		

\*  $p < .05$ , \*\*  $p < .01$ , \*\*\*  $p < .001$

설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고사, 논술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고사 모두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응답은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 순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학생 집단이 자기소개서를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입학관계자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면접고사에서는 교사 집단이 면접이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논술고사의 경우 학생이 논술고사를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이 가장 높게 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사, 학부모, 입학관계자는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또한, 실기고사는 학생 집단이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입학관계자였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고사, 학교생활기록부 순으로 공정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입학사정관 및 대교협 관계자들은 크게 ‘국가 기관에서 주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과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FGI 문항은 “설문조사 결과,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 면접고사 > 학교생활기록부’ 순으로 공정



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으며, 5개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입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인식되는 것 같으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자료로 사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편차들이 고교별,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공정성 인식에서 아래 순위를 차지했다고 보는 입학관계자도 있었다.

대학 수능 시험은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중략) 학생부 기재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별 편차나 교사별 편차에 의한 그 작성 기록에 대한 편차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3)

또한, 입학관계자 집단의 경우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평가 과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것 같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과정의 공정성 차원을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가요소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피평가자가 자신의 역량, 노력 여하에 따라 정량화, 수치화된 결과를 얻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는 피평가자를 관찰한 교사(관찰자)에 의해 정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평가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요소(면접, 학생부)는 평가자 중심의 평가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용적 절차적 공정성 차원에서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학관계자6)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고교 교사들은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나머지에 비해 결과의 투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평가자료로 사용되는 생활기록부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공식적인 기관 및 절차, 본인이 직접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중략) 작성자의 능력 유무에 따라 생기부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결과의 투명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동일한 문제 수를 풀어 점수를 정량화된 점수를 획득하는 시스템은 우선 굉장히 친숙한 측면이 있으며 결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교사3)

평가 성격과 출제기관의 어디나의 문제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 대상은 학생이지만 학생에 대한 기록은 교사라고 하는 3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사와 학교의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5)

또한, 교육청 장학사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지역과 본인의 환경에 따라 준비 과정에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시험과정이나 정량적으로 도출되는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은, 응시자 모두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시험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더군다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적인 행사로서 시험 보는 환경을 동일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하는 ‘큰’ 시험입니다. (중략)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수능시험은 정말 ‘공정한’ 시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 결과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정량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유독 확신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경향이 큽니다. (장학사3)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준비 과정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인정해도 학생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며, 정량적 평가만 있었던 부모 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평가가 달라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학교 및 교사도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부모 세대의 경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세대 경험했던 시기와 현재는 갖춰진 조건이 다른 부분은 간과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사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해진 점수와 지표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같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점수로 나타나는 정량평가입니다.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니 공정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수능은 수학적으로는 가장 공정한 수단인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수능 최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학부모1)

또한, 한 학부모는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편차가 존재하는데,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 내신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많은 학부모들의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생기부 작성의 스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학년 담임과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밀집된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는 해당되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생기부는 교과 내신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소서도 사라진 학종에 대한 반발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부모2)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나온 결과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보의 격차와 여건이 보편적이어서’ 등과 같이 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통된 양식에서 치러지는 표준화 된 시험입니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했을 고등학생들이 공통된 양식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된 평가가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3)

학생들의 경우 입시를 경험해본 입장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한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변인의 도움보다는 학생 자신의 역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한 것 같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좋은 시험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였다.

우선 공정한 평가에 대한 저의 의견은 학생들이 가능한 자신의 역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정한 평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상 학교생활기록부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의견을 담은 기록이라기보다는 대학 입학의 목적으로 적절하게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략)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학생 자신의 역량인지 그것이 작성자의 역량인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1)

## 2)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요소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에 대한 문항을 두어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세부 주제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고사, 논술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고사’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FGI 문항은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실기고사 > 논술고사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면접고사’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으며, 5개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문항은 총 8개로 제시된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2> 학교생활기록부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교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25.520***	a<c***
	평균	3.08	3.18	3.58	3.68		a<d***
	표준 편차	0.98	0.93	0.74	0.93		b<c*** b<d***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20.667***	a>c***
	평균	3.78	3.50	2.93	3.26		a>d*** b>c***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표준 편차	1.04	1.06	1.00	1.14		c<d**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신뢰할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20.083***	a<d***
	평균	3.62	3.54	3.71	4.01		b<d***
	표준편차	0.87	0.80	0.78	0.81		c<d***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13.531***	a>b**
	평균	3.70	3.31	3.85	3.82		b<c***
	표준편차	1.00	1.08	0.82	0.95		b<d***
성취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된다.	N	149	160	234	545	11.252***	a>b*
	평균	3.76	3.43	3.91	3.87		b<c***
	표준편차	1.00	0.97	0.78	0.90		b<d***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8.364***	a>c***
	평균	4.55	4.41	4.18	4.37		b>c*
	표준편차	0.59	0.75	0.72	0.75		c<d*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4.972**	b<c**
	평균	4.16	3.88	4.19	4.17		b<d**
	표준편차	0.84	0.93	0.72	0.93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4.528**	a>c*
	평균	4.52	4.48	4.29	4.42		
	표준편차	0.65	0.67	0.66	0.68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학교생활기록부를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가 가장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에서도 입학관계자가 가장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성취 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된다’ 에 대해서도 입학관계자가 가장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는 문항에서는 네 집단 모두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특히 학부모가 가장 높게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학생,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에 대한 응답은 교사가 가장 높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신뢰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그렇다고

답하였고, 입학관계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해 학생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에 대해서도 학생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문항은 총 4개로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3>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N	149	160	234	545	48.996***	a>c***
	평균	3.89	3.71	2.70	2.88		a>d***
	표준편차	1.02	1.13	1.17	1.30		b>c*** b>d***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20.001***	a>c***
	평균	4.32	4.26	3.66	4.05		a>d*
	표준편차	0.82	0.87	1.06	0.94		b>c*** c<d***
외부(학교 밖)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N	149	160	234	545	7.822***	a<c*
	평균	3.15	3.03	3.55	3.36		b<c***
	표준편차	1.28	1.13	0.98	1.20		b<d*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5.240**	a>b*
	평균	3.90	3.59	3.87	3.90		b<c*
	표준편차	0.88	0.95	0.83	0.94		b<d**

\*  $p < .05$ , \*\*  $p < .01$ , \*\*\*  $p < .001$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에 대한 응답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외부(학교 밖)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는 문항에서는 입학관계자가 가장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응답 결과를 분석했을 때 특징적인 점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는 문항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그렇다라고 응답했지만, 교사와 입학관계자는 그렇다라는 인식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 다) 면접고사

면접고사와 관련된 문항은 총 5개로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4> 면접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N	149	160	234	545	48.523***	a>c*** a>d*** b>c*** b>d***
	평균	3.66	3.51	2.56	2.74		
	표준편차	1.11	1.06	1.08	1.18		
입기응변 등 언변이 중요하다.	N	149	160	234	545	43.255***	a>b*** a>c*** a>d*** b>c*** b>d** c>d*
	평균	4.41	3.91	3.38	3.60		
	표준편차	0.60	0.86	0.97	1.00		
학생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22.670***	a>b*** b<c*** b<d***
	평균	3.93	3.51	3.99	4.11		
	표준편차	0.92	0.85	0.83	0.77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10.105***	b<c** b<d***
	평균	3.60	3.36	3.73	3.77		
	표준편차	0.86	0.91	0.80	0.87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	N	149	160	234	545	5.704**	a>b* b<d**
	평균	4.15	3.84	4.03	4.13		
	표준편차	0.78	0.89	0.86	0.82		

\*  $p < .05$ , \*\*  $p < .01$ , \*\*\*  $p < .001$

‘입기응변 등 언변이 중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의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에 대한 응답은 교사가 가장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입학관

계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입학관계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 라) 논술고사

논술고사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라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5> 논술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12.874***	a>b*** a>c* a>d*
	평균	3.95	3.33	3.64	3.71		b<c** b<d***
	표준편차	0.90	0.93	0.85	0.91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N	149	160	234	545	10.471***	a>b*** b<c** b<d***
	평균	4.03	3.52	3.91	3.97		
	표준편차	0.83	1.07	0.86	0.99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크다.	N	149	160	234	545	7.126***	a<b* b>c** c<d**
	평균	3.64	3.96	3.55	3.81		
	표준편차	1.05	0.80	1.04	0.97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6.935***	a>b*** a>d**
	평균	3.90	3.43	3.65	3.58		
	표준편차	0.85	0.97	0.92	0.98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N	149	160	234	545	6.327***	a>c*



항목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평균	4.25	4.22	3.93	3.96		a>d* b>c* b>d*
	표준편차	0.88	0.87	0.92	1.03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N	149	160	234	545	5.525**	a>b* b<c*
	평균	2.76	2.29	2.70	2.46		
	표준편차	1.23	1.25	1.13	1.30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N	149	160	234	545	1.684	
	평균	4.17	4.01	4.06	4.14		
	표준편차	0.80	0.84	0.76	0.84		

\*  $p < .05$ , \*\*  $p < .01$ , \*\*\*  $p < .001$

논술고사가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에 대해서도 학생,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크다’ 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교사, 학생,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가장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교사, 입학관계자, 학생 순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와의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라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N	149	160	234	545	29.334***	a>d*** b>c* b>d*** c>d***
	평균	3.85	4.03	3.69	3.22		
	표준편차	1.14	0.97	1.08	1.19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N	149	160	234	545	13.567***	a>b*** a>c** b<d*** c<d**
	평균	4.38	3.96	4.09	4.32		
	표준편차	0.72	0.79	0.77	0.76		
선택하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	N	149	160	234	545	13.425***	a<b*** a<c*** a<d***
	평균	3.76	4.14	4.19	4.19		
	표준편차	0.97	0.69	0.63	0.77		
교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N	149	160	234	545	12.959***	a<d** b<d*** c<d***
	평균	3.74	3.68	3.75	4.08		
	표준편차	1.04	0.93	0.96	0.92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N	149	160	234	545	10.993***	a>b** b<d*** c<d**
	평균	4.39	4.08	4.20	4.41		
	표준편차	0.88	0.77	0.77	0.70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9.027***	a>b** a>c* b<d** c<d*
	평균	4.46	4.11	4.20	4.37		
	표준편차	0.67	0.87	0.72	0.74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N	149	160	234	545	8.878***	a>b** a>c*** a>d*
	평균	4.23	3.83	3.82	4.00		
	표준편차	0.82	0.93	0.77	0.84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	N	149	160	234	545	7.036***	a>b** b<c** b<d**
	평균	3.60	3.14	3.56	3.45		
	표준편차	1.11	1.03	0.83	1.01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N	149	160	234	545	6.560***	a>b** a>d**
	평균	4.10	3.63	3.89	3.74		
	표준편차	0.96	1.07	1.00	1.09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N	149	160	234	545	6.434***	a>b** b<c**
	평균	2.48	1.94	2.40	2.14		
	표준편차	1.30	1.16	1.27	1.39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N	149	160	234	545	0.148	
	평균	4.48	4.51	4.47	4.46		
	표준편차	0.69	0.66	0.62	0.76		

\*  $p < .05$ , \*\*  $p < .01$ , \*\*\*  $p < .001$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에 대해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사,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선택하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입학관계자와 교사는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학생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생만 유의미하게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학생과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라는 문항에서는 교사가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입학관계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그렇다를 많이 선택한 집단 없이 네 집단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이다.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채점기준이 명확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그렇다라고 답했고, 학생,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에 대한 응답은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생,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입학관계자들은 ‘대비가 어려운 것과 공정한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평가의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능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렵다는 것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 4)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의 기준을 알고 있어서,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는 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입학관계자1)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교에서 보편적인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전형 자료나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공교육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의 대비에 대한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나 모든 고교에서 보편적인 수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외 전형요소는 전문적인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교육에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원자의 의지에 따라 응시가 가능하고, 사교육은 선택적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실기고사와 논술고사는 사교육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입학관계자6)

또한, 고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사교육은 이미 공교육과 비슷한 흐름을 띄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시험을 보는 대상자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납득 가능하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수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와 달리 대다수의 학교 수업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영향력과는 별개로, 수능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에는 ‘내가 치른 전형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학부모들의 고정관념이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4)

실기고사와 논술은 모집인원이 적기에 극소수이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해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해석은 학교 교육에서 대비가 어려운 것과 공정성은 다른 측면으로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기준이 시험을 보는 대상자들이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 없냐가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교사5)

한편,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다는 부분과 공정성의 문제는 별개로 인식할 것이며 사실상 학교에서 챙겨야 할 것이 많아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챙기기는 어려워졌다는 교사의 의견도 있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 상 수시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교내 수업에서는 프로젝트형 수업 등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형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사1)

다음으로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청 장학사들은 ‘기성세대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력고사로 시험을 보는 것에 익숙하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와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학교에서 수능을 완벽히 대비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설문 참여자인 부모 세대의 경험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학사1)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보통 일반고 내에서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혼자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오류, 공교육은 최우수 학생들에게만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교육이 훨씬 잘 가르친다는 착각 등이 어우러져, 여전히 수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3)

또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해도 학교마다 대비하는 편차가 크다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는 정도와 공정의 정도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정도’와 ‘공정의 정도’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대비하는 온도차가 크다면 이 또한 아무리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학사2)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수능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전형입니다. (중략) 수능이 가장 공정한 전형이다라는 의견과 달리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전형 상위 항목에 포함됩니다. 많은 학교들의 내신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유형이 수능 문제 유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신만 준비한 학생들이 수시 최저합을 맞추기 힘든 사유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2)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같은 시험 범위로 같은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시험 범위로 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어쨌든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시험문제를 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평가받는 것이므로,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것 같다. (학생2)

그리고, 제시된 항목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공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었고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들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현재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위의 모든 항목은 대비가 어려운 방식입니다. (중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과 그다지 밀접한 형태의 시험이 아니며, 이는 내신 이라 불리는 학교 내부의 시험과도 전혀 다른 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역시 교사가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각종 대회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학생이 개인적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이지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고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1)

#### 바) 실기고사

실기고사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와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7> 실기고사의 문항별 응답자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N	149	160	234	545	17.094***	a>b*
	평균	3.77	3.47	4.03	3.99		b<c**
	표준편차	0.84	1.02	0.77	0.89		b<d**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N	149	160	234	545	9.835***	a>b*
	평균	2.88	2.53	2.68	2.42		a>d***
	표준편차	1.03	0.94	0.96	1.03		c>d*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N	149	160	234	545	5.498**	a>b**
	평균	4.15	3.80	3.99	3.96		
	표준편차	0.79	0.90	0.71	0.75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N	149	160	234	545	4.933**	b<c** c>d*
	평균	3.16	2.97	3.31	3.08		
	표준편차	0.95	0.89	0.94	0.95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N	149	160	234	545	4.222**	a>b* b<c*
	평균	4.23	3.95	4.21	4.12		
	표준편차	0.82	0.84	0.76	0.81		
교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N	149	160	234	545	2.245	
	평균	3.89	3.70	3.90	3.78		
	표준편차	0.89	0.92	0.87	0.89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N	149	160	234	545	1.168	
	평균	4.19	4.34	4.35	4.32		
	표준편차	0.87	0.87	0.87	0.93		

\*  $p < .05$ , \*\*  $p < .01$ , \*\*\*  $p < .001$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에 대해 학생,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 학생, 교사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에 대해 교사, 학부모, 입학관계자, 학생 순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가 가장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3) 전형유형 및 종류에 따른 인식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를 설문에서 제시하고, 각 전형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FGI 문항은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였고, 5개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전형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입학관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 외의 집단에게 기초 배경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지에 <표Ⅲ-8>과 같이 제시하였다. 해당 표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전형별 정의를 내리고 건국대학교 전형 예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를 제시함으로써 설문 응답자들이 각 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답하기 전에 대학입학전형의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표Ⅲ-8>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

전형유형		정의	건국대학교 전형 예시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KU지역균형전형 학생부 교과 70% + 서류평가 30%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	KU자기추천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논술위주전형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위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일반학생전형 수능 100%
실기/실적위주전형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연기우수자전형 1단계: 학생부 교과 100%(25배수) 2단계: 실기 100%

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제시한 전형은 총 14개였으며, 논술위주전형(논술 100%)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에서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Ⅲ-9> 각 전형별 응답자 간 공정성 인식 차이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면접평가)	N	149	160	234	545	22.876***	a<d**
	평균	3.66	3.42	3.66	3.94		b<c*
	표준편차	0.84	0.79	0.79	0.73		b<d*** c<d***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100%)	N	149	160	234	545	16.650***	a<c*** a<d** b<c*** b<d** c>d*
	평균	2.89	2.95	3.50	3.26		
	표준편차	1.09	1.03	0.82	0.98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면접평가)	N	149	160	234	545	12.488***	b<c*** b<d***
	평균	3.60	3.31	3.86	3.75		
	표준편차	0.99	1.00	0.83	0.97		
실기/실적위주전형	N	149	160	234	545	11.387***	a>b*** a>d*** b<c* c>d*
	평균	3.66	3.21	3.46	3.26		
	표준편차	0.85	0.86	0.86	0.87		
수능위주전형 (수능 100%)	N	149	160	234	545	10.969***	a>b** a>c*** a>d***
	평균	4.30	3.86	3.76	3.80		
	표준편차	0.83	0.96	0.90	1.09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 최저학력기준)	N	149	160	234	545	10.224***	a>b** b<c** b<d***
	평균	3.97	3.55	3.91	4.00		
	표준편차	0.94	0.90	0.91	0.91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100%)	N	149	160	234	545	9.533***	a<d*** b<d**
	평균	3.21	3.25	3.42	3.61		
	표준편차	1.11	1.01	0.97	0.98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서류평가)	N	149	160	234	545	9.005***	a<d** b<d***
	평균	3.48	3.43	3.65	3.76		
	표준편차	0.92	0.87	0.75	0.82		
논술위주전형 (논술+수능최저학력기준)	N	149	160	234	545	8.227***	a>b*** a>c** a>d**
	평균	3.92	3.41	3.56	3.57		
	표준편차	0.80	0.94	0.92	0.97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수능최저학력기준)	N	149	160	234	545	7.437***	b<d***
	평균	3.91	3.79	3.95	4.10		
	표준편차	0.92	0.80	0.70	0.81		
수능위주전형 (수능+교과 정량평가)	N	149	160	234	545	7.076***	b<d** c<d**
	평균	3.80	3.54	3.58	3.83		
	표준편차	0.90	0.89	0.86	0.92		
수능위주전형 (수능+교과 정성평가)	N	149	160	234	545	5.426**	a>b** a>c* b<d*
	평균	3.81	3.44	3.55	3.67		
	표준편차	0.88	0.82	0.91	0.92		
논술위주전형 (논술+교과)	N	149	160	234	545	2.852*	
	평균	3.48	3.22	3.32	3.40		
	표준편차	0.84	0.84	0.85	0.92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논술위주전형 (논술 100%)	N	149	160	234	545	1.652	
	평균	3.30	3.04	3.17	3.16		
	표준편차	1.04	0.97	0.92	1.07		

\*  $p < .05$ , \*\*  $p < .01$ , \*\*\*  $p < .001$

그 결과 네 집단 모두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학력기준)’ 과 ‘수능위주전형(수능 100%)’ 이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만 다소 다를 뿐 두 전형 안에서 1, 2위의 순위를 보였다. 수험생의 입장인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위주전형(수능 100%)’ 이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류평가를 하는 입학관계자와 수험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학력기준)’ 이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관계자들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학교생활부를 포함하지 않은 응답은 없지만 각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준거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도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선택하긴 했지만, 무엇을 공정성의 정의로 보느냐에 따라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 어떤 것 하나를 꼭 집어서 확대하기보다는,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잘 선택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입학관계자5)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 확보는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준거를 바탕으로 그 준거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한다. (입학관계자3)

또한, 어떤 하나의 전형자료와 전형요소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전체 대입전형의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어떤 하나의 전형자료와 전형요소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전체 대입전형 판의 공정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각각 나름의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요소들이며, 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형자료의 신뢰도를 자체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2)

다음으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고교 교사들은 면접고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외 다른 항목들도 적절히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입학관계자와 일치했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역량의 특정 한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2~3개의 역량을 함께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역량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 함양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인재를 교육과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략)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모두 평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2)

또한,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면접고사를 확대하기 힘들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래 핵심 역량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면접고사만이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략) AI 면접과 같은 유형의 면접고사를 도입함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면접고사를 확대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상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4)

교육청 장학사들도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교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면접고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 면접을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학생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고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기반 면접에서 학생의 기록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효과 있음은 자명합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유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학사1)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면접고사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면접을 해도 결국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결국 면접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학생부 내용에 대한 검증은 면접고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학생들이 부담은 되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학업에 노력했으며, 또한 탐구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꼭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3)

또한, 한 장학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며, 어떤 것을 보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저는 “학교생활기록부+면접고사+수능최저”(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성취수준 도달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능이라면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략)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을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수항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사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하여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기록부가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학생으로서 가장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학생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생은 학교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맞고,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활동 및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략) 입학 사정관 분들은 생기부를 보면 파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짜 생기부인지 아닌지... 전 대학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본교에 맞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준만 명확하다면 학생부로도 충분히 공정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1)

또한, 학생이 본인의 잠재력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다.

생기부는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구술되고 표현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잠재력과 지원한 학생을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자소서 또한 사교육의 힘을 빌려 좀 더 독특하고 뛰어나게 표현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발생하겠지만 자소서의 기재항목과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모2)

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모두 면

접고사를 포함하였다.

면접고사는 입학사정관과 교수님과 직접 만나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생각과 논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교육의 힘을 빌리더라도 면접이 치루어지는 그 안에서만큼은 오로지 학생의 역량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역량을 더 자세하고 공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고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2)

또한, 자신이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전형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학생이 본 대학의 본 학과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학생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략)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바로는 정량적 성적이 높아야 대학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고 보다 원활한 강의와 학생의 학업이 가능하고, 학과에 대한 흥미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전공 수업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1)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 및 FGI 결과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다양한 집단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이 공정성을 갖기 위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 나.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분석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인식 관련해서는 ‘평가 내용의 공정성’,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자의 전문성’ 세 영역으로 구성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입학사정관 대상 39문항, 교사 대상 29문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1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FGI에서는 각 영역별로 1개의 질문씩 총 3개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 1) 평가 내용의 공정성

‘평가 내용의 공정성’ 과 관련해서는 세부 주제로 ‘고교의 영향력,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고교교육변화 반영, 고교 및 교육청 연계’ 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체별로 설문을 구성했으나, 학부모 및 학생은 입시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자이기에 ‘고교교육변화 반영’ 과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에 대한 내용만 진행했다. 이에 FGI에서도 입학관계자와 교사 및 교육청 그룹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 그룹은 ‘고교교육변화 반영’ 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다.

<표Ⅲ-10> ‘평가 내용의 공정성’ 관련 대상별 FGI 내용

대상	질문지
[그룹1]입학관계자 [그룹2]고교 교사 [그룹3]교육청 장학사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 <u>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u>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자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룹4]학부모 [그룹5]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 <u>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u>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고교의 영향력

‘고교의 영향력’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부터 살펴보면, ‘지원자 소속 고교의 유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에 대해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학급수 등)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에 대해서도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이수단위, 진로선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는 전체 문항 중 입학관계자와 교사의 긍정적 답변이 제일 높았는데, 입학관계자가 교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원자 개인의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와 ‘지원자 소속 고교의 지역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Ⅲ-11> 고교의 영향력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c)	교사 (d)	t
지원자 개인의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632
	평균	3.36	3.31	
	표준편차	1.07	1.13	
지원자 소속 고교의 지역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826
	평균	3.30	3.23	
	표준편차	1.05	1.13	
지원자 소속 고교의 유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3.858***
	평균	3.69	3.40	
	표준편차	0.88	1.09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학급수 등)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 정하다.	N	234	545	3.543***
	평균	3.82	3.58	
	표준편차	0.80	1.00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이수단위, 진로선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3.468**
	평균	4.06	3.84	
	표준편차	0.75	0.89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해보면 교사보다는 입학관계자가 더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  
정하다.’ 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  
는 것은 공정하다.’ 에 대해 입학관계자와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다  
만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와 교사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게 나왔다.

<표Ⅲ-12>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c)	교사 (d)	t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1.256
	평균	3.22	3.13	
	표준편차	0.92	1.03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3.399**
	평균	3.50	3.27	
	표준편차	0.84	0.98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1.634
	평균	3.76	3.65	
	표준편차	0.84	0.99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1.572
	평균	3.60	3.49	
	표준편차	0.85	0.99	

\*  $p < .05$ , \*\*  $p < .01$ , \*\*\*  $p < .001$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주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입학관계자 모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에 FGI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입학관계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적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개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복잡한 작성 기준,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교사의 ‘개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연수 교육’ 등 종합적인 고교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제가 변해야 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부 작성을 위해 교사는 과다한 작성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작성기준을 준수해



야 하며, 기록내용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고려하여 작성 하는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 (중략)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되려면, 우선 작성하는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입학관계자5)

항상 대학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고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고교도 변해야 되고 교사의 역량이나 열정 내지는 그런, 그런 개인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장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수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돼야 학생부조차도 공정하거나 신뢰도 있는 평가자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학관계자1)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대입의 유불리가 아닌 학교 교육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추천서 및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이제 학생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학생부 자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철저히 학교 내 교사의 손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학생의 결과물이 교내에서 교사의 관찰 하에 행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대입의 유불리가 아닌 학교 교육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교과를 개설하고 그에 맞게 수업이 진행되고, 정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입학관계자2)

학생부의 영역별 작성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추가로 학생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의 자료는 이제 학생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학관계자5)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다른 전형자료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은 정량보다는 정성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국가주도의 수능시험과 동일한 잣대에서 공정성의 우열을 가리는 시도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부 기록은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은 ‘정량’보다는 ‘정성’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

다. (입학관계자2)

같은 질문에 대해 고교 교사들은 크게 ‘학교생활기록부 전면 재구조화’, ‘면접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면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기워 넣기 식’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다양한 교사의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시끄러울 만한 것들, 어떤 정치적인 요소의 위력을 가할 만한 것들’이 제거되다 보니,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201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을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 진짜 말 그대로 기워 넣기 식입니다. (중략) 간소화를 해야 될 걸 간소화하고 확대시키거나 좀 부각해야 될 것들을 부각하는 형식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시끄러울 만한 것들, 어떤 정치적인 요소의 위력을 가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거를 해버리고, 다 쳐내는 식이 돼 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간소화가 아니라 평가항목의 어떤 부실화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4)

다음으로 지금처럼 제약 및 제한이 많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불신으로 인해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자기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500자라는 글자 안에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이 다 안 들어가서 (중략) 단계에서부터 뭘 배수를 좀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자기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학생부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중략) 학생 개개인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기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조금 필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면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사2)

또한 실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전히 고교 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교사들 간의 편차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기에 기재 연수 등을 통해 ‘교육에 사명감을 가진 교사’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담임이 누구냐, 담당 과목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학생들조차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기재해주는 교사가 본인의 담임 또는 과목을 맡아 주기를 바랄 정도로 그 차이는 아주 큰 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을 위해 주로 이용되어지지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서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교사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사1)

수업,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연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움직여야 하고 대학의 협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교육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교사들을 힐링할 수 있는 교사 쉼 프로젝트로 운영하여 다시금 교육에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육은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장학사2)

#### 다) 고교교육변화 반영

‘고교교육변화 반영’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네 문항 중 두 문항은 입학관계자와 교사만 응답하도록 하고, 다른 두 문항은 네 집단 모두 공통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구성된 ‘고교교육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와 ‘고교교육 변화에 대한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입학관계자와 교사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13> 고교교육 변화 반영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c)	교사 (d)	t
고교교육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918
	평균	3.97	3.92	
	표준편차	0.73	0.85	
고교교육 변화에 대한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822
	평균	4.03	4.08	
	표준편차	0.79	0.83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네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구성된 문항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입학관계자, 학생, 교사, 학부모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생 집단을 제외한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었다.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입학관계자, 학생, 교사, 학부모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부모와 입학관계자의 경우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Ⅲ-14> 고교교육 변화 반영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9.660***	b<c*** c>d***
	평균	3.83	3.63	4.08	3.76		
	표준편차	0.82	0.95	0.74	0.95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3.198*	b<c*
	평균	3.79	3.56	3.85	3.77		
	표준편차	0.90	0.95	0.90	0.95		

\*  $p < .05$ , \*\*  $p < .01$ , \*\*\*  $p < .001$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부위주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 집단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부모의 경우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평가과정에서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학생의 내신성적의 결과보다는 ‘잠재력과 창의력’ 등을 평가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이 ‘준비한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듣기만 하면 점수가 오르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의 지속적인 설명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류평가 시 학년별로 성적의 성장도, 그리고 고교생활 중 성공보다는 실패를 극복한 사례 등 학생의 절대적인 내신성적의 결과보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창의력 그리고 지원한 학과를 선택 후 졸업까지 연구하거나 지식을 넓혀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평가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2)

성적이 전부가 아닌 아이가 준비한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과목은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성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공동교육과정도 기준이 없는 게 엄마들 사이에 학종이 풍부해지려면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 줄 더 쓰고 입학사정관이 더 봐준다고 하면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고 호기심이 생겨서 들으면 모르지만 그 한 줄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을 꼭 들어야 할까요? (중략) 단순 관심이면 된다고 크게 오해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학부모1)

학생들 또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얼마나 주체적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해나갔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적힌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했던 학생들의 자체적인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단순히 학교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얼마나 주체적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해나갔는지를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생3)

현재 학생부위주전형의 경우 학과 공부와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어도 타학생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한 수준의 활동 내역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는 학생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보다도 진정성있게 학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들여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은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면 학생들도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학생1)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적혀있는 내용 중 학과 관련 영역에 속하는 학술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식적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 학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생의 활동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2)

#### 라) 고교 및 교육청 연계

‘고교 및 교육청 연계’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세 문항 중 두 문항은 학생, 학부모만 응답하도록 하고, 남은 한 문항은 입학관계자, 교사만 응답하게 하였다.

우선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구성된 두 문항 중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한 응답은 학생,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서도 학생이 학부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표Ⅲ-15>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차이 분석: 학생, 학부모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t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N	149	160	3.217**
	평균	3.88	3.51	
	표준편차	1.03	0.97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N	149	160	2.350*
	평균	3.82	3.56	
	표준편차	1.01	0.96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입학관계자, 교사 대상으로 구성된 ‘대학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전공체험, 교사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서는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표Ⅲ-16>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c)	교사 (d)	t
대학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전공체험, 교사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N	234	545	-2.966**
	평균	3.63	3.86	
	표준편차	0.98	1.01	

\*  $p < .05$ , \*\*  $p < .01$ , \*\*\*  $p < .001$

## 2)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세부 주제로 ‘정성평가 관리, 평가 운영 관리,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체별로 설문을 구성했으나, ‘평가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은 실제 대학 입학관계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진행했다. FGI에서는 입학관계자와 교사 및 교육청 그룹에게는 ‘정성평가 관리’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 그룹에게는 ‘정보제공’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다.

이에 입학관계자와 교사 및 교육청 대상 FGI에서는 고교유형 블라인드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보았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 FGI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평가 절차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다. FGI에서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Ⅲ-17> ‘평가 절차의 공정성’ 관련 FGI

대상	질문지
[그룹1]입학관계자 [그룹2]고교 교사 [그룹3]교육청 장학사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절차에 있어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입학사정관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룹4]학부모 [그룹5]학생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다수-다단계 평가’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형결과 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정성평가 관리

‘정성평가 관리’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다섯 문항 중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한 응답은 교사, 학부모, 학생,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 교사, 학생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입학관계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해당 문항 또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한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한 응답은 학생, 교사,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다수-다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한 응답은 학생, 교사, 입학관계자, 학부모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Ⅲ-18> 정성평가 관리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2.823*	
	평균	4.31	4.18	4.12	4.29		
	표준편차	0.83	0.85	0.98	0.82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38.473***	a>c*** b>c*** c<d***
	평균	3.94	4.01	3.25	4.15		
	표준편차	1.16	1.07	1.29	0.96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42.607***	a>c*** b>c*** c<d***
	평균	3.79	3.93	2.91	3.88		
	표준편차	1.24	1.10	1.29	1.0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17.655***	a>c*** a>d** b>c*** c<d***
	평균	4.36	4.09	3.62	4.01		
	표준편차	0.88	0.87	1.12	1.03		
학생부위주전형을 다수-다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2.066	
	평균	4.38	4.18	4.24	4.30		
	표준편차	0.74	0.77	0.75	0.75		

\*  $p < .05$ , \*\*  $p < .01$ , \*\*\*  $p < .001$

입학관계자와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입장이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입학관계자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입학관계자의 경우 이러한 인식 차이는 공정성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었다. ‘평가요소 외 다른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입장과 ‘다양한 정보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교의 교사는 학생부의 블라인드를 통해 지원자의 출신, 배경 등 평가요소 외 다른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평가 공정성의 첫 단계라고 인지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제한적인 정보는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보며, 다양한 정보를 통



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두 그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1)

블라인드 평가 및 고교 프로필 미제공 등은 평가의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원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개인적 배경 등과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가리고 그 외의 내용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4)

또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블라인드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교유형 블라인드를 하든 하지 않든 평가 결과에는 기대한 것만큼의 공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블라인드 시스템의 기계적 한계와 개개인별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시간적 인력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기에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우수 학생들이 지원하는 주요대학들의 수시를 분석해보면 고교 블라인드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중략) 소위 블라인드의 주 대상이 되었던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수시 합격자 비율이 오히려 증가된 주요대학들도 다수 있었다. 결국, 고교유형 블라인드를 하든 하지 않든 평가 결과에는 기대한 것만큼의 공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입학관계자6)

과도한 블라인드 절차에 따른 실제 평가 시간 확보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회의감 등이다. 대학의 경우 고교에서 제공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블라인드 과정에서 블라인드 시스템의 기계적 한계와 개개인별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시간적 인력적 낭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완벽한 블라인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블라인드 처리 자체가 불공정한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한계점 등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생각한다. (입학관계자3)

교사와 교육청의 경우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는 ‘고교가 처해있는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았다. 일반고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환경이 많이 불리한 학생들을 잘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문제는 고교가 처해있는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이 우수해 다양한 활동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가 있습

니다. 그리고 경쟁사회이기에 전자의 학교는 소수입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교사가 블라인드처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평가하는 요소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5)

일반고 교사들 중에는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블라인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교사4)

입학사정관님들은 블라인드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많이 불리한 학교의 학생들을 잘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학생의 과목선택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학생이 학교의 상황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강을 못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학사3)

일반고 안에서도 규모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통의 일반고와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자신의 학교 학생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읍면 또는 섬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오히려 거꾸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목소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의 일반고는 특목고만 바라보고 불리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통의 일반고와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자신의 학교 학생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학사3)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블라인드 평가 전후의 자사고 및 특목고 합격 비율은 큰 변화가 없’기에 ‘평가의 공정성만 침해받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별 학생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고려해야만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블라인드 평가 전후의 자사고 및 특목고 합격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블라인드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만 침해받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사4)

데이터의 결과가 기존과 거의 큰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선발된 학생의 어떤 학업적 능력, 아마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으로 선발된 아이는 분명히 추후에 어

떤 추적 조사를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굳이 그렇게 무리수로 들어가면서 블라인드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3)

교육청의 경우, 현재의 블라인드 평가는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적어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창의적체험활동 계획,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고교프로파일 형태로 받아서 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학생과 매칭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블라인드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창의적체험활동 계획,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고교프로파일 형태로 받아서 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학생과 매칭하여 평가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학교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학교의 교육여건은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2)

현실적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해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과목 선택한 결과뿐만 아니라, 선택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블라인드 해제만으로도 상당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사1)

#### 나) 평가 운영 관리

‘평가 운영 관리’ 관련해서는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 관련한 사항이기에, 입학관계자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했다. 총 세 문항으로, ‘대학이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입학관계자의 77.3%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학이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다.’와 ‘대학이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표Ⅲ-19> 평가 운영 관리 분석: 입학관계자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대학이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다.	빈도	14	43	66	82	29	3.29	1.09
	비율	6.0	18.4	28.2	35.0	12.4		
대학이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빈도	15	35	86	72	26	3.25	1.05
	비율	6.4	15.0	36.8	30.8	11.1		
대학이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빈도	3	9	41	129	52	3.93	0.82
	비율	1.3	3.8	17.5	55.1	22.2		

다) 정보제공

‘정보제공’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세 문항으로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이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Ⅲ-20> 정보제공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대학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N	149	160	234	545	26.155***	a>c***
	평균	4.39	4.19	4.04	4.52		b<d***
	표준편차	0.71	0.80	0.84	0.66		c<d***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대학이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 (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하 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N	149	160	234	545	21.265***	a>c***
	평균	4.41	4.24	4.08	4.52		b<d**
	표준편차	0.69	0.81	0.77	0.70		c<d***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 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공 정성에 기여한다.	N	149	160	234	545	14.194***	b<d**
	평균	4.30	4.20	4.10	4.47		c<d***
	표준편차	0.77	0.85	0.78	0.73		

\*  $p < .05$ , \*\*  $p < .01$ , \*\*\*  $p < .001$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부모의 경우, 현재보다 더 자세한 평가 방법과 사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에 ‘카더라의 기준’을 그냥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학과에 진학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종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생기부가 질이 중요한지 양이 중요한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문만 무성하고 카더라가 많습니다. (중략)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줘서이다. 선생님이 보고서를 안 받아준다. 사실 그 보고서 하나 더 내고 선생님이 써 준 내용만으로 아이를 평가하진 않겠지만 뭔가 이유를 찾고 싶은 저희는 그 카더라의 기준에 아이를 맞추게 됩니다. (학부모1)

공정한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는 평가방식을 고안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평가방식은 학생의 역량 평가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실제 그 학생이 지원학과에 진학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평가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이 곧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1)

또한 이러한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라도 납득

할 수 있는 사례, 내신 성적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붙을만’ 한 사례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 고등학교인데 화장품공학과 그 친구가 되게 감동이었던거ですよ. (중략) 그 친구가 한 거 자기가 발표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붙을 만 했을 거라 생각했었던거ですよ. (중략) 정말 개는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도 많았고 그러니까 보고서 좀 희망을 가졌거든요. (중략) 그런 사례를 보면 좀 납득이 좀 가긴 하거든요. (학부모1)

### 3)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자의 전문성’ 과 관련해서는 세부 주제로 ‘학력 및 지위, 교육훈련 내용, 조직 운영’ 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대학에서의 인력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다 보니 ‘학력 및 지위, 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교육훈련 내용’ 은 입학관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진행했다. 이에 FGI에서는 모든 집단에게 ‘평가자의 전문성’ 전반에 대해 추가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FGI에서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Ⅲ-21> 평가장의 전문성에 대한 FGI: 공통

대상	질문지
[그룹1]입학관계자 [그룹2]고교 교사 [그룹3]교육청 장학사 [그룹4]학부모 [그룹5]학생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의 전문성에 있어 ‘ <u>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집단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u> ’ 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학력 및 지위

‘학력 및 지위’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했다. 총 네 문항 중에서 ‘입학사정관의 경력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에 대해 입학관계자의 78.6%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의 고용형태(정규/무기계약/계약직)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에 대해 입학관계자의 66.6%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전공(학과)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에 대해 입학관계자의 55.6%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에 대해서는 48.4%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연령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상이 32.0%로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의 연령과 전공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본 것이다.

<표Ⅲ-22> 학력 및 지위 분석: 입학관계자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입학사정관의 연령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	22	56	81	56	19	2.97	1.09
	비율	9.4	23.9	34.6	23.9	8.1		
입학사정관의 경력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	6	8	36	121	63	3.97	0.89
	비율	2.6	3.4	15.4	51.7	26.9		
입학사정관의 전공(학과)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	11	37	72	90	24	3.34	1.02
	비율	4.7	15.8	30.8	38.5	10.3		
입학사정관의 고용형태(정규/무기계약/계약직)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	13	12	53	85	71	3.81	1.10
	비율	5.6	5.1	22.6	36.3	30.3		

학력 및 지위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이 강했다. ‘불안한 신분에 놓인 전임입학사정관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면서도 대학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어려운 위치에 두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편이며, 불안한 신분에 놓인 전임입학사정관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학관계자5)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신분 안정화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학관계자2)

교사들 또한 ‘올해에는 A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작년에는 B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만나는 사례가 지나치게 빈번’ 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 다고 우려했다. 입학사정관은 소속 대학의 전문가로서 ‘각 대학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할 전문가가 양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주당 노동 시수, 연간 대입 연구자료, 추가 수당 등의 내용들이 법적으로 보장’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이직률, 퇴직률은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A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작년에는 B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만나는 사례가 지나치게 빈번합니다. 이는 결국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를 것이고 추구하는 색깔이 다를 것인데, 평가자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결국 대학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4)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전부 다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평가의 전문가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각 대학의 색깔을 뽑는 대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5)

고등교육법상에 입학사정관의 정직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주당 노동 시수, 연간 대입 연구자료, 추가 수당 등의 내용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2)

#### 나)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내용’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일곱 문항 중 세 문항은 모든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고, 나머지 네 문항은 입학관계자와 교사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구성했다.

우선 공통 문항부터 살펴보면, 세 문항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하여 학생 및 입학관계자 및 교사, 학부모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이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학생, 교사, 학부모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이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입학관계자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세 문항 모두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Ⅲ-23> 교육훈련 내용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6.478***	a>b* b<c** b<d**
	평균	4.37	4.08	4.37	4.37		
	표준편차	0.75	0.86	0.78	0.77		
입학사정관이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5.157**	a>b* b<c** b<d**
	평균	4.39	4.13	4.41	4.37		
	표준편차	0.77	0.85	0.73	0.74		
입학사정관이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149	160	234	545	6.571***	a>b* a>c* b<d* c<d*
	평균	4.44	4.18	4.18	4.39		
	표준편차	0.68	0.90	0.86	0.77		

\*  $p < .05$ , \*\*  $p < .01$ , \*\*\*  $p < .001$

입학관계자와 교사 대상으로 한정된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하여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해서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이 모의평가(서류, 면접)를 충분히 경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해서 입학관계자, 교사 순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이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 뒤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관련해서 교사, 입학관계자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네 문항 모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24> 교육훈련 내용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c)	교사 (d)	t
입학사정관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634
	평균	4.31	4.35	
	표준편차	0.78	0.78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1.540
	평균	4.47	4.38	
	표준편차	0.71	0.80	
입학사정관이 모의평가(서류, 면접)를 충분히 경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0.144
	평균	4.40	4.39	
	표준편차	0.75	0.75	
입학사정관이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 뒤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N	234	545	-4.598***
	평균	4.10	4.40	
	표준편차	0.92	0.79	

\*  $p < .05$ , \*\*  $p < .01$ , \*\*\*  $p < .001$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FGI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모든 대학이 전반적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대학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입전문가로서의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입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및 전형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고, 교육과 훈련의 경계성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교육내용과 시간의 중복, 온라인 교육의 부실한 운영 등 교육이수에 대한 현장에서의 관리 소홀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학관계자1)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적인 업무들과 많은 사업들은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교육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의 역량 기반에 중심을 둔 교육훈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관계자5)

평가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등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훈련 운영이 필요합니다. (중략) 교육전문가로서 학교 교육현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입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및 전형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래 교육체제로 전환에 대비하여 이러한 대입전문가로서의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관계자4)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이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선택권을 확대해주는지, 또한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현장의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학교 상황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생부 기재요령 등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2)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선택권을 확대해주는지, 또한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3)

고등학교 과목별 성취기준, 성취수준, 평가 시스템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3)

다양한 현장의 교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특정 지역, 고등학교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학교 및 지역별 특징을 알아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교사1)

#### 다) 조직 운영

‘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했다. 총 세 문항 중에서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대입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를 가장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79.1%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또한 긍정적 답변이 많았는데, 78.2%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에 대해서도 75.6%가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표Ⅲ-25> 조직운영 분석: 입학관계자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빈도	5	12	40	95	82	4.01	0.96
	비율	2.1	5.1	17.1	40.6	35.0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빈도	3	7	41	98	85	4.09	0.88
	비율	1.3	3.0	17.5	41.9	36.3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대입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빈도	3	6	40	101	84	4.10	0.86
	비율	1.3	2.6	17.1	43.2	35.9		

조직 운영 차원에서, 전임사정관의 입지 및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에 대한 신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위촉된 교수사정관은 강의수나 업무를 줄여주는 것’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전임사정관의 수를 늘리고 위촉사정관의 권한 및 규모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있어서 독자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임입학사정관들이 연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촉 입학사정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강화되어 무조건 40시간을 연간 연수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전임입학사정관의 120시간에 매우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촉입학사정관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평가까지 하려니 형식적인 연수, 부족한 연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위촉된 교수사정관은 강의수나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위촉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사2)

전임 사정관의 수를 늘리고, 위촉 사정관의 권한 및 규모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

다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는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임 사정관의 수를 법제화하고, 위촉 사정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지침을 내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교사4)

입학사정관은 평가에 있어서 독자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을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힘에 대한 제재로는 공정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5)

이 외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자격 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학사정관제 초창기처럼 ‘양성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공신력있는 교육이수를 통한 인증 갱신’이나 ‘양성기관/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즉, 자격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박사학위, 교사는 정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별로 채용기준에 따른 선발이 되고는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훈련을 통한 입학 사정의 전문가로서의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학관계자1)

예전에 있었던 양성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입학사정관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입학관계자5)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자격증화, 매년 공신력있는 교육이수를 통한 인증 갱신, 공동의 교육과정 제정과 양성기관/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함(합니다) (입학관계자2)

이처럼 ‘평가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이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비롯해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 및 ‘전임사정관의 입지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대입전형 유형 간 불균형 심화와 부모의 배경 등의 외부환경 영향력과 평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제안되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11.28.)에서 공정한 대입, 공정한 교육을 통해 ‘교육 희망사다리’를 제안하며,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정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교에는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과 대학에는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을 대입에 미반영 하는 한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폐지,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대학에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를 공개할 것과 회피·배제 강화 및 외부 사정관 참여, 입학사정관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의무적으로 10% 이상 운영하면서,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로드맵에 따르면, 2021학년도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및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등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축소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봉사활동 등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 등이 전면 폐지된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입전형자료,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대입전형 구조 개편 등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주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과 FGI를 통해 분석하였다.

### 1) 대입 전형자료

#### 가)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부모 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축소,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활동 대입 미반영 등이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입학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였다. 입학관계자의 경우에는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학생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전형자료가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인식을 보였다. 설문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와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입학관계자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표Ⅲ-26>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 관계자	교사	F	사후 검증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N	149	160	234	545	28.354***	a>c*** b>c*** c<d***
	평균	3.72	3.70	2.88	3.53		
	표준 편차	1.05	1.03	1.13	1.11		
교사추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N	149	160	234	545	6.640***	a>c* b>c** c<d**
	평균	3.60	3.71	3.23	3.56		
	표준 편차	1.21	1.04	1.12	1.22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N	149	160	234	545	14.759***	a>c* b>c*** c<d***
	평균	3.36	3.63	2.98	3.58		
	표준 편차	1.27	1.08	1.21	1.24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N	149	160	234	545	26.934***	a>c*** b>c*** c<d***
	평균	3.43	3.72	2.75	3.49		
	표준 편차	1.31	0.95	1.21	1.24		

\*  $p < .05$ , \*\*  $p < .01$ , \*\*\*  $p < .001$

또한 ‘자기소개서의 문항 및 글자 수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입학관계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Ⅲ-27>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t
자기소개서의 문항 및 글자 수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6.954***
	평균	2.80	3.43	
	표준 편차	1.14	1.16	

\*  $p < .05$ , \*\*  $p < .01$ , \*\*\*  $p < .001$

학생, 학부모, 교사는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외부요인 차단으로써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축소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대학입학전형 설계와 운영의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고교에서 구성하는 대학 입학 전형자료라는 측면을 인지해야 한다.

#### 나)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전형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관련하여 교사는 대체적으로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필수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의 현장 보급은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Ⅲ-28>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차이 분석: 교사

문항	구분	교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필수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	545
	평균	3.48
	표준편차	1.24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의 현장 보급은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	545
	평균	3.55
	표준편차	1.12



문항	구분	교사
학교생활기록부 신고센터 운영은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545
	평균	3.43
	표준편차	1.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추가 및 검증 강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545
	평균	3.38
	표준편차	1.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545
	평균	3.41
	표준편차	1.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545
	평균	3.40
	표준편차	1.12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기재되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처분 조치 또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제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학교별, 교사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의 성장을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자료인지, 대입전형자료로 인식하는 지에 따라 책무성의 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설문은 대학입학관계자와 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에게만 실시하였다.

### 가) 전형 운영의 투명성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입학관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긍정적이긴 했으나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Ⅲ-29>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 관계자	교사	F	사후 검증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	149	160	234	545	39.017***	a>c*** b>c*** c<d***
	평균	3.81	3.78	3.04	3.91		
	표준 편차	0.99	1.05	1.22	0.98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	149	160	234	545	35.267***	a>c*** b>c*** c<d***
	평균	3.82	3.82	3.10	3.92		
	표준 편차	1.00	1.03	1.22	0.98		

\*  $p < .05$ , \*\*  $p < .01$ , \*\*\*  $p < .001$

고교정보를 블라인드하는 것이 전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입전형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입학관계자와 교사와의 응답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입학관계자는 교사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Ⅲ-30>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t
고교프로파일의 전면 폐지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10.782***
	평균	2.76	3.76	
	표준 편차	1.23	1.08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입학관계자와 교사와의 응답 차이에 대해 장학사1은 고교 블라인드로 인해 ‘학교의 후광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평가를 해야 하는 입학관계자는 학생의 배경 정보 부족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의 후광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수 학생들이 모여 진학률이 높은 학교의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략) 반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생의 배경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학사1)

장학사1이 지적한 내용은 입학관계자로 참여한 대교협 담당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교의 교사는 학생부의 블라인드를 통해 지원자의 출신, 배경 등 평가요소 외 다른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인 평가 공정성의 첫 단계라고 인지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제한적인 정보는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보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두 그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관계자6)

덧붙여 대교협 담당자는 고교 블라인드에도 불구하고 고교에서는 특목고의 후광효과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면, 대학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로 인한 수고로움으로 평가보다 더 많은 행정인력과 시간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입학관계자1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이 수학적 환경적 요소와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차단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정관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는 블라인드 작업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가기간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은 무한대가 아닌 만큼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관계자 1)

일반고 교사4는 고교 블라인드 전후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결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교 블라인드로 인해 상황을 인정받아야 하는 지역의 소규모 고교에 대해서는 ‘불리한 상황’ 이라고 말한다.

일반고 교사들 중에는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블라인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학생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고려해야만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블라인드 평가 전후의 사고 및 특목고 합격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블라인드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만 침해받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명인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블라인드 평가 전에는 이러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도리어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마저 생긴 것입니다.(교사4)

고교 블라인드에 비해 ‘대학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 개발’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와 교사 모두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31>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i>t</i>
대학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 개발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545	-7.313***
	평균	3.66	4.15	
	표준 편차	0.90	0.77	

\*  $p < .05$ , \*\*  $p < .01$ , \*\*\*  $p < .001$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입학관계자 모두는 대학의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이 전형운영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순으로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표Ⅲ-32>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공통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 관계자	교사	<i>F</i>	사후 검증
대학의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149	160	234	545	9.380***	a>c* c<d***
	평균	4.23	4.20	3.98	4.31		
	표준 편차	0.87	0.79	0.83	0.73		

\*  $p < .05$ , \*\*  $p < .01$ , \*\*\*  $p < .001$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모집요강에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전형운영의 투명성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형운영에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입학관계자의 응답을 보면, 회피·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은 전형운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항목별 입학관계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Ⅲ-33> 전형 운영의 투명성 차이 분석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회피·배제 재검증 및 사후검증 의무화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4.05
	표준편차	0.84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10
	표준편차	1.16
대학의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의 참관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19
	표준편차	1.09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 및 보존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26
	표준편차	1.08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2.76
	표준편차	1.26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의 초석으로 준비 단계로 보인다. 이에 투명성 강화 기여에 불필요한 요소는 적극 제거하고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입학관계자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전형 운영의 전문성도 담보해야 한다.

#### 나) 전형 운영의 전문성

학생부종합전형은 타전형과 다르게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이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다. 즉, 평가자가 평가자대일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형운영의 전문성관련해서는 입학관계자에게만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대학별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

기 위해서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내용에서 제시한 전문성관련 내용은 1인당 서류평가 시간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이다. 이에 대해 입학관계자 대부분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외에도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상향은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Ⅲ-34> 전형 운영의 전문성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60
	표준편차	0.97
서류평가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는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65
	표준편차	1.03
대학별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는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96
	표준편차	0.94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의 상향은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i>	234
	평균	3.53
	표준편차	1.07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와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 상향 등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적 인프라 구축이라면, 내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대한 노력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사와 교육청 장학사는 제안하고 있다. 장학사1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이고,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가 곧 공정성 확보라고 말한다.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생부 기재요령 등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선택이 전공적합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과목을 수강했는지를 넘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더욱 공정하면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특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해당 과목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확보는 물론, 해당 학생의 역량 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학사정관 교육은 위촉사정관을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1)

장학사1과 같은 맥락으로 장학사3은 입학사정관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선택권을 확대해주는지, 또한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3)

대학마다 평가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보다 위촉사정관의 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위촉사정관의 교육·훈련의 양과 질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이 전형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장학사2는 말한다.

지금 전임입학사정관들이 연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촉 입학사정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강화되어 무조건 40시간을 연간 연수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전임입학사정관의 120시간에 매우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촉입학사정관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평가까지 하려니 형식적인 연수, 부족한 연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위촉된 교수사정관은 강의나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위촉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사2)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취지에서 입학사정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입학사정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학관계자6은 주장하였다.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즉, 자격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박사학위, 교사는 정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별로 채용기준에 따른 선발이 되고는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훈련을 통한 입학 사정의 전문가로서의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학관계자6)

입학사정관의 자격제도는 2014년부터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계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으로의 진입장벽을 스스로 올리는 것에 대해 입학사정관 수 확보 차원에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해 외에도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 등 해당 대학에 누적되는 정보를 이해하여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교사1은 덧붙이고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교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방문 설명회 시 지역 교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현장과의 만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략) 정보가 누적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대학에서 오랜 기간 학생 선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입학사정관에 대한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1)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의 신분 보장이라고 지적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더 이상 ‘열정페이’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타당하고 합당하도록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간단합니다. (중략) 첫째, 신분 안정입니다. 입학사정관의 이직률, 퇴직률은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A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작년에는 B대학 입학사정관으로 만나는 사례가 지나치게 빈번합니다. 이는 결국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를 것이고 추구하는 색깔이 다를 것인데, 평가자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결국 대학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보수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떠안아야 하는 업무상의 부담은 상상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 사정 업무는 차치하고라도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제도를 공부하기에도 바쁘는데, 고교 방문을 통한 학교 홍보,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행정 잔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그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의무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강도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4)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전문성 확보는 ‘사람’이었다. 평가의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은 신분 안정화와 처우개선 속에서 교육·훈련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해당 대학에의 인재상을 인지하는 등의 축적된 정보를 통해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학입학전형의 전문성 확보이고, 공정성 확보이다.

### 3) 대입전형 구조개편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로드맵에서 ‘대입전형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수능위주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질문하였고,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입학관계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고교와 대학을 가장 혼란에 빠뜨린 지점은 ‘수능위주 전형 확대’ 일 것이다. 이는 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수능위주전형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입학관계자와 교사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대비를 이루었다. ‘수능위주전형의 확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학생은 수능위주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Ⅲ-35>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차이 분석: 학생, 학부모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t
수능위주전형의 확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N	149	160	2.331*
	평균	3.85	3.55	
	표준편차	1.09	1.18	

\*  $p < .05$ , \*\*  $p < .01$ , \*\*\*  $p < .001$

학생이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점이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통된 양식에서 치러지는 표준화 된 시험입니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했을 고등학생들이 공통된 양식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된 평가가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3)

또한 수능위주전형이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지의 여부보다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능시험의 경우 주변인의 도움이 있다 해도 학생이 직접 공부해야만 그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외부적 개입도 불가능합니다. (중략) 수능 시험이 학생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험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1)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확대가 공정성에 기여한다고 여기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본인이 직접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입학관계자와 교사는 수능위주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것에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또한 수능위주전형의 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학관계자와 교사는 모두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표Ⅲ-36>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t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2.668**
	평균	2.64	2.89	
	표준편차	1.12	1.25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연계 추진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3.487**
	평균	2.61	2.94	
	표준편차	1.18	1.23	

\*  $p < .05$ , \*\*  $p < .01$ , \*\*\*  $p < .001$

교사는 ‘수도권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0% 확대’로 인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의 방향과 대입전형 준비의 불일치로 인해 고민할 수 있다. 입학관계자의 경우, 중단연구 결과 등에서 보여지는 수능위주전형 입학자의 이탈이나 학생부위주전형 입학자의 학점평점보다 낮은 평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 확대는 대학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대학에서는 입학자 중 부적응 비율이 높은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 나) 대입전형 단순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의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 폐지 유도’와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는 교사와 입학관계자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대입전형 단순화가 공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37> 대입전형 단순화 차이 분석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t
논술위주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5.676***
	평균	3.05	3.52	
	표준편차	1.05	1.07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5.186***
	평균	3.24	3.65	
	표준편차	1.07	1.01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사회통합전형 도입 · 법제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법제화가 대입전형 구조개편으로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학관계자와 교사의 응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의 10% 이상 의무화’와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권고’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해 입학관계자는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입장인 반면, 교사는 ‘그렇다’의 입장이었다.

<표Ⅲ-38>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차이 분석: 입학관계자, 교사

문항	구분	입학 관계자	교사	t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의 10% 이상 의무화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7.032***
	평균	2.90	3.50	
	표준편차	1.13	1.07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권고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N	234	545	-9.373***
	평균	2.78	3.58	
	표준편차	1.15	1.05	

\*  $p < .05$ , \*\*  $p < .01$ , \*\*\*  $p < .001$

수도권 대학 중 몇몇 대학들은 2016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축소하다가 폐지에 이르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시에서 수능최저적용을 낮추거나 폐지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 합격자의 최초 등록률이 낮은 것 뿐 아니라, 2, 3학년에 전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0%이상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인원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교과성적으로 대입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요구사항 분석

### 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사항

앞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전형유형 및 종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장 적게 반영되어야 하며, 작성자에 따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 유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는 평가받는 학생이 본인의 역량을 직접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피평가자의 역량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결과가 정량적으로 드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평가는 동일한 환경과 시간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로 이루어져야함을 요구하였다.

#### 2)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개별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른 인식과 관련하여 각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와 학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학교생활부가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취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어 지원자의 역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둘째, 자기소개서는 지역, 소득 등의 교육환경에 따라 격차가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다르게 유일하게 피평가자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경우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셋째, 면접고사는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학생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전형요소라는 보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과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넷째, 논술고사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지원자의 논리적, 종합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해야 하고 채점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없어야 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여섯째, 실기고사에 대해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고 평가해야 함과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지원자의 노력을 잘 반영해서 평가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실기고사의 경우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채점 기준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전형유형 및 종류에 대한 요구사항

전형유형 및 종류에 따른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교과가 100% 반영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관련하여 내신성적만으로 평가할 것과 대인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과 학생의 성실함과 학업 능력이 동시에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와 서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자를 표현하는 서류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고교 3년

간의 기록이자 교과별 담당교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고교 생활 내에서 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교 유형 간의 격차를 서류평가를 통해 보완할 것과 교과 및 서류평가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원자의 역량을 상호검증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의 누적된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인 성과 교사의 정성평가를 통해 역량을 파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과와 면접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서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해 평가해달라는 요구와 지원자의 학교 생활 충실도와 학업 역량은 교과를 통해 평가하고, 학교 유형별 및 지역별 차이를 면접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과 외 면접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적성, 태도, 인성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해줄 것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과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 고교 간 내신 산출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해야 하고, 지원자의 성실성을 보기 위한 교과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동시에 반영하여 평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과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서류평가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개인의 활동을 통해 잠재력, 학업과 진로 관련 역량을 골고루 평가해줄 것과 교내 활동과 교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외부의 도움 없이 고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전형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서류평가를 통해 3년 간의 성실성을 확인하고, 면접평가를 통해 서류에서 부족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요구하였다. 또한, 서류평가를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면접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인성과 평소 행실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지원학과에 적합한 학생의 실제 역량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을 면접을 통해 평가해줄 것과 3년 간의 누적 기록과 그러한 기록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그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고교 3년 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서류평가와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평가 그리고 최소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서류평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면접평가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지역별 및 학교별 차이를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으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가지 모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논술을 100% 반영하는 논술위주전형의 경우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동일한 문제로 평가할 것과 논술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과 수학 능력을 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논술과 교과를 반영하는 논술위주전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교과와 함께 전공 적합성이 높은 교과의 논술까지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논술위주전형(논술+교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술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논술위주전형에 대해 논리력, 사고력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통해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일한 문제를 통해 평가해줄 것과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시험을 통해 원하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두어 선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함께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의 충실성과 학생의 역량 그리고 학생의 사고력과 기초학력을 동시에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능 100%를 반영하는 수능위주전형에 관해서는 전형에 대한 요구사항보다는 반영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한 점들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될 것과 동일한 고교 내 시기에 공부한 같은 과목의 공부 내용만으로 출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의 점수가 표준화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수능위주전형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노력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반영하고 교과 내신도 함께 평가해줄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과 성적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N수생의 유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교과 정량평가를 같이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수능위주전형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원자의 학업역량 외에 기타 역량도 함께 평가해줄 것과 지역별, 학교 유형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여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실기/실적위주전형에 대해서는 전형에 대한 요구사항보다는 반영되는 실기시험이나 실적들이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한 점들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기고사의 경우 시험 현장에서 결과가 결정되어야 할 것과 실기고사 현장에서 학생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원자의 재능과 노력이 뒷받침된 실기 실력을 평가해줄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개인의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나.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사항

앞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평가 내용의 공정성,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자의 전문성’ 세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평가 내용의 공정성

학생부위주전형이 평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자 소속 고교의 영향력,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고교교육변화 반영, 고교 및 교육청 연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자 소속 고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학생부위주전형은 지원자 소속 고교의 유형, 규모, 교육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내용에 대한 학부모 공개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권한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간소화가 학교생활의 부실화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학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교육 본연의 모습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사 연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와 기록에 대한 교사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고교-대학-교육청 차원의 협력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



시험, 논술고사, 실기고사의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는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개별 단위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변화 반영’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고교 교육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변화에 대한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내신성적의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을 평가해야 하며, 학생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활동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은 교육과정과 관련없는 활동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 및 교육청 연계’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과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사 대상 연수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평가 절차의 공정성

학생부위주전형이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성평가 관리, 평가 운영 관리,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성평가 관리’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학생부위주전형은 지금처럼 다수-다단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은 명시되어있는 만큼 위반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라인드평가와 관련해서,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블라인드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고교와 대학 모두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력이 적다면 현재 블라인드평가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평가시 최소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평가 계획 등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운영 관리’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제공’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은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합격사례를 지속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평가자의 전문성

학생부위주전형이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학력 및 지위, 교육훈련 내용, 조직 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력 및 지위’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의 경력은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용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고용형태(정규/무기계약/계약직)은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은 각 대학의 입학 관련 전문가로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촉사정관보다 전임사정관의 규모 및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은 전형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형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입학사정관 인증을 위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입된다면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운영을 통해 인증 갱신 및 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훈련 내용’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은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은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은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크며, 이를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훈련 내용 관련해서 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모의평가(서류, 면접)를 충분히 경험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다양한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리의식과 관련해서는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 뒤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 운영’ 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입학사정관만이 아니라 대학의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라면 전반적인 대입정책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학처에서는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대입전형을 어떻게 운영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 가능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였다. 고교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중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학원을 다녀야만 준비 가능한 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입제도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표Ⅲ-39>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1: 공통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관계자	교사	F	사후 검증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6.443***	a>b** b<d**
	평균	4.24	3.89	4.11	4.16		
	표준편차	0.79	0.82	0.75	0.79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6.051***	a>b** b<c* b<d*
	평균	4.11	3.75	4.02	3.98		
	표준편차	0.72	0.83	0.76	0.82		
학원을 다녀야만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8.289***	a>c** a>d***
	평균	2.09	1.79	1.71	1.61		
	표준편차	1.34	0.93	1.01	1.00		

\*  $p < .05$ , \*\*  $p < .01$ , \*\*\*  $p < .001$

또한 미래 대입전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문제로 평가하고,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지원자에게 동일한 시험 조건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실기고사와 수능위주전형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요소가 들어 있는 전형에 있어 단순 교과 등급 공개가 아닌 실제 선발된 학생들의 예시 사례 제시를 통해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다양한 고교유형 선발 사례 제시를 통해 왜 이 학생이 뽑았는지 공개가 된다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교사1)

이에 비해 여러 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와 한번 응시해 얻은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수능위주전형과 같이 N수생의 시험결과와 졸업예정자의 시험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표Ⅲ-40>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2: 공통

문항	구분	학생	학부모	입학 관계자	교사	F	사후 검증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N	149	160	234	545	26.099***	a>b** a>c*** a>d** b>c** c<d***
	평균	3.95	3.53	3.16	3.64		
	표준 편차	0.80	0.83	1.02	0.91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29.967***	a>b* a>c*** a>d*** b>c*** b>d* c<d**
	평균	4.27	3.89	3.29	3.62		
	표준 편차	0.80	0.88	1.11	1.09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29.848***	a>b* a>c*** a>d*** b>c*** b>d** c<d**
	평균	4.23	3.87	3.26	3.55		
	표준 편차	0.87	0.88	1.10	1.12		
여러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와 한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3.204*	a>c*
	평균	3.12	2.89	2.78	2.85		
	표준 편차	1.24	1.07	1.03	1.09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생활기록부관련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이 내신 등급만을 계산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교과학습발달사항(내신등급/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마다 정원이 다르고 시험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에 의한 평가보다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가 더 공정하다고 여긴 결과이다.

<표Ⅲ-41> 미래 대입전형 운영 차이 분석3: 공통

문항	구분	학생 (a)	학부모 (b)	입학 관계자 (c)	교사 (d)	F	사후 검증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등급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11.415***	a>c* b>c* c<d***
	평균	2.69	2.67	2.32	2.82		
	표준 편차	1.21	1.06	1.05	1.12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내신 등급/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5.032**	b<c* b<d*
	평균	3.72	3.69	3.95	3.92		
	표준 편차	0.92	0.84	0.73	0.91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5.783**	b<c** b<d*
	평균	3.60	3.44	3.82	3.71		
	표준 편차	1.07	0.97	0.79	0.95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4.983**	b<c* b<d*
	평균	3.70	3.59	3.88	3.86		
	표준 편차	0.96	0.92	0.78	0.95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N	149	160	234	545	2.672*	
	평균	3.60	3.57	3.80	3.72		
	표준 편차	1.00	0.94	0.77	1.00		

\*  $p < .05$ , \*\*  $p < .01$ , \*\*\*  $p < .001$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공정함’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공정성이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평가 결과에 관한 설득 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입에서 공정성은 설득력인 것 같습니다. (교사3)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이 대입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것 또한 대입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장학사1)

대입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학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운 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투명한 과정과 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대입 절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공정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입 전형 자료와 요소

대학입학전형 전형자료로서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였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필수화를 요구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 간, 교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의 현장 보급을 요구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대입전형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신고센터 운영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추가 및 검증 강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재금지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항목과 내용에 대한 제약이 많아져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있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자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여겨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기소개서의 도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2)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대입전형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정책(면접+서류)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입전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의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을 요구하였다. 둘째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로 평가자의 회피·배제 재검증 및 사회검증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 예측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합격과 불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형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류평가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뿐 아니라 대학별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를 요구하였다. 위촉사정관 교육 이수 시간을 늘려 위촉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대입전형 구조 개편

고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모집전형과 정시모집전형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전형 요소가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모델링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을 위해 고교교육과정내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특기자전형과 논술위주전형의 폐지를 요구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요구하였다.

## IV. 학생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 1.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2013년에 제작 및 배포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대학별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대입 환경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나아가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시된 대입의 공정성 인식 및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가. 개관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13)’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인 2012년 연구를 통해 마련되었다.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초점이 맞춰진 만큼, 리스트에서도 ‘조직체계,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선발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관리, 전문성 확보’라는 5개 영역과 14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IV-1>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13) 개관

영역	하위영역	문항 수
조직 체계	조직의 독립성	4
	업무(사무)분장의 명확성	1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	정보제공	4
	회피제척 시스템	5
	다수다단계 평가	9
	평가자료의 신뢰성	4
	평가 절차의 신뢰성	5
	이의신청처리절차	2



영역	하위영역	문항 수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	전형요소(전형자료)	4
	고교 DB 구축	1
선발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관리	선발기준의 공식화	2
	공정관리	3
전문성 확보	윤리의식 강화	2
	교육·훈련	7
총 문항수		53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정성적 평가를 해왔으나,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만이 평가자료로 남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서류평가, 혹은 면접평가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위주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위주전형’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수정하였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평가 절차 및 위원회 등 형식의 공정성, 전형자료 및 고교 교육과정 연계 등과 같은 내용의 공정성,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에 2023년에 제시할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로 구성하였다.

<표IV-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 개관

구분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5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4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5

구분	대분류	중분류	문항수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8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4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6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6
		회피배제 제도 운영	2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8
		이의신청 절차 운영	2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4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6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9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6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3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3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4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13
총 문항수			98

우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자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평가 절차’는 2013년 리스트의 ‘정성평가를 위한 공정성 확보’와 ‘선발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공정 관리’가 해당될 것이다. ‘평가 내용’은 2013년 리스트에서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공정성 확보’가 해당될 것이다. ‘평가자 전문성’은 2013년 리스트에서 ‘조직체계’와 ‘전문성 확보’가 해당될 것이다.

#### 나. 평가 절차

평가 절차에서는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정보 공개,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을 대분류로,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다수-다단계 평

가 운영, 회피·배제 제도 운영,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을 중분류로 두고 50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IV-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 절차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교
대입 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규정(조직, 인사, 전형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유지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이 되어있다.	수정
		입학사정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신설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신설
		입학사정관 인력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신설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신설
		평가과정 녹화녹음 보존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신설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다.	유지
		이의신청처리 규정에는 이의신청 대상, 기간 및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유지
	내부감사 제도 및 규정	대학 내부에서 자체 감사 기관을 통해 입시 사후 감사제도가 있다.	수정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절차를 규정화하고 있다.	신설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이 있다.	신설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직무윤리에 위배되는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신설
	대입 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모든 평가기준은 전형 시행 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서화한다.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수정
평가팀 편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유지
최종합격자 선정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신설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유지
면접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유지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수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입학전형 운영 전반의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수정
외부인사가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참여한다.			신설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수정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교
대입 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학과(전공) 소개 및 인재상을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수정
		정보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입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입시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대입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입시설명회 및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 구성이 표준화되어 있다.	수정
		대입전형 공개표준안에 따라 전형별 평가기준 및 결과를 다양하게 공개한다.	신설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등에 공개한다.	수정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 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수정
		학생부위주전형은 여러 단계를 거쳐 평가한다.	수정
		학생부위주전형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수정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수정
		서류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 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유지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유지
	회피·배제 제도 운영	회피·배제 해당 교직원은 해당 전형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한다.	수정
		회피·배제 대상 기준 및 방법을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한다.	수정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 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확인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한다.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심의한다.	신설
		서류평가 시 블라인드 위반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심의한다.	신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신설
		서류 및 면접평가 시 가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 및 지원자에게 사전에 블라인드 면접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신설
이의신청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에 대해 교사연수 및 교사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신설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지한다.	신설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신설

다. 평가 내용

평가 내용에서는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전형 설계, 대입전형 운영,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를 대분류로,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등을 중분류로 두고 25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Ⅳ-4>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 내용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교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전형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전형을 개선한다.	신설
		입학전형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전형운영에 반영한다.	신설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신설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전형을 설계한다.	수정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서류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유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면접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설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전형방법 구성에 있어 고교 교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수정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유지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유지
		학생부위주전형은 지원자의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신설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신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활동 경험 및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신설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신설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신설
		학생부위주전형에 표준화된 전형요소(수능 등)를 포함한다.	신설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신설
		전형별 취지에 맞게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을 운영한다.	수정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유지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유지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교
대입전형 운영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설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신설
		학생부위주전형은 공개된 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대로 운영한다.	신설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한다.	신설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한다.	신설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설

#### 라. 평가자 전문성

평가자 전문성에서는 채용 및 임용 계획, 전문성 강화 계획,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을 대분류로,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등을 중분류로 두고 23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IV-5>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초안)\_평가자 전문성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교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입학사정관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신분안정화 등)을 마련하고 있다.	수정
		위촉사정관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지
		외부 공공사정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신설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수정
		입학사정관의 경력 및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유지
		입학관계자의 입학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신설
채용· 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퇴직 시 서약서 작성 및 취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신설
		입학사정관 채용시 사교육 종사경력을 검토하여 운영한다.	신설
		위촉사정관은 전임사정관 대비 적정 수준을 준수하며 위촉한다.	신설
		위촉사정관은 전년도 교육훈련 참여도와 평가역량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대분류	중분류	항목	비고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교사의 기록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신설
		전형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형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운영한다.	신설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다.	신설
		입학홍보 및 상담을 위한 교육을 한다.	수정
		입학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신설
		입학전형 이해 및 전형별 특성을 교육한다.	유지
		입학전형 개선 연구결과를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신설
		입학사정관 직무윤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 등)에 대해 교육한다.	수정
		모집단위별 인재상 및 특성에 대해 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수정
		모의서류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수정
		모의면접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수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수정		

## 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검증

본 연구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대학이 학생부위주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그리고 평가자 전문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가진단 리스트를 바탕으로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의 과정을 거치는 ‘PDCA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자가진단 리스트와 PDCA 활용 모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는 평균 1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입학사정관으로, FGI에 참여한 5명 외에 추가로 5명을 더 선정하여 진행했다(〈표 1-19〉 참고).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에 참여했던 10명의 입학사정관 중에서 4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 추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했다(〈표 1-20〉 참고).

가. 자가진단 리스트 검증

1차 델파이에서는 자가진단 리스트에 제시된 98개 항목 설정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 그리고 소속 대학의 상황에 따른 의견 및 수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타당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낮게 나온 것은 3개 항목이었다.

<표Ⅳ-6> 자가진단 리스트\_타당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온 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타당도 (%)	중요도 (5점)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평가과정 녹화녹음 보존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30.0%	2.60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20.0%	2.90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한다.	50.0%	2.70

우선 ‘평가과정 녹화녹음 보존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라는 항목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가한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에서는 평가과정 녹화녹음, 혹은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혹은 외부 공공사정관 중 하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자가진단 리스트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평가과정 녹화녹음은 선택사항으로 중요도가 낮기에 별도의 매뉴얼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 평가과정 녹화녹음을 진행하며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연구진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이 있다.’로 관련된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 해당 항목을 필수적으로 갖출 사항이 아닌 대학별 선택사항으로 둔다고 하면 타당할 것이라는 응답을 얻었다.

다음으로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팀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집단위가 클 경우, 그에 따라 면접 대상자가 많아지기에 복수의 팀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 여건 등 구조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도 했



다. 오히려 평가팀 간 표준화 과정 또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대학의 현실적 여건 고려 및 교육을 통한 보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항목은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한다.’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운영하면 좋은 사안이지만,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제공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공정성과 관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진 또한 해당 항목이 공정성 확보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와 유사한 고교연계 프로그램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하였다.

1차 델파이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50% 이하로 다소 낮게 나온 항목들과 반대로 타당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3.0 미만(5점 척도)으로 나온 항목들도 있었다. 해당 항목은 총 9개로 다음과 같다.

<표IV-7> 자가진단 리스트\_타당도 혹은 중요도가 낮게 나온 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타당도 (%)	중요도 (5점)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50.0%	3.60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50.0%	3.10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에 대해 교사연수 및 교사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	70.0%	2.90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80.0%	2.90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에 표준화된 전형요소(수능 등)를 포함한다.	60.0%	2.70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30.0%	3.00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한다.	60.0%	2.50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타당도 (%)	중요도 (5점)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0.0%	2.70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외부 공공사정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60.0%	2.90

우선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의 경우 타당도는 50%로 나왔지만 중요도는 3.60으로 높은 편이었다. 대학별 상황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다들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외 논술, 실기, 편입학 등 입학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집중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나 교육 등도 업무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부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로 삼았다. 이에 연구진은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해당 문항을 ‘입학사정관의 주요 업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평가이다’라고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 입학사정관의 업무 범위가 다양해지는 것은 맞지만, 주 근간은 ‘평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며, 필수 항목으로 대학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다음으로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에 대해 타당도가 50%가 나왔다. 중요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녹화면접일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진행하는 대면 면접은 어렵다는 것이다. 면접평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면접평가는 일회성이기에 재평가 및 재심의를 공정성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에서도 해당 내용은 면접 운영에 대한 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여 삭제하였다. 대신 ‘평가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면접평가에서 평가자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문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에 대해 교사연수 및 교사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2.90으로 낮게 나왔다. 그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안내는 교육부 및 단위 교육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결과 보고 및 교사연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

는 대학도 있지만, 자가진단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의 필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대학의 안내가 강제될 부분은 아니라 판단하고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적발과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등)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에 대해서는 타당도는 80%로 높지만 중요도는 2.90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성 확보와 상관없이 매년 해오는 업무라서 리스트에 넣기는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구 내용을 내부인지 외부인지 단순 공개한다는 것인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고교와 공유한다’ 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부위주전형에 표준화된 전형요소(수능 등)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2.70으로 나왔다. 이 항목은 연구진이 앞서 설문조사와 FGI 과정에서 ‘공정성 인식’ 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델파이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 상황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에 따라 의치약학 계열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며, 학생부교과전형에만 적용하기도 하며, 학생부종합전형 전체에 적용하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위주전형에 표준화된 전형요소가 필수가 아닌데, 필수 요소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 또한 해당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에 대해 타당도는 30%로 낮게 나왔다. 중요도는 높지만 현실은 지원자 수에 따라 불가능한 모집단위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여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타당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왔던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같은 차원으로 평가 여건이 모두 다른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문항을 삭제하였다. 대신 ‘평가자 전문성’ 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문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한다.’ 와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 경우 중요도가 2.50와 2.70으로 낮게 나왔다. 해당 문항들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형의 공

정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앞서 타당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왔던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한다.’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같은 차원으로 고교연계 프로그램의 개별 사안에 대한 항목들은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외부 공공사정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에 대해 중요도는 2.90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외부 공공사정관 운영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학의 선택 사항이라는 점,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는 점, 한정적인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는 앞서 타당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왔던 ‘평가과정 녹화녹음 보존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이 있다.’로 따로 제시했던 세 문항을 한 문항으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 외 1차 델파이와 2차 델파이를 통해 일부 항목의 경우 의미의 전달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규정 및 매뉴얼은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점검 내용은 없다는 점 또한 발견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와 ‘2022년 대학입학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용어 점검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각 항목별 대분류와 중분류, 구분에 부합한지 전반적인 체계 점검을 진행했다.

#### 나. PDCA 활용 모델 검증

자가진단 리스트와 함께 진행된 PDCA 활용 모델에 대한 검증은 전문가 1차 델파이에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PDCA 모델을 활용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둘째, PDCA 단계별로 보완점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 셋째, 기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첫째 질문인 “PDCA 모델을 활용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국제기관에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정된 공신력 있는 모델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모델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정된 공신력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

성 확보 모델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형태로 기존의 매뉴얼들이 체크리스트 위주의 자기진단 형태였다면, PDCA 모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확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8)

외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만든 이론적 틀을 차용했다는 점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2)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델이라면 사전 검증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에 적용해 보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전문가10)

지금까지 제시된 공정성 확보 모델은 학생부위주전형 전반에 걸친 표준 모델이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관련된 정책과 운영 지침들을 조합하여 만든 형태였지만, PDCA 모델은 이보다 한 단계 진보한 형태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이 표준화된 모델로 균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각 대학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의 절차와 내용 등을 이해하고 학생부위주전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여러 정책과 환경에서 통용되는 별개 사안을 단순히 조합해서 엮어서 만든 기존의 모형에서 한 단계 진보한 형태라고 판단함. ... 계획-실행-개선-평가라는 이론적 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절차와 평가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입전형에 적합하게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자 전문성, 점검 및 반영 등의 세부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응용한 점에서 연구진의 노력이 돋보임. (전문가3)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시작부터 운영 공통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모든 대학이 이 공통 운영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전형을 운영하여 왔다.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업데이트 되었지만, PDCA 모델을 활용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처럼 전형 전반에 걸친 표준 모델은 아니었다. 여기서 언급된 공정성 확보 모델은 개별 대학에서 각자 재량껏 운영해 온 전형 절차와 내용을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이 표준화된 모형으로 균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5)

대학의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경계가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공통의 목표에 맞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전문가9)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PDCA 모델이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전반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 PDCA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PDCA 모델의 이론적 틀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장기간 반복실행하면서 다듬어간다면 전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계획에 맞는 실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부위주전형은 교육과정의 변화, 지원자 풀의 변화, 대학의 변화 등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PDCA 모델이 학생부위주전형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DCA 모델 자체가 수행하는 일들이 유사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적용이 적절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2)

해당 모델을 활용할 경우 공정성 확보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전형 개선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9)

다년 간 실행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가10)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선에 집중하기 보다는 계획에 맞는 실행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8)

두 번째 질문인 “PDCA 단계별로 보완점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PLAN] 단계의 “평가 절차”에서는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규정 외에도 전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 절차에 대한 계획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의 다른 부서 규정과 대비하여 지나치게 세밀한 영역까지 규정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는 부서 내부 자체 매뉴얼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평가 절차의 계획 단계에서는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규정 외에도 전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2)

평가 절차에 대한 계획이므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목표나 계획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함 (전문가8)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대학 내부의 여건으로 인해 취지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나 매뉴얼로 이를 명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입학사정관 인력관리 규정, 내부 감사 제도 규정, 학외인사 평가 참관,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 규정 등 대학 내에서 다른 부서의 규정 대비해서 지나치게 세밀한 영역까지 규정화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는 부서 내부 자체 매뉴얼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전문가3)

계획[PLAN] 단계의 “평가 내용”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과 ‘대입전형 설계’ 항목의 차이가 불분명하므로 통합하여 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 두 항목을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으로 통합하고 하위 세부 계획항목도 통합 수정하였다.

평가 내용의 경우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과 대입전형 설계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항목의 차이를 잘 모르겠음. 통합해서 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함. (전문가1)

평가 내용의 첫 번째 상위범주인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대입전형 연구’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이라는 의미인지,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설계 및 운영’이라는 의미인지 헷갈린다. (전문가5)

계획[PLAN] 단계의 “평가자 전문성”에서는 평가자의 확보와 운영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채용과 임용의 사전적 의미도 동일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채용 및 임용 계획’ 과 ‘전문성 강화 계획’을 ‘전문성 강화 계획’으로 통합하고, 하위 세부 항목도 통합 수정하였다.

평가자 전문성의 첫 번째 대분류는 평가자 확보 및 운영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및 임용 계획을 평가자 확보 및 운영으로 사용하면 보다 포괄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9)

채용 및 임용 계획'이라는 항목에서 '채용'과 '임용'을 구분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채용과 임용의 사전적 의미도 모두 '사람을 뽑아서 쓴다'이다. 따라서 아래 하위 범주에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계획'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5)

실행[DO] 단계의 “평가 절차”에서는 ‘대입전형 정보 공개’가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에 포함되므로 이 두 항목을 통합하여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으로 수정하고 이의 하위 세부 실행항목에 ‘대입전형 정보 공개’를 삽입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 관리지침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기록물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교육부)의 변경에 따라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 ‘대입전형 정보 공개’를 ‘대입전형 정보 공개 및 보존’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학생부위주전형 투명성 강화방침을 반영하여 대입전형 투명성 운영을 하위 실행항목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실행 내용을 자가진단리스트에 정리하였다.

- 55.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 56. 합격자 사정 및 등록에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검증한다

실행[DO] 단계의 “평가 내용”에서는 ‘대입전형 운영’에 전형 운영과 입학전형 안내가 모두 포함되므로 ‘대입전형 운영’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전형운영에는 전형요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 운영’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의견에 따라 하위 세부실행항목의 명칭을 수정하고, 다른 하위 세부실행항목인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는 그대로 통합하였다.

전형운영은 전형요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 운영’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전문가5)

실행[DO] 단계의 “평가자 전문성”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 채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합하여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으로 수정하고 하위 세부실행항목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윤리성 교육과 전문성 강화교육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리스트의 내용 구분에 맞추는 것이 적절



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하위 세부실행항목인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을 입학사정관 직무윤리와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으로 세분화하였다.

Plan 단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용’과 ‘임용’을 ‘채용’으로 통일하고,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을 명시하여 ‘입학사정관 채용 및 평가자 구성’으로 기술하고, 하위범주도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운영’이 더 적합해 보인다. (전문가5)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에서 윤리성 교육과 전문성 강화교육을 중분류에서 구분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가 필요함. 현재 대분류와 중분류의 숫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중분류는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3)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의 중분류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을 구분하여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는 교육으로만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입학사정관 윤리성 확보, 평가자 전문성 강화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중분류를 설정하면 자가진단 리스트의 내용 구분도 더 적절할 것 같다. (전문가9)

평가[CHECK] 단계의 “평가 절차”에서는 실행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계획대로 실행했는지와 성과를 달성했는지의 평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시했던 사항이 적절하게 실행했는지를 평가단계에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으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운영 계획 및 절차 점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실행 단계의 평가 절차에 있는 중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여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추후 제안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PDCA 구조 모델의 단계별 지표 근거자료에 정리하였다.

평가단계가 앞 단계의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라면 앞서 실행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평가하는 것과 레벨을 맞출 필요가 있을 듯함. (전문가1)

계획대로 실행했는지와 성과를 달성했는지의 평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시했던 대분류, 중분류가 적절하게 실행했는지 평가단계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전문가9)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 절차의 각 단계별 점검 필요 (전문가8)

평가[CHECK] 단계의 “평가 내용” 에서도 실행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고교교육과정 기반 평가 사항 점검’ 이라 명명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고교교육과정 기반 평가사항을 점검하고, 평가의 내용이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단계의 의미로 대입전형운영 계획 및 절차 점검의 평가항목을 조금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입전형 설계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전형에 따라 활용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계획에 맞춰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에서 고교교육과정 기반 평가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의 내용이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에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단계의 의미로 대입전형운영 계획 및 절차 점검의 평가 항목을 조금 세분화하여 대분류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전문가9)

평가[CHECK] 단계의 “평가자 전문성” 에서도 실행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평가자 채용 및 교육·훈련 점검’ 이라 정의한 것처럼 이 사항의 점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점검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임입학사정관 수, 정규직 비율, 1인당 평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입학사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누가 점검 할 것인가,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점검하여야 함. (전문가8)

채용 외 추가적으로 전임입학사정관 수, 정규직 비율, 1인당 평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입학사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2)

개선[ACT] 단계의 “평가 절차”, “평가 내용” 및 “평가자 전문성” 모두 계획(P)-실행(D)-평가(C)의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과 함께 내외부 점검 및 연구 결과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계획(P)의 평가 절차 단계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모두 개선(A)의 대입전형운영의 개선안 도출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대분류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중분류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전문가9)

실제 활용 가능한 개선안 도출 필요, 구체적인 전형운영 전과정의 개선안 도출 필요, 내부 외부 점검 결과 반영, 평가 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 반영 (전문가8)

기타 의견으로는 PDCA 모델과 자가진단 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과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자가진단 리스트’ 는 공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도구로써 그리고 대입전형의 운영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대학에서의 전형 평가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형 운영과 평가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이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과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대학입시의 공정성 이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및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자가진단 리스트’는 공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도구로써 대학이 대입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PDCA 모델을 활용한다면 입학부서에서 대입전형 운영 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가 변화되고, 대학에서는 전형 내 평가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2)

대입의 공정성 확보가 단순히 대학만의 몫은 아니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과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9)

공정성 확보모델의 운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실행-평가-개선이 필요하므로 운영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에 기반을 둔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평가단계에서의 항목들은 평가보다는 점검의 의미가 더 적정하므로 대학입시에서 하는 평가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 절차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형식적 과정 보다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9)

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모델은 성과 모형이라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임을 기반에 두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8)

PDCA에서 평가(CHECK) 단계 용어가 실제 대상을 평가(evaluation/review)하는 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 특히 대입 관련 사항에서 평가는 실제 이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평가보다는 점검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전문가1)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 방안에 마련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며, 운영하는 입장을 배려하여 자세한 자가진단 리스트 제시보다 축약된 리스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노력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단계적으로 각종 규정이나 절차, 매뉴얼 등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10)

평가의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촘촘하게 잘 계획하였으나, 지나치게 자세한 리스트가 제시가 되면, 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과 인원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운영될 여지를 줄 수 있어서, 비슷한 부분은 묶어서 제시하는 등 리스트에 대한 전반적 축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전문가3)

전문가 1차 토크이 결과에 따라 조정된 PDCA 모델 변형안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비대면회의(ZOOM)를 통해 2차 토크이를 진행하였다. 1차 토크이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 PDCA 모델 변형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보완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PDCA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이며 타당한 모델이라 생각되고, PDCA 모델의 선순환 체계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PDCA 모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의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제언을 강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부패방지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마다 사정과 실정이 다르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운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 가.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

연구진은 전문가 델파이 검증을 통해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자가진단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자가진단 리스트 각 항목별로 ‘계획[PLAN]’에 해당하는지, ‘실행[DO]’에 해당하는지 구분해두었다.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묻는 항목들이 ‘P’에 해당하며, ‘P’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D’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별 상황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혹은 ‘선택’을 각 문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리스트 개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IV-8>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개관

구분	대분류	중분류	PD CA	문항 수 (필수/선택)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체계 구축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P	5(5/0)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P	4(3/1)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P	5(5/0)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대입전형 운영 계획	P	7(6/1)
		대입전형 규정 및 매뉴얼	P	7(6/1)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대입전형 정보 공개 및 보존	D	8(7/1)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D	6(6/0)
		회피·배제 제도 운영	D	3(3/0)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D	6(5/1)
		이의신청 절차 운영	D	3(3/0)
		대입전형 투명성 운영	D	2(1/1)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P	5(4/1)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P	8(8/0)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	D	7(5/2)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D	3(2/1)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P	3(2/1)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P	3(3/0)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운영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D	5(3/2)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D	3(3/0)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D	14(14/0)

구분	대분류	중분류	PD CA	문항 수 (필수/선택)
총 문항수				107(94/13)

이렇게 마련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는 ‘PDCA 모델’ 분류에 따라 ‘평가[CHECK]’ 과정에서 각 대학의 현황에 맞게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대학이 각 문항 내용을 점검하면서 운영 여부에 따라 ‘운영’과 ‘미운영’ 중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운영하고 있을 경우 ‘완비 운영/ 보완 필요’ 중에서 고르게 하고, 미운영의 경우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하단에 ‘대학 자체 점검 사항 기술’란을 두어 대학에서 추가로 점검할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의 분류체계에 따라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자 전문성’ 각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 절차’는 리스트 초안(〈표 IV-3〉 참고)과 비교했을 때, 최종안에서는 대분류가 4개에서 3개로 통합되고, 중분류는 10개에서 11개로 변경되었다. 대분류는 ‘대입전형 운영 체계 구축,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으로 하였다. 우선 ‘대입전형 운영 체계 구축’은 PDCA 중에서 ‘계획[PLAN]’에 해당한다.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을 하위 항목으로 두었다. ‘대입전형 운영 체계 구축’의 문항은 총 14개로 필수는 13개, 선택은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9>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평가 절차: 대입전형운영체계구축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조직도 및 업무 분장 관련 규정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규정(조직, 인사, 전형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다.	필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필수				
	입학사정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필수				
	입학사정관의 주요 업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평가이다.	필수				
	입학사정관 인력관리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필수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대입 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이 있다.	선택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필수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다.	필수				
	이의신청처리 규정에는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필수				
내부 감사 제도 및 규정	대학 내부에서 자체 감사 기관을 통한 입시 사후 감사제도가 있다.	필수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절차를 규정화하고 있다.	필수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이 있다.	필수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직무윤리에 위배되는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필수				

■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에 해당하는 것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이 있다.’ 이다. 기본적으로 대입전형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짜는 것, 내부감사제도 및 이와 관련한 규정을 완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필수가 아닌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다음은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항목으로, PDCA 중에서 ‘계획[PLAN]’에 해당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대입전형 운영 계획, 대입전형 규정 및 매뉴얼’을 두었다.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의 문항은 총 14개로 필수는 12개, 선택은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0>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대입 전형 운영 계획	모든 평가기준은 전형 시행 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서화한다.	필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평가대상 1인당 최소평가 소요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다.	필수				
	평가팀 편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필수				
	합격자 선발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필수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필수				
대입 전형 규정 및 매뉴얼	면접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필수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필수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등)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				
	학칙에 부정입학(서류 위조,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취소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				
	입학전형 운영 전반의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필수				
	외부인사가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참여한다.	필수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필수				
합격자 사정 및 등록에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필수					

■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와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등)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다.

대입전형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이나 평가팀 편성,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 등의 대학의 상황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다만 대학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 규모와 방식, 전형요소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텔파이에서도 대학마다 전형 운영을 위한 환경이 다르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1인당 최소평가 소요시간의 필수화는 적절하지만 최대 평가인원은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는 선택 문항으로 두었다.

대입전형 규정 및 매뉴얼 관련 항목은 공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회피·배제, 부정입학 처리, 데이터 검증, 각종 공정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부분의 문항은 필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대입전형자료의 기재 금지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델파이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인해 자기소개서는 폐지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만 남은 시점이며, 이는 고교 교사의 작성 자료이지 학생이 작성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입전형자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제시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이에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등)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를 신설하고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 여부가 다르기에 선택 문항으로 두었다.

다음은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항목으로, PDCA 중에서 ‘실행[DO]’ 에 해당한다. 하위 항목으로는 ‘대입전형 정보 공개 및 보존,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회피·배제 제도 운영,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을 두었다.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의 문항은 총 28개로 필수는 25개, 선택은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1>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대입 전형 정보 공개 및 보존	학과(모집단위) 소개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선택				
	입시설명회 및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 구성이 표준화되어 있다.	필수				
	대교협이 「대입전형평가 기준 공개 표준안」을 준수하여 전형별 평가기준 및 결과를 공개한다.	필수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을 준수하여 모집요강에 안내한다.	필수				
	대교협,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 또는 교육청 등에 전형 및 입시결과자료를 공개한다.	필수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합격자 발표(발표방법, 유의사항 등)를 진행한다.	필수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합격자 등록 업무(이중등록금지, 미등록 총원 등)를 수행한다.	필수				
	대학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기록물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필수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다수- 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필수				
	학생부위주전형은 여러 단계를 거쳐 평가한다.	필수				
	학생부위주전형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필수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필수				
	서류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 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고교에 실사 요청을 한다.	필수					
회피· 배제 제도 운영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필수				
	회피·배제 해당 교직원은 해당 전형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한다.	필수				
	회피·배제 대상 기준 및 방법을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한다.	필수				
블라인 드 및 기재금 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확인을 평가위원에게 안내한다.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심의한다.	필수				
	교육부의 블라인드 처리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선택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등), 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필수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수험생에게 가번호를 부여한다.	필수				
평가위원에게 서류 및 면접평가 전에 블라인드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필수					
이의 신청 절차 운영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지한다.	필수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필수				
	이의신청 발생 시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필수				
대입 전형 투명성 운영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 공공시정관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선택				
	합격자 사정 및 등록에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검증한다.	필수				

■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3개 문항으로, ‘학과(모집단위) 소개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의 블라인드 처리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그리고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 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이다.

대입전형 정보 공개 및 보존과 관련해서 모집요강 등을 통한 입학전형 안내는 중요성이 크지만, 학과(모집단위)에 대한 안내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학과(모집단위) 소개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는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과 관련해서 고교의 처리 과정과 대학의 확인 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계획’ 단계인 ‘대입전형 운영 계획 수립’ 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선택 문항으로 구성한 바 있다. 이에 ‘실행’ 단계에서도 ‘교육부의 블라인드 처리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로 수정 및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대입전형 투명성 운영과 관련해서도 ‘계획’ 에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도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 녹음, 외부 공공사정관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를 두고 필수가 아닌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다음은 ‘평가 내용’ 으로, 리스트 초안(표 IV-4)과 비교했을 때, 최종안에서는 대분류가 4개에서 2개로 통합되었고, 중분류 4개는 동일하다. 대분류는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대입전형 운영’ 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는 PDCA 중에서 ‘계획[PLAN]’ 에 해당한다.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을 하위 항목으로 두었다.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의 문항은 총 13개로 필수는 12개, 선택은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2>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대입 정책 및 입학 전형 분석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필수				
	전형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전형을 개선한다.	필수				
	입학전형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전형운영에 반영한다.	필수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고교와 공유한다.	선택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전형을 설계한다.	필수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구성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반영한다.	필수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반영한다.	필수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전형방법 구성에 있어 고교 교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필수				
	서류평가에서 평가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필수				
	전형요소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필수				
	전형방법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필수				
	전형별 취지에 맞게 지원자격을 설정한다.	필수				
	전형별 취지에 맞게 지원자격 제출서류를 정한다.	필수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고교와 공유한다.’ 이다.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항목의 대부분은 필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형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등의 전형설계의 경우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교, 교육청, 학부모 등 외부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고교와 공유한다.’ 는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다음으로 ‘대입전형 운영’ 은 PDCA 중에서 ‘실행[DO]’ 에 해당한다.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를 하위 항목으로 두었다. ‘대입전형 운영’ 의 문항은 총 10개로 필수는 7개, 선택은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3>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중분류	항목	필수/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필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활동 경험 및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필수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필수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선택				
	지문제시형이나 문제풀이형 면접의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선택				
	대교협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검증한다.	필수				
입학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필수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선택				
	학생부위주전형은 공개된 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대로 운영한다.	필수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지문제시형이나 문제풀이형 면접의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그리고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다.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과 관련해서 고교교육과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지침과 관련한 사항들은 필수항목으로 두었다. 다만 대학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모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면접과 관련한 사항은 선택으로 두고자 했다. 이에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와 ‘지문제시형이나 문제풀이형 면접의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와 관련하여 공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는지, 대상별 필요한 전형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지 등은 필수 문항으로 구성했다. 합격사례 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의 복제나 우수 사례 표본화 등의 우려도 있기에 필수로 두는 것은 대학별 상황에 맞춰

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는 선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자 전문성’은 리스트 초안(〈표 IV-5〉 참고)과 비교했을 때, 최종안에서는 대분류가 4개에서 2개로 통합되고, 중분류는 4개에서 5개로 변경되었다. 대분류는 ‘전문성 강화 계획,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운영’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전문성 강화 계획’은 PDCA 중에서 ‘계획[PLAN]’에 해당한다.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을 하위 항목으로 두었다. ‘전문성 강화 계획’의 문항은 총 6개로 필수는 5개, 선택은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4>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입학 사정관 인력 운영 규정 마련	입학사정관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신분안정화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				
	위촉사정관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필수				
	입학사정관 채용 시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선택				
입학 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필수				
	입학사정관의 경력 및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필수				
	입학관계자의 입학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필수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입학사정관 채용 시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이다. 입학사정관 인력 운영 규정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위주 전형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해당 대학에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환경 속에 놓여있느냐일 것이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FGI 및 델파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사항 또한 입학사정관(전임)의 신분안정화에 있었다. 이에 해당 문항은 필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전임이 아닌 위촉사정관, 즉 선발하는 모집단위(학과) 소속 교수로 구성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과 해촉의 규정

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학사정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상황(지역, 규모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일괄될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경력직 사정관을 채용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신입사정관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을 고려하여 선발하기를 권고하는 의미로, ‘입학사정관 채용 시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를 선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은 PDCA 중에서 ‘실행[DO]’ 에 해당한다.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을 하위 항목으로 두었다.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의 문항은 총 22개로 필수는 20개, 선택은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IV-15>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자가진단 리스트(2023)\_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입학 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퇴직 시 서약서 작성 및 취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필수				
	입학사정관 채용은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른다.	선택				
	입학사정관 채용 시 사교육 종사경력을 검토한다.	선택				
	위촉사정관은 전입사정관 대비 적정 수준을 준수하며 위촉한다.	필수				
	위촉사정관은 교육·훈련 참여도와 평가역량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필수				
입학 사정관 직무 윤리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 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다.	필수				
	입학사정관 직무윤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 등)에 대해 교육한다.	필수				
	대교협이 「입학사정관표준윤리강령」을 공유하고 서약한다.	필수				
전문성 강화 교육· 훈련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교사의 기록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해하는 교육을 한다.	필수				
	전형자료 분석 및 전형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	필수				
	입학홍보 및 상담을 위한 교육을 한다.	필수				
	고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한다.	필수				
	입학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한다.	필수				
	입학전형 이해 및 전형별 특성을 교육한다.	필수				
	입학전형 개선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필수				
	모집단위별 인재상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필수				
모의서류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평가 특성을 파악한다.	필수					

중분류	항목	필수 / 선택	운영		미운영	
			완비 운영	보완 필요	구축 고려	해당 없음
전문성 강화 교육 훈련	서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서류평가를 진행한다.	필수				
	면접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면접평가를 진행한다.	필수				
	서류평가에서 평가자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필수				
	면접평가에서 평가자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필수				

■ 대학 자체 점검사항:

선택 문항은 ‘입학사정관 채용은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른다.’와 ‘입학사정관 채용 시 사교육 종사경력을 검토한다.’이다.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과 관련하여 퇴직 시 모니터링 현황, 위촉과 전입사정관의 비율 준수, 평가역량을 고려한 위촉사정관 위촉 등은 필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앞서 ‘입학사정관 인력 운영 규정 마련’에서 채용 기준에 대학별 상황을 고려했던 것처럼 실행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입학사정관 채용은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른다.’와 ‘입학사정관 채용 시 사교육 종사경력을 검토한다.’는 필수가 아닌 선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관련해서는 모두 필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정보보안 서약을 하는 것,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와 같은 직무윤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 그리고 대교협에서 제시한 「입학사정관표준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 등은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과 관련한 문항 또한 모두 필수로 구성하였다. 크게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로 나뉜다. 우선 대입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고교 교육과정 이해,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교육은 입학사정관이라는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입학정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속 대학의 전형을 이해하고,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연구 내용을 이해하며 나아가 전형자료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아니라 훈련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 문항 14개 모두 필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나. PDCA 활용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모델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변형안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과 통합 그리고 삭제와 추가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공정성 확보 모델로 수정되었다. 계획-실행-평가-개선의 전 단계에 걸쳐 수정-통합과 삭제-추가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계획-실행 단계’에서만 수정-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계획-실행 단계가 대학입학전형 특히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과정으로서 이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전형결과가 산출되는 학생부위주전형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PLAN]에서 “평가 절차”는 ‘대학입학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를 ‘대학입학전형 운영 체계 구축’으로 변경하여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는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나, 세부 계획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은 ‘대학입학전형 운영 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전형 운영 계획 및 규정 전반적인 내용을 세부 계획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평가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과 ‘대학입학전형 설계’를 ‘대학입학전형 연구 기획 및 설계’로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 세부 계획항목도 통합 수정하였다. “평가자 전문성”도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계획’으로 일원화하였고, 세부 계획항목은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과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으로 재구성하였다.

실행 단계[DO]에서 “평가 절차”는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통합 수정하였다. 삭제된 ‘대입전형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세부 실행항목에 삽입하고, 대입전형 투명성 운영을 세부 실행항목에 추가하였다. “평가 내용”에서도 ‘대학입학전형 운영’으로 통합하고, 세부 실행항목을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과 ‘입학전형 평가기준 및 결과 안내’로 통합 수정하였다. “평가자 전문성”에서도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으로 통합하고, 세부 실행항목으로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으로 통합 수정하였다.

평가 단계[CHECK]와 개선 단계[ACT]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입학전형 PDCA 구조 모델 변형안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수정 보완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V-1>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

이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은 ISO 37001(2016)의 계획-실행-평가-개선(Plan-Do-Check-Act, PDCA) 4단계 환류 구조를 유지하도록 구성하

였을 뿐 아니라 학생부위주전형의 특성을 살려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 전문성 그리고 점검 및 반영으로 구분하여 각각 순환 환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공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되고, 실행된 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적용한 개선안을 만들고, 이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시행 계획을 세우는 환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뿐 아니라 대학입시정책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변화된 환경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환류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순환 환류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뿐 아니라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 모델을 더 구체화하고, 이해 증진을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 양식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PDCA 구조 모델의 단계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근거자료 목록은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PDCA 구조 모델을 객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별 지표의 근거자료 목록이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고, 대학의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진이 제시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PDCA 구조 모델의 단계별 지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IV-16>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PDCA 구조의 단계별 지표 근거 자료

---

### 계획 [PLAN]

---

1.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절차’ 계획
    - 1-1. 대학입학전형 운영 체계 구축
      - 1) 대학 및 입학처(본부)의 조직도, 업무분장 등 관련 규정
        - 가.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규정(조직, 인사, 전형 관련 규정 등)
        - 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관련 업무분장
        - 다. 입학사정관 업무분장 및 인력관리 규정 또는 매뉴얼
      - 2)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 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관련 매뉴얼
-

- 
-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녹음, 외부공공사정관 등
  - 나. 이의신청처리 절차 관련 표준화 매뉴얼
    - 이의신청처리 규정(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등)
  - 3) 내부감사 관련 규정
    - 가. 대학입학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관련 자체점검 및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
    - 나.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 규정
    - 다. 입시부정 발견시 내부 신고 절차 및 처리 관련 규정
    - 라. 직무윤리 위반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처리 관련 규정
  - 1-2. 대학입학전형 운영 계획 수립
    - 1)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계획
      - 가. 학생부위주전형 전형 절차,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
      - 나.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 배정, 평가위원 1인당 평가인원 및 평가시간 관련 근거
      - 다. 제출서류 서식, 면접/토론 절차 및 방법 관련 근거
      - 라. 다수-다단계 평가 체제 구축 및 운영 관련 근거
      - 마. 서류·면접 평가 결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심의기구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
    - 2) 대학입학전형 규정 및 매뉴얼
      - 가. 입학전형 운영 전반의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나.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다. 대학입학전형 관련 기록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학기록물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대학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 라. 부정입학(서류 위조, 허위 작성 등) 확인 시 입학 취소 관련 학칙
      - 마.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
  -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내용’ 계획
    - 2-1. 대학입학전형 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자료
      - 1) 대교협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 2) 전형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차년도 전형 개선
      - 3) 입학전형 결과 분석의 차년도 전형운영 반영
      - 4) 합격자 사정 및 등록 절차에 따른 데이터의 검증하는 절차 마련
      - 5)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설계
    - 2-2.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관련 자료
      - 1) 서류·면접평가 기준에 고교교육과정 및 활동 반영
      - 2) 고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설계 및 고교교사 자문
      - 3) 서류평가에서의 평가자 신뢰도 제고 시스템 구축
      - 4) 전형요소 및 방법에서 지원자 역량평가 기준 마련
      - 5) 전형별 취지에 맞는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설정
-

---

---

### 3.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의 전문성’ 계획

#### 3-1.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 1) 전임입학사정관 인력 운영 관련 규정(신분안정화 등)
- 2) 위촉사정관 위촉·해촉 및 운영 등 관련 근거
- 3) 입학사정관 채용에서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3-2.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자료

- 1) 입학사정관의 전형자료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
- 2) 입학사정관의 경력 및 역량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
- 3) 입학관계자의 입학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  
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교육훈련 계획  
나. 입학사정관의 경력 및 역량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평가자 업무, 고교 교육과정, 인재상 및 전형별 특성 평가 등  
다. 입학관계자의 입학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

---

## 실행 [DO]

### 4.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절차’ 이행

#### 4-1.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공개 및 보존

- 1) 입시설명회 및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 구성의 표준화
- 2)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평가 기준 공개 표준안’ 준수
- 3)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모집요강 공통기재사항 안내
- 4)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한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업무 진행
- 5) 대학입학전형 관련 기록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학기록물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교육부)에 따른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설정·운영

#### 4-2. 학생부위주전형의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 1) 다수다단계 평가 체계 운영
- 2)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 시간의 적절한 운영
- 3) 서류·면접 평가자별 편차 발생에 따른 재심 운영 규정 이행
- 4)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고교에 실사 요청

#### 4-3. 회피·배제 제도 운영

- 1) 회피·배제 대상 기준 및 방법의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
- 2) 회피·배제 제도 운영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

#### 4-4.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을 평가위원에게 공지
- 2) 교육부의 블라인드 처리지침에 따른 블라인드 위반사례의 확인 및 처리
- 3) 평가위원에게 서류 및 면접평가 전에 블라인드 유의사항을 공지

#### 4-5.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

---

- 
- 1)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지
  - 2) 이의신청처리 절차 운영
- 4-6. 대학입학전형 투명성 운영
- 1) 대학입학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매뉴얼에 따라 운영
  - 2) 합격자 사정 및 등록에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검증
5.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내용’ 이행
- 5-1. 대학입학전형 운영
- 1) 전형별 취지에 따른 운영
    - 가.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및 규모를 고려한 평가
    -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지원자 활동 경험 및 과정에 대한 역량 평가
    - 다.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 진행
    - 라. 지문제시형 및 문제풀이형 면접 내용의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 마. 대교협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 준수
    - 바.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검증
- 5-2. 대학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 1)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정보 안내
  - 2) 학생부위주전형의 공개된 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대로 운영
6.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의 전문성’ 이행
- 6-1.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 1) 입학사정관 채용 시, 교육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고려한 기준 이행
  - 2) 위촉사정관의 전임사정관 대비 적정 수준 준수 및 위촉
  - 3) 위촉사정관의 전년도 교육·훈련 참여도와 평가역량을 고려한 위촉
- 6-2.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교육 진행
- 1)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 시, 정보보안 등 서약서 징구
  - 2) 입학사정관 직무윤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 등) 교육 진행
  - 3) 대교협 「입학사정관표준윤리강령」의 공유 및 서약서 징구
- 6-3.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 1) 고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 2) 입학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3) 모집단위별 인재상 및 특성에 관한 교육
  -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해를 위한 교육
  - 5) 전형자료 분석 및 전형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6) 입학홍보 및 상담을 위한 교육
  - 7)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 훈련
-

---

## 평가 [CHECK]

---

7. 대학입학전형 운영 계획 및 절차 점검
  - 7-1. 대학입학 정보 공개 및 보존 성과 점검
  - 7-2. 학생부종합전형의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성과 점검
  - 7-3. 회피·배제 제도 운영 성과 점검
  - 7-4.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성과 점검
  - 7-5.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성과 점검
  - 7-6. 대학입학전형 투명성 운영 성과 점검
  
8. 고교교육과정 기반 평가 사항 점검
  - 8-1. 전형별 취지에 맞는 전형 기획 및 운영 점검
  - 8-2. 대학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점검
  
9.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점검
  - 9-1.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점검
  - 9-2.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교육 및 서약서 징구 관련 점검
  - 9-3.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교육 운영 점검
  
10. 점검 및 반영
  - 10-1. 대학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 발표
  - 10-2. 내부감사 결과 처리
  - 10-3. 대교협 개선사항 및 이행 점검

---

## 개선 [ACT]

---

11. 대학입학전형 운영의 개선안 도출
  12. 고교교육과정 연계 제고 개선안 도출
  13. 평가자 채용 및 교육훈련 개선안 도출
  14. 점검 및 반영
    - 14-1. 대학입학전형 개선 연구결과 반영
    - 14-2. 내부감사 지적사항 반영
    - 14-3. 대교협 지적사항 반영
-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대학입학전형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대학입학전형의 관문을 통과해서 대학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들의 대입정책은 사교육 감소, 공교육 활성화,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구성원을 선발하고 충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학벌사회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에도 이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기에 국민은 대학입학전형이 공정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이 대학의 구성원 선발이라는 측면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의해 ‘공정성’에 관한 책무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대학은 입학전형의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관련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입학전형에서 확보해야 할 공정성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가시화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입학전형 주체인 학생(입학전형을 경험한 대학생), 고교생 학부모, 고교 교사, 입학관계자 등의 대입전형 공정성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대학입학전형 주제들에게 설문과 FGI를 실시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입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재규정하고, 개별 대학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생부위주전형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PDCA(Plan-Do-Check-Act) 구조를 활용한 운영 모델을 구성하였다. 셋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경력10년차 이상의 입학사정관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자가진단 리스트와 PDCA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입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FGI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정성’이란 정부가 학생에게 차별 없이 대입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운 후,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외부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학생부 항목 삭제 및 내용 축소를 제안하고 있고, 전형 시기별, 유형별 선발 비율에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의 입학전형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평한 기회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대학입학전형에서 ‘정성평가’ 개념이 적용되었다.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지원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는 도입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음과 평가자의 전문성이 나, 평가자료(학교생활기록부)의 미비 등으로 문제제기를 받았다. 이후 10여년 동안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하면서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적 장치와 평가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평가자료의 상향평준화 등으로 주요 대학입학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의 신뢰, 학교간 또는 교사간 편차, 학생부종합전형의 복잡성, 평가자의 전문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고교생활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따라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라고 규정하였다. 고교생활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것을 평가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 내용과 기준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평가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평가자의 눈높이를 맞추며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에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그리고 평가자 전문성으로 대분류하고,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중분류로 제시하였다. 자가진단 리스트는 총 107개 항목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 94개 항목과 선택적으로 구축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선택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각 영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여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의 절차를 사전에 규정화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구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축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정성 확보를 하는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가진단 리스트와 PDCA모델에 대해 델파이를 진행했을 때, 전문가들은 출범하는 정부마다 제시하는 대입정책으로 대학의 입학전형의 중심이 변할 수 밖에 없는 것과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대학의 여건이 매우 상이하

기 때문에 공정성에 관한 보편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그렇기에 개선점 또한 해당 대학에서 판단하고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 구성 등의 상황이 반영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입학전형에서 확인하고 마련해야 하는 보편적인 공정성과 해당 대학의 상황이 적용되는 특수한 공정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가진단 리스트 문항을 점검하면서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과 ‘미운영’ 중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성 확보 리스트에서는 필수라 하더라도 대학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는 미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을 경우를 다시 ‘완비 운영’ 또는 ‘보완 필요’로 구분하여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운영되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해당 항목에 대해 미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축 고려’ 또는 ‘해당 없음’을 제시하여 현재는 미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을 고려하고 이를 구축하려 하는지의 여부 또는 해당 항목이 대학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없다고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별 하단에 ‘대학 자체 점검 사항 기술’이라는 항목을 두어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기본에 충실한 자가진단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해당 대학의 공정성 확보 노력과 상황을 살피고, 향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은 해당 대학만의 매뉴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후 보편적인 공정성 확보 항목을 통해 학생부위주전형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대학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마련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들의 특수한 공정성이 보편적 공정성과 대치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되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이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관련 인증제로 활용된다면, 지난 15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는 않는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시비가 일단락될 수 있다.

## 2. 제언

본 연구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과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자가진단 리스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 말하자면 대학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입제도에 대한 공정성은 전형의 취지별 주체별, 상황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전형에서 형식적 차원에서의 공평함이나 객관성이 내용적 차원에서의 타당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혼자서 응시하는 수능이 3년간 고교 활동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객관적 결과 평가만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보다는,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에서 학생이 중심이 된, 학생을 위한 대입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이 각 전형의 취지에 맞게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대학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학이 정부 규제로 인해 수동적이고 경직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유연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전형방법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입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사교육 영향력 축소, 학교 및 가정 배경 간의 차이 축소, 외부의 영향력 배제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및 기재 내용 범위가 축소 또는 삭제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도 권장사항보다는 금지사항이 늘어났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모여 학생부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하여 고교와 대학 모두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넷째, 학생부위주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 자격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평가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키우고 국가자격시험 등을 통해 인증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 자격화 제도를 통해 대입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춘 입학사정관에 대한 신분 안정화 정책 또한 필요하다. 평가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이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의 평가인증팀에서 대학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대입공정성지원팀’에서 국제기구의 인증절차와 같은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공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고교교육지원사업 지원자격 부여 조건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 참고문헌

- 장기수(2018).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 분석.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1), 25-53.
- 장기홍(2020).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32(1), 1-28.
- 장인구(2012).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준거와 최종평가와의 관계: G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1-23.
- 강태중·송혜정·김진경(2012).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전형의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13.
- 강태중·이성호·김동민(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
- 건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2013). 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건국대학교.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 교육부(1999).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내 자료집.
- 교육부(200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조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2019). 청탁금지법 해설집  
[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35)
- 국민권익위원회(2018).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국민권익위원회(2021).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33위, 역대 최고 성적. <http://blog.naver.com/loveacrc/222222867317>
- 권수현(2017). 입학사정관제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윤리. *사회와 철학*, (33), 129-156.

- 김무봉 외(2018).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진단도구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 김미숙·김기민(2020). 존 롤스의 분배정의론에 근거하여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발전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239-1260.
- 김성천·최현섭·박종희(2006). 학생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대한 교사와 대학입학 관계자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14(1), 233-259.
- 김신일(2006).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7-32.
- 김재웅(2019).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전형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 [KEDI] 한국교육, 46(1), 1-30.
- 김정근(2020).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139-179.
- 김정완(2020). 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7(1), 121-148.
- 김천기(2019). 대학 입학사정관전형의 편향성: 서울대 입학전형에서의 잠재력, 환경, 다양성 교육의 의미 구성. 교육사회학연구, 29(3), 37-59.
- 김평원(2018).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개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4(3), 105-126.
- 김한솔(2019).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53-77.
- 김현수(2020). 현행 입시 및 각종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방지. 부패방지연구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제3권 제2호, 69-96쪽.
- 김희용 외(2013).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매뉴얼. 건국대학교.
- 김희용(2011).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1), 21-50.
- 남현우(2006).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신등급 산출방안-HLM 을 이용한 학교효과성측정을 바탕으로. 교육평가연구, 19, 39-50.
- 노성(2021). 공정성 강화의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 131-150.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2017).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 대선핵심 아젠다. 동국대학교(2018).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진단도구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 문윤지·김진(2018).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 P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1. 교육문화연구, 24(6), 117-144.
- 박남기·김주후·박선형·이호섭·Jacob, W. J.(2008).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RR 제 2008-4-2863 호.
- 박승구·이재연·박승배(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7(1), 95-110.
- 박종섭(2019). 대입 정성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0(3), 1667-1681.
- 박준영·양현상(2019). 투명한 방위산업을 위한 국제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추진 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480, 110-117.
- 박찬호·이진희(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37(2), 151-193.
- 박혜경(2017). 대학의 학생선발권 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29(2), 71-94.
- 박혜경·신상명(2013). 대학교 학생선발권의 범위와 한계.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25(2), 53-80.
- 박혜림(2009).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21-46.
- 손희권(2005).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23(4), 269-298.
- 안선희·정일환·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안선희(2013).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4), 45-78.
- 안선희(2018). 대입제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연계성 분석: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4(1), 57-92.
- 안선희(2018).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교육문화연구(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4(6), 87-116.
- 양성관·김택형(2008). 대입 자율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연구, 14(3), 145-170.

- 양성관(2019).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대입전형 공정성’ 재검토. *교육행정학연구*, 37(4), 23-57.
- 오정은(2012). 입학사정관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안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35), 139-164.
- 윤소정 · 전보라 · 김희용(2015). 국내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태와 확보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7(1), 74-82.
- 이광현 · 안선희 · 이수정(2019). 학생부종합전형 쟁점 분석: 학종 입학생들의 소득 수준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32-157.
- 이광현(2018).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교육사회학연구*, 28(3), 57-95.
- 이미라 · 주삼환(2006). 대학운영의 자율화 방안. *교육연구논총(충남대학교교육연구소)*. 제27권 제1호, 69-93쪽.
- 이수정(2018).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923-944.
- 이재연 · 양정호(2012). 서울시 거주지역 특성별 진학대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0(2), 189-214.
- 이혜정(2019). 교육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숙명여고 사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
- 장대현(2020). 부패방지의 솔루션, ISO 37001. *한국컴플라이언스아카데미*.
- 전병유 · 정준호(2020). 소득계층별 대학입시전형 선택과 입학 성과에 관한 연구. *동향과전망* 108.
- 전병호(2020).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 및 인지도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16(2), 95-104.
- 정영화(2006).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8(2), 183-199.
- 정일환 · 김영환(2009).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법적 고찰 : 그 위법사유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21(2), 299-323.
- 조창훈(2017).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
- 조창훈(2019). 글로벌 윤리규범 ISO 37001의 이해와 부실 인증 리스크. *윤리경영연구*, 18(2), 147-168.



최지연 · 이상봉 · 정길호 · 강미영(2018).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표준과 표준화 연구, 8(1), 79-1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8).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09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2009년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2010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2010년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2011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선도대학)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2012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선도대학)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2013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2014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 2015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 2016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2017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보고서 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0).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0).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 2022년 대학입학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2).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안내.

한국인정지원센터(2019). ISO 37001 제정배경 및 도입현황.

한국인정지원센터(2022). 인증기관현황. <http://www.kab.or.kr/page/s0104.php>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2).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

# 부록 1

## 설문지

### 1.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지

####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설문(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학생부위주전형 자료 및 평가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학입학전형 설계 및 개선,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건국대학교 지정연구 연구진 드림

※ 설문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팀(02-450-4012, konkukao@konkuk.ac.kr)

####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입니다. 각 항목들을 대입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학교생활기록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수학능력시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학교생활기록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성취 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나) 자기소개서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 면접고사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임기응변 등 언변이 중요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라) 논술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크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선택하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바) 실기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다음은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입니다. 

전형유형		정의	건국대학교 전형 예시
학생부 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KU지역균형전형 학생부 교과 70% + 서류평가 30%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	KU자기추천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논술위주전형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위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일반학생전형 수능 100%
실기/실적위주전형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연기우수자전형 1단계: 학생부 교과 100%(25배수) 2단계: 실기 100%

\* 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전형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정 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 하다
학생부교과전형(교과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서류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교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량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성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실적위주전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 3-가)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전형 유형과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 유형(선택) ☞

\* 이유 ☞

## II.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 4. '평가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전공체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5.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위주전형을 다수-다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지원자 한 명을 여러 명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평가하는 것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6. ‘평가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Ⅲ.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과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자기소개서 개선(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0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출처: 교육부)




\*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small>*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독서활동, 수상경력</smal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추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서류평가/면접평가)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8. 앞으로의 대학입학전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등급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내신 등급/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성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원을 다녀야만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 여러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와 한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 9. 대학입학전형을 경험해 본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입제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및 제언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IV.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  여

\* 입학전형 

- |                               |                                 |                              |
|-------------------------------|---------------------------------|------------------------------|
|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 |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    |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 |
|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 | <input type="radio"/> 실기/실적위주전형 | <input type="radio"/> 기타     |

\* 소속 단과대학 


- |                            |                                 |                                |
|----------------------------|---------------------------------|--------------------------------|
| <input type="radio"/> 문과대학 | <input type="radio"/> 사회과학대학    | <input type="radio"/> 상허생명과학대학 |
| <input type="radio"/> 이과대학 | <input type="radio"/> 경영대학      | <input type="radio"/> 수의과대학    |
| <input type="radio"/> 건축대학 | <input type="radio"/> 부동산과학원    | <input type="radio"/> 예술디자인대학  |
| <input type="radio"/> 공과대학 | <input type="radio"/> KU융합과학기술원 | <input type="radio"/> 사범대학     |

\* 학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졸업 고교 소재지 

- |                          |                          |                          |                          |                          |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대전 |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충남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전남 |
| <input type="radio"/> 전북 | <input type="radio"/> 부산 | <input type="radio"/> 대구 | <input type="radio"/> 울산 | <input type="radio"/> 경남 |
| <input type="radio"/> 경북 | <input type="radio"/> 제주 | <input type="radio"/> 기타 |                          |                          |


\* 졸업 고교 유형 

- |                           |                           |                           |                            |                          |
|---------------------------|---------------------------|---------------------------|----------------------------|--------------------------|
| <input type="radio"/> 일반고 | <input type="radio"/> 자율고 | <input type="radio"/> 특목고 | <input type="radio"/> 특성화고 | <input type="radio"/> 기타 |
|---------------------------|---------------------------|---------------------------|----------------------------|--------------------------|


[개인 정보 동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고자 합니다(선착순 마감 예정). 상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                          |                           |
|--------------------------|---------------------------|
| <input type="radio"/> 동의 | <input type="radio"/> 미동의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은 상품을 수령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입력 예: 01012345678, 가운데 “-” 생략) 

전화번호

\* 또한, 귀하의 응답을 바탕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추후 연락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                             |                                 |
|-----------------------------|---------------------------------|
| <input type="radio"/> 동의합니다 |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감사합니다. 

## 2. 입학관계자 대상 설문지

###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설문(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건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학생부위주전형 자료 및 평가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학입학전형 설계 및 개선,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건국대학교 지정연구 연구진 드림


※설문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팀 (02-450-4012 / konkukao@konkuk.ac.kr)

####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입니다. 각 항목들을 대입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학교생활기록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수학능력시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2.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성취 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나) 자기소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 면접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임기응변 등 언변이 중요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라) 논술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크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선택하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바) 실기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다음은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입니다. 

전형유형		정의	건국대학교 전형 예시
학생부 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KU지역균형전형 학생부 교과 70% + 서류평가 30%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	KU자기추천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논술위주전형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위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일반학생전형 수능 100%
실기/실적위주전형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연기우수자전형 1단계: 학생부 교과 100%(25배수) 2단계: 실기 100%

\* 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전형유형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정 하지 않다	공정 하지 않다	보통 이다	공정 하다	매우 공정 하다
학생부교과전형(교과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서류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교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량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성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실적위주전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 3-가)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전형유형과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유형(선택) 

\* 이유 


## II.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 4. ‘평가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 개인의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지역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유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학급수 등)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이수단위, 진로선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교육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교육 변화에 대한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전공체험, 교사 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5.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위주전형을 다수-다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6. ‘평가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입학사정관의 연령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의 경력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의 전공(학과)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의 고용형태(정규/무기계약/계약직)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모의평가(서류, 면접)를 충분히 경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 뒤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관계자(입학처 직원 등)가 대입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Ⅲ.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과제	전형 연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조치철폐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출처: 교육부)

\*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서의 문항 및 글자 수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추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독서활동, 수상경력

8.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

전형 연도 과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b>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b>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b>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b>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출처: 교육부)

\*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프로파일의 전면 폐지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 개발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회피·배제 재검증 및 사후검증 의무화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의 참관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 및 보존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조치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 •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의 조정 방안 • 최종 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 • 기재금지사항 처리방안 •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마련

서류평가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는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별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는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의 상향\*은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촉사정관 교육시간 :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 (신임/경력) 40시간

**9.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대입전형 구조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

과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출처: 교육부)

**\* '대입전형 구조개편'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선정기준: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

전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연계 추진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논술위주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의 10% 이상 의무화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권고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10. 앞으로의 대학입학전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 정하 지 않 다	공 정 하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공 정 하 다	매 우 공 정 하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등급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내신 등급/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성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원을 다녀야만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여러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와 한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11. 대학 입학사정관(입학 관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입제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및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IV.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                       여

\* 응답자 구분 

- 전임입학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

\*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전체) 


- 2년 미만                       5년 이상~8년 미만                       11년 이상  
 2년 이상~5년 미만                       8년 이상~11년 미만

\* 재직 중인 대학 소재지 

- |                          |                          |                          |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충남 | <input type="radio"/> 대구 |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울산 |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경남 |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전남 | <input type="radio"/> 경북 |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전북 | <input type="radio"/> 제주 |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부산 |                          |

\* 재직 중인 대학 설립 유형 

- 국공립                       사립


\* 재직 중인 대학 규모(신입생 정원내 선발인원 기준) 

- 1,000명 미만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3,000명 이상


**[개인 정보 동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리고자 합니다(선착순 마감 예정). 상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은 상품을 수령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입력 예: 01012345678, 가운데 "-" 생략)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 3. 교사 대상 설문지

####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설문(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건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학생부위주전형 자료 및 평가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학입학전형 설계 및 개선,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확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건국대학교 지정연구 연구진 드림

※설문 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팀 (02-450-4012 / konkukao@konkuk.ac.kr)

####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입니다. 각 항목들을 대입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학교생활기록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수학능력시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고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 자료 및 요소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3년간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성취 과정 및 결과가 함께 기재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 유형에 따라 기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나) 자기소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외부(학교 밖)의 도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 면접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임기응변 등 언변이 중요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 적합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라) 논술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이 크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선택하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일한 시험 문항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바) 실기고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의 노력이 잘 반영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점기준이 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학생이 N수생보다 유리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다음은 대학입학전형의 유형과 정의입니다. 


전형유형		정의	건국대학교 전형 예시
학생부 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KU지역균형전형 학생부 교과 70% + 서류평가 30%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	KU자기추천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논술위주전형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위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일반학생전형 수능 100%
실기/실적위주전형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KU연기우수자전형 1단계: 학생부 교과 100%(25배수) 2단계: 실기 100%

\* 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전형유형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정 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 하다
학생부교과전형(교과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서류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교과전형(교과+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종합전형(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교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논술+수능최저학력기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 1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량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능위주전형(수능+교과 정성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실기/실적위주전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 3-가)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전형유형과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유형(선택) 


\* 이유 

## II.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 4. ‘평가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원자 개인의 교육환경(지역, 소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지역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유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학급수 등)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이수단위, 진로선택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교육 변화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교육 변화에 대한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류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전공체험, 교사 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5.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생부위주전형을 다수-다단계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전형별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형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여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6. '평가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입학사정관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모집단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모의평가(서류, 면접)를 충분히 경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직무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입학사정관이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 뒤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Ⅲ.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과제	전형 연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조치철회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출처: 교육부)

\*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소의 문항 및 글자 수 축소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사추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24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폐지는 외부요인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독서활동, 수상경력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필수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업시수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 적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의 현장 보급은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신고센터 운영은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추가 및 검증 강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는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8.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형 연도 과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학생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생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출처: 교육부)

\*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 렇다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교프로파일의 전면 폐지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 개발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대학의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는 것은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2019. 11. 28.)에서 ‘대입전형 구조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형 연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출처: 교육부)

\* '대입전형 구조개편'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선정기준: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																					
<table border="1"> <tr> <td>건국대</td> <td>경희대</td> <td>고려대</td> <td>광운대</td> <td>동국대</td> <td>서강대</td> <td>서울시립대</td> <td>서울대</td> </tr> <tr> <td>서울여대</td> <td>성균관대</td> <td>숙명여대</td> <td>숭실대</td> <td>연세대</td> <td>중앙대</td> <td>한국외대</td> <td>한양대</td> </tr> </table>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연계 추진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논술위주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의 10% 이상 의무화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권고는 대입전형 구조개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10. 앞으로의 대학입학전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등급만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내신 등급/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면접고사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성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원을 다녀야만 준비가능한 것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원자의 사고력(논리적/종합적/비판적 사고)을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체 지원자의 점수를 표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여러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와 한번 응시해서 얻은 결과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11. 고교 교사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입제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및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IV. 응답자 특성

\* 성별


- 남                       여

\* 재직 중인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형공립고                       특수목적고                       기타

\* 재직 중인 고등학교 소재지 

- |                          |                          |                          |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충남 | <input type="radio"/> 대구 |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울산 |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경남 |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전남 | <input type="radio"/> 경북 |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전북 | <input type="radio"/> 제주 |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부산 |                          |

\* 총 교직 경력 

- |                                    |                                     |                              |
|------------------------------------|-------------------------------------|------------------------------|
| <input type="radio"/> 5년 미만        | <input type="radio"/> 10년 이상~15년 미만 | <input type="radio"/> 20년 이상 |
| <input type="radio"/> 5년 이상~10년 미만 | <input type="radio"/> 15년 이상~20년 미만 |                              |

\* 최근 10년간 대학입학 진학지도 경력



- |                                   |                                   |                             |
|-----------------------------------|-----------------------------------|-----------------------------|
| <input type="radio"/> 없음          | <input type="radio"/> 3년 이상~5년 미만 | <input type="radio"/> 8년 이상 |
| <input type="radio"/> 1년 이상~3년 미만 | <input type="radio"/> 5년 이상~8년 미만 |                             |

\* 현재 업무(보직) 

- |                          |                            |
|--------------------------|----------------------------|
| <input type="radio"/> 부장 | <input type="radio"/> 교과담당 |
| <input type="radio"/> 담임 | <input type="radio"/> 기타   |


\* 담당 교과(주 담당) 

- |                           |                             |                             |
|---------------------------|-----------------------------|-----------------------------|
| <input type="radio"/> 국어  | <input type="radio"/> 사회    | <input type="radio"/> 제2외국어 |
| <input type="radio"/> 수학  | <input type="radio"/> 과학    | <input type="radio"/> 한문/교양 |
| <input type="radio"/> 영어  | <input type="radio"/> 체육/예술 |                             |
| <input type="radio"/> 한국사 | <input type="radio"/> 기술/가정 |                             |


[개인 정보 동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리고자 합니다(선착순 마감 예정). 상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은 상품을 수령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입력 예: 01012345678, 가운데 "-" 생략)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 부록 2

### FGI 자문지

---

---

#### 초점집단면담(FGI) 질문지 [학생, 학부모]

---

---

#####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1. 설문조사 결과,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 면접고사 > 학교생활기록부' 순으로 공정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실기고사 > 논술고사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면접고사'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나. 자기소개서
다. 면접고사
라. 논술고사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바. 실기고사
■선택 항목:
■선택 이유:

## I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4.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의 다수-다단계 평가’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형결과 공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의 전문성에 있어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집단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III.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대학입학전형에서의 ‘공정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 (항목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는?

### ■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해당 항목에 표시 바랍니다)
성함	

---

---

**초점집단면담(FGI) 질문지[교사, 입학사정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청]**

---

---

**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1. 설문조사 결과,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 면접고사 > 학교생활기록부' 순으로 공정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실기고사 > 논술고사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면접고사'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 내 대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대학입학전형에서 평가와 관련된 전형자료 및 전형요소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확대 반영해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나. 자기소개서 다. 면접고사 라. 논술고사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바. 실기고사
■선택 항목: ..... ■선택 이유:

**II.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인식**

4.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내용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자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 절차에 있어 ‘지원자의 고교유형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다**’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입학사정관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의 전문성에 있어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집단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Ⅲ.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7. 대학입학전형에서의 ‘공정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 (항목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입에서의 ‘공정성’이란?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는?

#### ■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입학사정관 <input type="checkbox"/> 한국대학교육협의회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해당 항목에 표시 바랍니다)
성함	

## 부록 3

### 전문가 델파이

#### 1. 1차 델파이\_PDCA 활용 모델





2. 1차 델파이\_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자가진단 리스트(개관)

구분	대분류	중분류	PDCA 구분	문항 수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P	5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P	4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P	5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P	8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P	4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D	6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D	6
		회피·배제 제도 운영	D	2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D	8
		이의신청 절차 운영	D	2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P	4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P	6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D	9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D	6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P	3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P	3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D	4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D	13

### 3. 1차 델파이\_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자가진단 리스트(타당도 및 중요도 결과)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1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규정(조직, 인사, 전형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다.	P	100.0%	4.60
2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이 되어있다.	P	100.0%	4.00
3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입학사정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P	100.0%	4.00
4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P	50.0%	3.60
5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입학사정관 인력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P	90.0%	3.90
6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P	70.0%	3.00
7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평가과정 녹화녹음 보존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P	30.0%	2.60
8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다.	P	100.0%	3.80
9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처리 계획	이의신청처리 규정에는 이의신청 대상, 기간 및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P	90.0%	3.90
10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대학 내부에서 자체 감사 기관을 통해 입시 사후 감사제도가 있다.	P	100.0%	4.60
11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절차를 규정화하고 있다.	P	100.0%	4.4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12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대입전형 관리자 및 평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P	90.0%	4.10
13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이 있다.	P	90.0%	3.80
14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조직 및 체계	내부감사제도 및 규정	관리자 및 동료 평가자의 직무윤리에 위배되는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P	90.0%	3.80
15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모든 평가기준은 전형 시행 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서화한다.	P	100.0%	4.90
16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시 1일 최대 평가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P	60.0%	3.10
17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평가팀 편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P	100.0%	3.90
18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최종합격자 선정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P	100.0%	4.70
19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P	100.0%	4.30
20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면접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심의절차가 있다.	P	100.0%	4.10
21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P	100.0%	4.60
22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운영 제반 규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P	70.0%	3.80
23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입학전형 운영 전반의 공정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P	100.0%	4.5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24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외부인사가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위원회에 참여한다.	P	100.0%	3.20
25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P	90.0%	4.30
26	평가 절차	대입전형 운영 및 위원회 관련 규정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	회피·배제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D	90.0%	4.60
27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학과(전공) 소개 및 인재상을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D	80.0%	3.00
28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정보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입정보를 제공한다.	D	90.0%	3.20
29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입시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대입정보를 제공한다.	D	90.0%	3.30
30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입시설명회 및 상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 구성이 표준화되어 있다.	D	100.0%	3.30
31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대입전형 공개표준안에 따라 전형별 평가기준 및 결과를 다양하게 공개한다.	D	100.0%	3.90
32	평가 절차	대입전형 정보 공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개	전형별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을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등에 공개한다.	D	100.0%	4.70
33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의 평가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D	100.0%	4.90
34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은 여러 단계를 거쳐 평가한다.	D	100.0%	4.40
35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D	100.0%	4.7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36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자별 평가 건수 및 평가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D	100.0%	4.40
37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서류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 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D	90.0%	4.30
38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다수-다단계 평가 운영	면접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D	50.0%	3.10
39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회피·배제 제도 운영	회피·배제 해당 교직원은 해당 전형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한다.	D	90.0%	4.60
40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회피·배제 제도 운영	회피·배제 대상 기준 및 방법을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고지한다.	D	90.0%	4.80
41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확인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한다.	D	100.0%	4.30
42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시 평가에 반영한다.	D	90.0%	3.50
43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심의한다.	D	80.0%	3.60
44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서류평가 시 블라인드 위반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심의한다.	D	80.0%	3.60
45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D	90.0%	3.90
46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서류 및 면접평가 시 가번호를 부여한다.	D	100.0%	4.40
47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 및 지원자에게 사전에 블라인드 면접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D	100.0%	4.1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48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블라인드 및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에 대해 교사연수 및 교사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	D	70.0%	2.90
49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이의신청 절차 운영	이의신청처리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공지한다.	D	100.0%	3.90
50	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이행	이의신청 절차 운영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D	100.0%	4.00
51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전형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전형을 개선한다.	P	80.0%	3.70
52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입학전형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전형운영에 반영한다.	P	80.0%	3.70
53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대입전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P	80.0%	2.90
54	평가 내용	대입전형 연구 설계 및 운영	대입정책 및 입학전형 분석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전형을 설계한다.	P	100.0%	4.40
55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서류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P	90.0%	4.10
56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면접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P	90.0%	4.00
57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전형방법 구성에 있어 고교 교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P	90.0%	3.80
58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P	90.0%	4.20
59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복수의 평가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P	90.0%	4.2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60	평가 내용	대입전형 설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구성	학생부위주전형은 지원자의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P	90.0%	4.00
61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지원자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D	90.0%	4.10
62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활동 경험 및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D	100.0%	4.30
63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지원자 소속 고교의 규모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D	70.0%	3.40
64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지원자 제출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D	60.0%	3.20
65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학생부위주전형에 표준화된 전형요소(수능 등)를 포함한다.	D	60.0%	2.70
66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D	100.0%	4.40
67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전형별 취지에 맞게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을 운영한다.	D	90.0%	4.30
68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서류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D	30.0%	3.00
69	평가 내용	대입전형 운영	전형별 취지에 따른 전형요소 운영	면접평가에서 단일 모집단위를 동일한 평가팀이 평가한다.	D	20.0%	2.90
70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D	90.0%	4.00
71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D	60.0%	3.0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72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학생부위주전형은 공개된 평가기준(평가항목, 배점, 방식 등)대로 운영한다.	D	100.0%	4.90
73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진공체험 등)을 운영한다.	D	60.0%	2.50
74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생 대상 모의전형 프로그램(모의면접 등)을 운영한다.	D	50.0%	2.70
75	평가 내용	대입전형 평가 내용 안내	입학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안내	고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	60.0%	2.70
76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입학사정관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신분안정화 등)을 마련하고 있다.	P	80.0%	4.00
77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위촉사정관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가지고 있다.	P	100.0%	3.90
78	평가자 전문성	채용 및 임용 계획	입학사정관 인력운영 규정 마련	외부 공공사정관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다.	P	60.0%	2.90
79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P	100.0%	4.40
80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사정관의 경력 및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P	100.0%	3.90
81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강화 계획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기획	입학관계자의 입학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P	90.0%	3.50
82	평가자 전문성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퇴직 시 서약서 작성 및 취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D	90.0%	3.50
83	평가자 전문성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입학사정관 채용시 사교육 종사경력을 검토하여 운영한다.	D	80.0%	3.0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84	평가자 전문성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위촉사정관은 전입사정관 대비 적정 수준을 준수하며 위촉한다.	D	90.0%	3.40
85	평가자 전문성	채용·임용 및 평가자 구성	입학사정관 직무 및 경력별 인력 구성	위촉사정관은 전년도 교육·훈련 참여도와 평가역량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D	90.0%	3.70
86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교사의 기록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D	90.0%	3.70
87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D	100.0%	4.60
88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전형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형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운영한다.	D	90.0%	4.00
89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전형자료 열람 및 평가시 서약서(정보보안)를 작성한다.	D	70.0%	3.50
90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입학홍보 및 상담을 위한 교육을 한다.	D	90.0%	4.00
91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입학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D	100.0%	3.80
92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입학전형 이해 및 전형별 특성을 교육한다.	D	100.0%	4.30
93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입학전형 개선 연구결과를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D	90.0%	3.70
94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입학사정관 직무윤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 등)에 대해 교육한다.	D	100.0%	4.40
95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모집단위별 인재상 및 특성에 대해 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D	100.0%	3.80

번호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항목	PD CA	타당도 (100%)	중요도 (5점)
96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모의서류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D	100.0%	4.60
97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모의면접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D	100.0%	4.30
98	평가자 전문성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진행	입학사정관 윤리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D	100.0%	4.60

# 학생부위주전형 공정성 확보 매뉴얼

---

2023년 2월 28일 인쇄

2023년 2월 28일 발행

발행처 건국대학교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02-450-0007

---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